연구보고서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2000. 11.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 리 말

경제의 글로벌화, 지식경제에 의한 산업자본의 대체, 소비자로의 권력이동 등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지주회사제도, 방카슈랑스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일본 보험사들의 파산에 대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현안문제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보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수입보험료 규모 등 주요 보험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자세로서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기관에서 금융 및 일반경제 환경에 대한 장기전망 및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장기전망 자료는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의 주요변화를 조망해보고, 10년 뒤 보험산업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장기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산업 주요지표에 대한 예측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과거 시

차변수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경제 환경의 변화를 모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에 의해 작성되었고,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예측은 서강대학교 남준우 교수의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남준우 교수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보고서 작성자들과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1월

保 險 開 發 院

院長 朴 性 昱

요 약 문

1. 서론

□ 연구목적

- o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의 성장전망 및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으며, 수량적 산업전망과 산업의 트렌드(trend) 변화를 동시에 검토하였음.
- o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전망을 진행하기 위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에 대한 장기 예측모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요 보험선진국의 시장구조 변화 추세를 분석함과 아울러 새로운 구조변화의 최근 징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음.

2.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추이 분석

□ 생명보험

- o 최근 10년간 수입보험료는 연평균증가율 14.7%를 기록.
  - 보험종목별로는 IMF 이후 보험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 증대로 사망보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음(51.9%).
  - 상품별 비중은 1999년 기준으로 개인보험 중 생사혼합보험이 가장 높으며(25.2%), 다음으로는 사망보험(21.5%)의 순임.
- o 총자산 규모는 1989년 22.6조원 → 1999년 110.3조원 : 연평균 17.2%
- o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IMF 이전에는 대출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IMF 체제 이후 기업부도 증가,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증가로 대출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 손해보험

o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18.5% 증가하였음.

- 보험종목별로 보면 장기보험의 증가율이 31.7%로 가장 높음.
- 장기보험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총자산은 연평균 21.9% 증가하였으며 FY1999에는 26조 4,708억원을 기록하였음.

o 유가증권 중심의 자산운용, 특히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채권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3. 주요국 보험산업의 성장추이

□ 미국

o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 연평균 7.3% 증가, 보험종목별로 보면 연금보험의 증가율이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 연평균 3.3% 증가, 보증보험(5.1%), 자동차보험(4.2%)이 전체 증가율을 상회함.

o 총자산

- 생명보험은 연평균 9.0% 증가, 손해보험은 5.9% 증가
- 생·손보 모두 유가증권 중심의 자산운용, 특히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채권비중이 가장 높음.

□ 일본

o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 연평균 -0.3% 증가(경기침체 지속), 보험종목별로 보면 의료보장의 증가율이 8.3%로 높은 편이며 10년간 연금보험의 비중 은 30 35%로 미국보다 상당히 낮음.
- 손해보험 : 연평균 0.5% 증가(요율경쟁 격화, 경기침체 등), 보증보험(9.7%), 화재보험(3.3%), 자동차보험(2.2%)이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였음.

o 총자산

- 생명보험은 연평균 5.0% 증가, 손해보험은 2.8% 증가
- 생·손보 모두 유가증권 중심의 자산운용(국내금리가 낮아 외국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음 : 10 15%).

□ 국내 보험산업 성장추이와의 비교분석

o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 비교

* 소득탄력성 = 수보증가율/GDP증가율(1인당가처분소득 증가율)

- 우리 나라의 소득탄력성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호황이 지속됨으로서 연금의 소득탄력성이 다른 상품보다 크게 나타났음.
- 일본의 경우 1989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보험의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IMF체제를 계기로 국내 보험산업의 고성장 신화는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됨.

o 자산운용

- 채권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대출위주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견지해 왔음. 최근 들어 유가증권 투자가 증대 추세를 보임.

4. 보험산업 중장기 시장규모 예측

□ 경제·금융환경 변화

o 향후 경제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세계경제의 통합 및 지역주의 강화, 지식기반 경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도래라 하겠음.

o 향후 10년간 한국경제는 5%의 실질성장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GDP 규모가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산업 주요지표 예측모형

o 본 모형은 12개의 행태방정식과 2개의 정의식으로 이루어진 모형으로, 주요 경제지표와 보험산업의 제도적 변화를 외생변수로 하여 보험변수의 행태변화를 모형으로 구축하였음.

o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ARIMA 모형에 비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보험산업 주요지표 전망

o 생명보험

- 수입보험료 규모면에서 볼 때 선진국 수준에 달한 보험가입률과 세계 2위의 보험침투도로 인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연금보험 중심의 저축성보험 수요 증대로 GDP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5.7%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시현, 2010년의 총 수입보험료는 8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종목별 구성비 변동 :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단체보험의 역할이 상당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인식 제고에 따른 사망보험의 성장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o 손해보험

- FY20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7조 1,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손해보험 산업은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GDP 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종목별 구성비 변동 : 보증보험의 큰 폭 성장으로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난 10년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장기손해보험은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보험은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전망임.

5.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추세 전망

□ 보험수요 특성의 구조적 변화

- o 우리나라의 연간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11.2%로 일본의 9.6% 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학력화, 보험인식제고, 보험수요세대의 하향추세 등으로 자발적 보험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o 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수요 변화,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선호추세가 뚜렷하며 1, 2차 베이비붐세대가 주보험 수요세대가 됨에 따라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증대함.

□ 연금시장의 성장

- o 노령화추세와 함께 국민연금의 역할이 재정상 문제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민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o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기업연금으로 현행 퇴직금제도 하에서 사내 유보된 퇴직금을 대체하는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음.
- o 개인연금의 성장세도 예상되는 바, 생보성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입하고 싶은 보험으로 연금보험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건강보험시장의 급속한 확대

- o 의료비규모는 GDP의 4%를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o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의료보장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o 장기간병보험제도의 도입, 기업복지체제의 개편도 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투자형 보험상품과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 o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로 낮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형 상품 수요가 감퇴하고 투자형 상품 선호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 o 금융겸업화와 금융기관간 통합의 진전으로 소비자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기관의 구분에 상관없이 상품, 가격 및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임.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요의 변화

- o 보장성보험 분야의 주력상품인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지속적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종신보험(Whole Life)에 대한 수요증가도 예상됨.
- o 현재 우리 나라의 종신보험시장은 발전 초기단계이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구조적 차이로 인해 급속한 비중 확대는 어렵겠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와 보장성보험 개발에 대한 보험사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 o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상품, 요율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노하우(know-how)를 이용하여 신흥시장의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무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음.
- o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보험담보 필요성 증대 그리고 신상품 및 신위험에 대한 수요 증대라는 신흥국가들의 요구와도 부합되는 것임.
- o 특히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곳으로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예상되고 있어 세계 주요 보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임.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보험시장 확대

- o 향후 남·북간의 교역 및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화재, 해상, 근재, 배상책임보험, SOC 투자와 관련한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한 기술보험 그리고 주민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른 상해 및 개인배상을 포함한 종합보험의 상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배상책임 수요증대 및 ART 시장 활성화

- o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력을 갖춘 가격비교가 가능한 소비자

의 출현은 판매부분의 경쟁격화를 유발하여 시장의 힘을 공급자 우위에서 소비자 우위로 역전시킬 것임.

- o 경제주체들의 권리의식 고양과 함께 2002년 7월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동 상품뿐만 아니라 리콜 담보상품 등 관련상품들의 수요증가를 유발할 전망임.
- o ART시장 중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은 다양한 위험분산을 통한 보험회사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 보험 및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재해채권의 발행이 기대됨.

□ 역외보험시장의 성장

- o 금융 및 자본 자유화는 자본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운용 시스템을 찾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획득 비용으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상대자를 국제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음.
- o 우리 나라의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 역시 보험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글로벌화 추세와 함께 Cross-border 거래 역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

- o 국내외적으로 조사된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망에 의하면 대부분이 향후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데는 가계성보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전망됨.
- o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저가형 보장성 보험상품 위주의 제한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목적과 과제 2
Ⅱ. 국내 보험산업 성장추이 분석 4
1. 보험산업 지표분석 4
2. 보험사 경영전략 변화추이 47
Ⅲ. 주요국의 보험산업 성장추이 51
1. 미국 51
2. 일본 61
3. 국내 보험산업 성장추이와의 비교분석 70
Ⅳ. 보험산업 중장기 시장규모 예측 85
1. 경제·금융환경 변화 85
2. 보험산업 주요 지표 예측모형 95
3. 주요지표 종합전망 102
4. 생명보험 106
5. 손해보험 116
Ⅴ.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추세 전망 128
1. 보험수요 특성의 구조적 변화 128
2. 연금시장의 성장 133
3. 건강보험시장의 급속한 확대 142
4. 투자형 보험상품과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148
5.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요의 변화 153
6.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158
7.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보험시장 확대 165
8. 배상책임 수요증대 및 ART시장 활성화 168
9. 역외보험시장(Cross-Border)의 성장 171
10.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 173
Ⅵ. 요약 및 결론 182
참 고 문 헌 190

<표 차 례>

<표 Ⅱ-1> 생명보험 계약 추이 5
<표 Ⅱ-2> 생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7
<표 Ⅱ-3> 생명보험 종류별 수입보험료 추이 9
<표 Ⅱ-4> 보험기능별 수입보험료 10
<표 Ⅱ-5> 생보사 지급보험금 추이 11
<표 Ⅱ-6> 생보사 투자수익 추이 12
<표 Ⅱ-7> 생보사 사업비 추이 13
<표 Ⅱ-8> 생보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14
<표 Ⅱ-9> 생보사 영업조직 추이 16
<표 Ⅱ-10> 연도별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17
<표 Ⅱ-11> 생보사 총자산 추이 18
<표 Ⅱ-12> 생보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20
<표 Ⅱ-13> 생보사 경영효율 주요 지표 21
<표 Ⅱ-14> 국내 손보사 원수보험료 추이 25
<표 Ⅱ-15>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28
<표 Ⅱ-16> 손해보험 종목별 발생손해액 추이 30
<표 Ⅱ-17>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 추이 31
<표 Ⅱ-18> 손보사 투자수익 추이 32
<표 Ⅱ-19>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영업이익 추이 33
<표 Ⅱ-20> 손보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34
<표 Ⅱ-21> 보험사별 당기순이익 추이 35
<표 Ⅱ-22> 손보사 모집조직 추이 36
<표 Ⅱ-23>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37
<표 Ⅱ-24> 손보사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추이 38
<표 Ⅱ-25> 모집조직 효율성 추이 39
<표 Ⅱ-26> 손보사 총자산 추이 40
<표 Ⅱ-27> 손보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42
<표 Ⅱ-28> 손보사 합산비율 추이 43
<표 Ⅱ-29> 손보사 보험종목별 손해율 추이 44
<표 Ⅱ-30> 손보사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추이 46

<표 Ⅲ-1> 미국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52
<표 Ⅲ-2> 미국 생명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54
<표 Ⅲ-3> 미국 생명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56
<표 Ⅲ-4> 미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58
<표 Ⅲ-5> 미국 손해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60
<표 Ⅲ-6> 미국 손해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61
<표 Ⅲ-7> 일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62
<표 Ⅲ-8> 일본 생명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64
<표 Ⅲ-9> 일본 생명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65
<표 Ⅲ-10> 일본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67
<표 Ⅲ-11> 일본 손해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68
<표 Ⅲ-12> 일본 손해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70
<표 Ⅲ-13> 국가별 생명보험 상품별 소득탄력성 추이 74
<표 Ⅲ-14> 국가별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 75
<표 Ⅲ-15> 국가별 연금보험 침투도 추이 75
<표 Ⅲ-16> 국가별 손해보험 종목별 소득탄력성 추이 77
<표 Ⅲ-17> 국가별 보험침투도 추이 79
<표 Ⅲ-18> 국가별 1인당 지출보험료 추이 80
<표 Ⅲ-19> 국가별 생보사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82
<표 Ⅳ-1>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87
<표 Ⅳ-2> 세계경제 전망 89
<표 Ⅳ-3> 지역별 GDP 비중 및 성장률 90
<표 Ⅳ-4> 실질 GDP 성장률 전망 91
<표 Ⅳ-5> GDP 지출구조 및 무역규모 전망 93
<표 Ⅳ-6> 물가 및 고용전망 95
<표 Ⅳ-7>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추이 102
<표 Ⅳ-8> 연도별 보험침투도 추이 103
<표 Ⅳ-9>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104
<표 Ⅳ-10> 연도별 생·손보 구성비 추이 104
<표 Ⅳ-11> 연도별 총자산 및 증가율 추이 105
<표 Ⅳ-1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106

<표 Ⅳ-13> 생명보험 총자산규모 추이 108
<표 Ⅳ-14>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110
<표 Ⅳ-1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17
<표 Ⅳ-16>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118
<표 Ⅳ-17>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120
<표 Ⅳ-18>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1
<표 Ⅳ-19>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2
<표 Ⅳ-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3
<표 Ⅳ-21>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4
<표 Ⅳ-22>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6
<표 Ⅳ-2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7
<표 Ⅴ-1> 한·일간 가구당 보험료 비교 129
<표 Ⅴ-2> 자발적 보험수요 추세 130
<표 Ⅴ-3> 생명보험 가입목적의 변화추이 131
<표 Ⅴ-4>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133
<표 Ⅴ-5> 세계 각국의 노령화의 진행 속도 134
<표 Ⅴ-6>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시 퇴직금 채무규모 추계 139
<표 Ⅴ-7>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규모 추계 142
<표 Ⅴ-8> 보험종류별 상품개발 구성추이 154
<표 Ⅴ-9> 미국 및 일본의 종신보험 비중 추이 155
<표 Ⅴ-10> 미국 개인종신보험 상품비중 추이 156
<표 Ⅴ-11> 일본의 정기부 종신보험 비중 추이 157
<표 Ⅴ-12> 신흥시장의 외국보험사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정도 159
<표 Ⅴ-13> 1998년 동남아 국가들의 보험산업 규모 및 성장률 161
<표 Ⅴ-14> 1998년 신흥국가의 보험산업 구조 163
<표 Ⅴ-1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63
<표 Ⅴ-16> 美·中 보험시장 비교 164
<표 Ⅴ-17> 미국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추이 169
<표 Ⅴ-18> 재보험과 대재해채권(Cat Bond)의 비교 170
<표 Ⅴ-19> 각국의 Cross-border 거래 규모 172
<표 Ⅴ-20> 생·손보사의 사이버 보험판매 현황 174

<표 Ⅴ-21> 향후 생명보험 종목별 정보통신판매 비중 175
<표 Ⅴ-22> 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정보통신판매 비중 176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7
<그림 Ⅱ-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9
<그림 Ⅱ-3> 생보사 지급보험금 추이 11
<그림 Ⅱ-4> 생보사 영업조직 증가율 추이 16
<그림 Ⅱ-5> 생보사 총자산 추이 19
<그림 Ⅱ-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감추이 23
<그림 Ⅱ-7>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29
<그림 Ⅱ-8> 손해보험 손해율 증감추이 30
<그림 Ⅱ-9> 손보사 모집조직 추이 36
<그림 Ⅱ-10>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40
<그림 Ⅱ-11> 손보사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추이 46
<그림 Ⅲ-1> 미국 생명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52
<그림 Ⅲ-2> 미국 생명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53
<그림 Ⅲ-3> 미국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58
<그림 Ⅲ-4> 미국 손해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59
<그림 Ⅲ-5>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63
<그림 Ⅲ-6> 일본 생명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64
<그림 Ⅲ-7>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66
<그림 Ⅲ-8> 일본 손해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68
<그림 Ⅳ-1>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디지털경제 88
<그림 Ⅳ-2>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03
<그림 Ⅳ-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107
<그림 Ⅳ-4>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108
<그림 Ⅳ-5> 생명보험 총자산규모 추이 109
<그림 Ⅳ-6>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111
<그림 Ⅳ-7>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112
<그림 Ⅳ-8>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114

<그림 Ⅳ-9>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115
<그림 Ⅳ-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17
<그림 Ⅳ-11>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118
<그림 Ⅳ-12>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119
<그림 Ⅳ-13> 손해보험산업 총자산 추이 120
<그림 Ⅳ-14>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1
<그림 Ⅳ-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2
<그림 Ⅳ-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4
<그림 Ⅳ-17>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5
<그림 Ⅳ-18>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6
<그림 Ⅳ-19>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27
<그림 Ⅴ-1> 선진국 및 신흥시장의 보험료 성장률 추이 162
<그림 Ⅴ-2>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료 추이 166
<그림 Ⅴ-3>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구성비 166
<그림 Ⅴ-4> 보험산업 자유화 절차 171
<그림 Ⅴ-5> 온라인 보험상품의 구매 예상종목 177
<그림 Ⅴ-6> 자동차/주택보험/생명보험의 온라인 판매전망 177
<그림 Ⅴ-7> 연도별 온라인 판매량 전망 178
<그림 Ⅴ-8> 인터넷에 의한 판매 채널수 변화 180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내외의 금융환경은 과거 성장기의 환경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저성장의 시대로 전환되었고,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전반과 기업의 구조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global)화의 진행과 규제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보험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계경제의 통합화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쟁구도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지주회사의 출현 등 금융겸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간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금융산업 내 전방위적 경쟁과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경제의 급속한 확산은 이러한 경쟁의 범위와 심도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결국 고객의 태도이다. 상품개발에서 서비스 제공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드를 만족시키는 방식을 찾아내는 보험회사만이 글로벌화와 다각화가 진행된 금융서비스 산업 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느냐는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찾아낼 때만이 가능하다.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경영전략 수립의 話頭는 핵심역량의 강화이다. 문제는 어떠한 분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느

냐는 점이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는 장애가 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수요 트렌드(trend)를 분석하는 일은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됨으로써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노력은 매우 미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장기예측에 대한 관심의 부족, 보험산업 장기예측모델의 개발의 어려움 등이 이러한 현상을 낳았던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근본적 재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장기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초한 경영전략 수립의 검토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규모에 대한 예측과 보험수요 트렌드의 변화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중장기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목적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의 성장전망 및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산업의 장기 전망은 경영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단기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준비를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수량적 산업전망과 산업의 트렌드(trend) 변화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전망을 진행하기 위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에 대한 장기 예측모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요 보험선진국의 시장구조 변화 추세를 분석함과 아울러 새로운 구조변화의 최근 징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과거 성장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현 단계 보험산업의 특성을 밝히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Ⅲ장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보험선진국의 보험산업 성장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추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Ⅳ장은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의 수치전망을 제시하였다. 국내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전망한 위에서 보험산업 주요 지표에 대한 장기 예측모형 연구를 토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와 총자산을 전망하고, 종목별 구성비의 변동도 예측하였다.

제Ⅴ장은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추세를 보험수요의 트렌드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보험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수요, 공급,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의 향후 생존과 발전을 좌우할 핵심적 요소로 고객 니드와 만족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소비자 중심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에 주목하여 보험수요의 트렌드 변화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절은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추세를 제시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시사점의 제시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서술하였다.

Ⅱ. 국내 보험산업 성장추이 분석

1. 보험산업 지표분석

가. 생명보험

1) 계약상황

가) 신계약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 금액은 FY1989에 56.1조원에 불과하였으나 FY1999 현재 265.6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신계약은 국내의 고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반영하여 FY1995까지 급성장세를 보이다가 IMF 이후 슈퍼재테크보험의 판매 급증으로 일시적인 급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FY1999에는 전년대비 9.9%의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FY1999의 신계약액 감소는 FY1998 생명보험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상품 판매 확대 및 연금보험 판매 확대로 IMF 체제하의 보험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FY1998년 신계약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Y1999에는 대형사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신계약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신설사의 경우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의 판매 확대로 지속적인 신계약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11.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표 Ⅱ-1> 생명보험 계약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신계약	560,712 (5.9)	1,267,047 (28.5)	2,509,232 (26.9)	2,811,021 (10.8)	2,656,194 (-9.9)	16.6
보유계약	858,632 (50.1)	1,979,762 (22.8)	4,289,728 (31.3)	5,663,820 (12.0)	7,019,327 (13.7)	23.4
효력상실 해약액	294,874 (31.5)	879,306 (48.0)	1,497,746 (29.6)	2,214,744 (21.8)	1,785,770 (-29.0)	19.8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FY1999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한 수치임.
3. FY1995년부터 신기준으로 산출함('97. 4. 1 계약액 산정방법이 공칭계약에서 상품관리규정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됨).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년, 2000년, 6월호.

나) 보유계약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 금액은 FY1989에 85.9조원에 불과하였으나 FY1999 현재 701.9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FY1997 IMF 체제이후 신계약 증가 둔화 및 효력상실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과거(FY1989 FY1996의 연평균 증가율 28.8%)와 같은 보유계약액의 높은 성장세는 사라지고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FY1999의 보유계약은 701.9조원으로 전년대비 13.7%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이는 신계약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효력상실해약액이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효력상실해약액

효력상실해약액은 FY1989에 29.5조원에 불과하였으나 FY1999 현재 178.5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효력상실해약액 증가 추세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의 불완전, 저축성보험 위주의 판매 등으로 IMF 체제하의 FY1998까지 지속되었으나 FY1999에는 경기상승과 가계소득증가 그리고 낮은 시장금리 수준, 적극적인 유지율 제고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FY1999의 효력상실해약액은 기존사의 경우 전년대비 25.5% 개선된 149.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신설사의 경우에는 44.3%나 개선된 29.1조원을 기록하여 기존사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부실계약 해소 노력 등 적극적인 유지율 제고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지상황

가) 수입보험료

(1) 총괄

최근 10년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14.7% 증가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사의 경우 13.3%, 신설사의 경우 27.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입보험료 규모면에서는 FY1989에 11.9조에 불과하였으나 FY1999에 46.8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사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1989 11.2조원에서 FY1999 38.9조원에 이르고 있고, 신설사의 경우 FY1989 6,895억원에서 FY1999 7조 8,358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입보험료의 성장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된 신상품 개발 등으로 FY1997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IMF 체제 직후인 FY1998에는 3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한때 위기를 보이기도 했으나 FY1999 들어 경기회복세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해약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8%의 소폭 성장을 달성하였다. 각 생보사에서 금리부담이 적고 비교

적 보험료가 저렴한 중장기 보장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부실 생보사의 합병 등을 감안하면 FY1999의 수입보험료 실적은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MF 체제 이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시장집중의 심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FY1998부터는 생보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설사의 퇴출로 인하여 대형사의 선호추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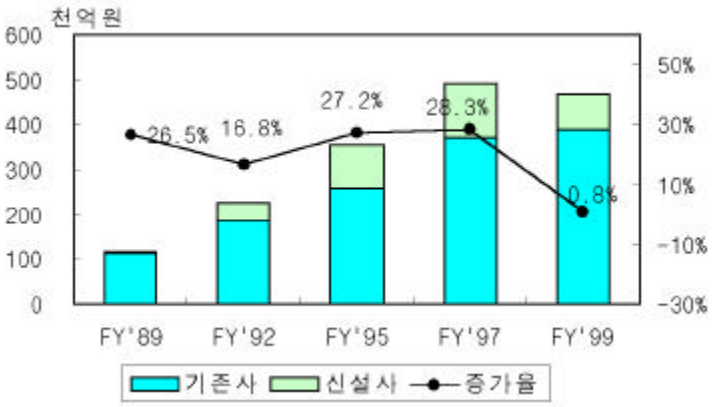
<표 Ⅱ-2> 생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기존사	111,760 (94.2)	185,288 (81.8)	258,066 (73.1)	371,270 (75.8)	389,198 (83.2)	13.3
신설사	6,895 (5.8)	41,125 (18.2)	94,815 (26.9)	118,289 (24.2)	78,358 (16.8)	27.5
계	118,656 (26.5)	226,414 (16.8)	352,881 (27.2)	489,559 (28.3)	467,554 (0.8)	14.7

주 : 1. 1987년 이후에 설립된 생보사를 신설사로 구분(외국사 지점 포함).
2. 기존사 및 신설사 ( )안은 시장점유율이며, 계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1999년 5월호.

<그림 Ⅱ-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2)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

최근 10년간 수입보험료를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사망보험의 경우 FY1989 1,53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FY1999 10조 461억원을 기록하여 연평균 51.9%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단체보험이 20.4%, 생사혼합보험 11.0%, 생존보험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사망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IMF 이후 보험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보장성 보험으로 이동하고 1997년 7월부터 생손보 겸영이 허용된 제3분야 보험의 판매호조로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FY1999에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21.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생존보험의 경우 1994년 6월부터 세제지원 개인연금보험이 판매가 시작되어 FY1994에는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62.4%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개인연금보험의 신계약 감소와 소비자의 위험보장성 보험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게 되어, FY1999에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20.9%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도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6년 10월부터 판매한 비과세 가계저축보험과 1997년 말부터 판매한 고금리 금융형 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판매의 허용으로 FY1997에는 점유율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 FY1992부터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은 FY1992 FY1993 동안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판매감소로 인한 영향과 FY1998에는 기업부도와 경영여건의 악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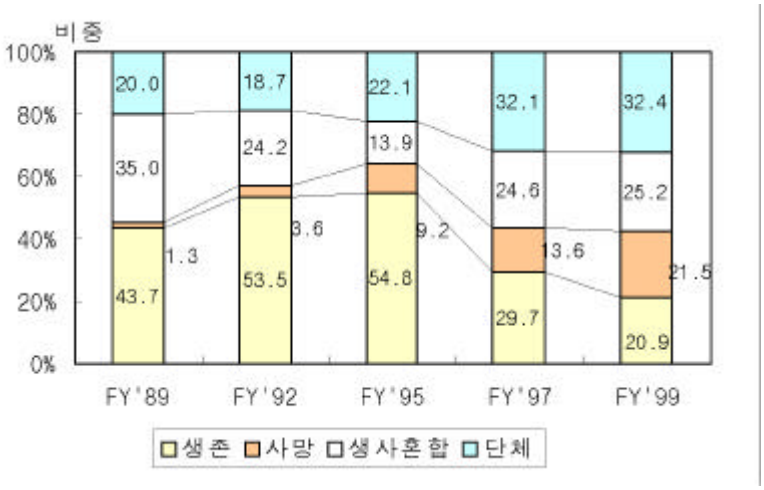
<표 Ⅱ-3> 생명보험 종류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생존보험	51,886 (43.7)	121,114 (53.5)	193,310 (54.8)	145,264 (29.7)	97,808 (20.9)
사망보험	1,534 (1.3)	8,214 (3.6)	32,426 (9.2)	66,733 (13.6)	100,461 (21.5)
생사혼합	41,550 (35.0)	54,857 (24.2)	49,200 (13.9)	120,651 (24.6)	117,813 (25.2)
개인보험계	94,970 (80.0)	184,185 (81.3)	274,937 (77.9)	332,648 (67.9)	316,082 (67.6)
단체보험	23,686 (20.0)	42,229 (18.7)	77,944 (22.1)	156,911 (32.1)	151,473 (32.4)
전 체	118,656 (26.5)	226.414 (16.8)	352,881 (27.2)	489,559 (28.3)	467,554 (0.8)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1999년 5월호.

<그림 Ⅱ-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3) 보험기능별 수입보험료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중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손익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IMF 체제 이후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응하여 생명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FY1999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체의 24.0%를 차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표 Ⅱ-4> 보험기능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저축성보험	115,090 (97.0)	211,800 (93.5)	307,044 (87.0)	412,859 (84.3)	355,424 (76.0)
보장성보험	3,566 (3.0)	14,614 (6.5)	45,837 (13.0)	76,700 (15.7)	112,130 (24.0)
계	118,656	226,414	352,881	489,559	467,554

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1999년 5월호.

나) 지급보험금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던 지급보험금은 IMF 직후 보험계약의 해약급증으로 1998년 초에 큰 폭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FY1997년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약 67.8%나 증가하였다. FY1998년부터는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FY1999의 지급보험금은 IMF 체제 이후 급증했던 해약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5.7% 감소한 38조 4,899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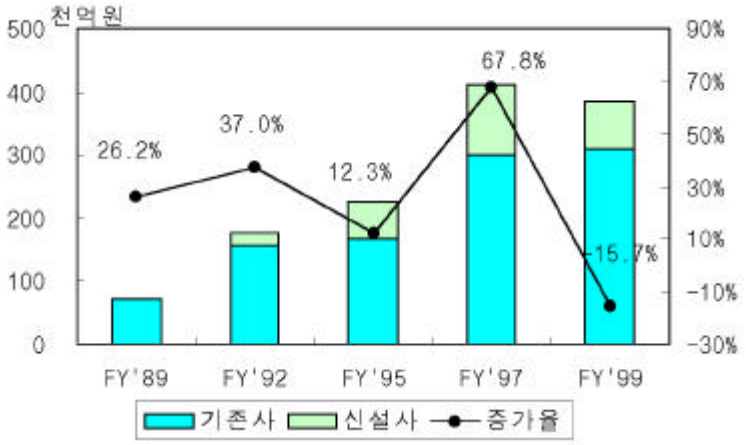
<표 Ⅱ-5> 생보사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기존사	71,502 (25.1)	155,371 (30.9)	168,625 (5.2)	300,633 (64.3)	308,290 (-13.2)	15.7
신설사	710 (1299.0)	20,510 (111.7)	55,417 (41.7)	111,127 (77.9)	74,759 (-26.3)	59.3
계	72,212 (26.2)	175,881 (37.0)	224,042 (12.3)	411,760 (67.8)	384,899 (-15.7)	18.2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그림 Ⅱ-3> 생보사 지급보험금 추이



다) 투자수익

최근 10년간 국내 생보사 투자수익의 연평균증가율은 15.9%로 나타

났으며, 기존사의 경우에는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14.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신설사의 경우에는 FY1989 생보사의 대규모 신설(12개사)로 인한 투자액의 절대규모가 작음에 따라 평균증가율이 기존사보다 높은 44.6%를 기록하였다.

FY1999 국내 생보사 투자수익은 10조 6,0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9%p 감소한 5.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최근의 연평균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기존사의 경우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향 안정세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신설사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유가증권 투자로 전년보다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Ⅱ-6> 생보사 투자수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기존사	23,801 (10.4)	41,949 (16.2)	54,784 (15.7)	74,983 (19.5)	89,555 (1.7)	14.2
신설사	413 (438.6)	5,255 (48.3)	10,518 (25.2)	15,976 (21.9)	16,518 (33.1)	44.6
계	24,215 (11.9)	47,204 (19.1)	65,301 (17.1)	90,959 (19.9)	106,073 (5.6)	15.9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라) 사업비

수입보험료 증가와 더불어 사업비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IMF 체제 이후 강도 높은 보험사 구조조정을 지속한 결과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하회하여 초과사업비율은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FY1999 초과사업비율은 -2.9%로 FY1997의 -1.0%에 비해 개선되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우량한 실적을 보인 것으

로 판단된다.

<표 Ⅱ-7> 생보사 사업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기존사	예정사업비(A)	13,572	24,944	46,834	60,277	62,228
	실제사업비(B)	13,528	24,048	45,155	53,670	50,864
	초과사업비(B-A)	-44	-896	-1,679	-6,607	-11,364
	초과사업비율	0.0	-0.5	-0.7	-1.8	-2.9
신설사	예정사업비(C)	377	5,916	14,834	16,321	12,646
	실제사업비(D)	554	6,643	19,036	18,083	11,847
	초과사업비(D-C)	177	727	4,202	1,762	-799
	초과사업비율	2.6	1.8	4.4	1.5	-1.0
계	예정사업비(E)	13,949	30,860	61,668	76,598	74,874
	실제사업비(F)	14,082	30,691	64,190	71,753	62,711
	초과사업비(F-E)	133	-169	2,522	-4,845	-12,163
	초과사업비율	0.1	-0.1	0.7	-1.0	-2.6

주 : 1) 초과사업비율은 초과사업비/수입보험료 임.
2) 이연신계약비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마) 수지차

보험사의 수익은 보험영업수익, 자산운용수익, 기타수익의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익 중 보험영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FY1989 이래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FY1995에는 84.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FY1999에는 79.4%에 이르고 있으며, 반대로 자산운용수익의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험수지는 보험영업수익에서 보험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사업비 등의 지출요인이 보험료 수입 등의 수입요인보다 항상 많아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보험금 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Ⅱ-8> 생보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총수익	보험영업	118,749	226,834	353,856	491,424	419,426
	자산운용	24,215	47,204	65,301	90,959	106,073
	기 타	29	391	431	16,941	2,625
	계	142,993	274,429	419,588	599,324	528,124
총비용	보험영업	140.306	269,124	417,454	581,557	478,296
	자산운용	1,830	3,372	7,236	19,731	45,874
	기 타	272	701	3,395	6,234	121.117
	계	142,408	273,197	428,085	607,522	536,287
수지차	보험영업	-21,557	-42,290	-63,598	-90,133	-58,870
	자산운용	22,385	43,832	58,065	71,228	60,199
	기 타	-243	-310	-2,964	10,707	-9,492
	계	585	1,232	-8,497	-8,198	-8,163
법 인 세		119	355	6	256	1,646
당기순이익		466	876	-8,503	-8,454	-9,809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년, 2000년, 6월호.

한편, 생보사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FY1989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기 시작했으나 FY1994년부터 신설 생보사들의 이연사업비 상각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누적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IMF 이후 금융기관에 대

한 재무건전성이 부각되면서 신설 생보사들은 기존 계약의 해약이 증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매각 등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FY1998년에는 4개의 신설 생보사가 퇴출되기도 하였다. 반면 기존 대형 생보사(동아제외)들은 지속적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어 이들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설 생보사들이 이처럼 부실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비의 초과지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Ⅱ-7>에서 보듯이 신설 생보사들은 설립이후 IMF 체제 직전인 1997년까지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초과사업비율이 (+))함으로써 적자폭을 증대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적자를 자산운용에서 보전해야 함에도 신설사들은 기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차보증금, 이연자산 등 무수익자산이 많아 자산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실효해약률, 모집인의 낮은 정착률 등도 신설사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영업조직

가) 조직규모 추이

생명보험회사의 점포수는 FY1989에 7,657개에 불과하던 것이 FY1995 에는 1.9배 증가한 14,819개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FY1999에는 7,789개로 FY1995의 수준으로 돌아서고 있다.

점포수는 1990년대 중반이후 사업비 절감을 위한 점포 통폐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IMF 체제 직후인 FY1998에는 전년대비 24%나 감소하기도 하였다. FY1999 생보사 점포수는 전년보다 753개소가 감소한 7,789개소로 나타나, IMF를 기점으로 한 점포수 감소추세가 지난 회계연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사의 점포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업비 절감을 위한 부실점포의 통

폐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집인수 역시 점포수와 비슷한 성장을 보여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Y1999에는 전년보다 4,764명이 감소한 241,429명으로 전체로는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기존사의 경우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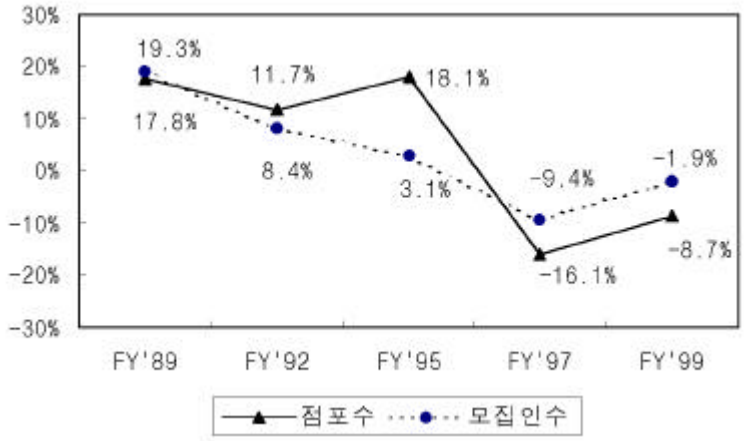
<표 Ⅱ-9> 생보사 영업조직 추이

(단위 : 개소, 명,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점포수	기존사	6,742 (9.1)	7,258 (1.8)	7,878 (5.5)	7,352 (-2.5)	6,304 (-3.1)
	신설사	915 (185.9)	3,330 (41.7)	6,941 (37.2)	4,027 (-33.1)	1,485 (-31.3)
	계	7,657 (17.8)	10,588 (11.7)	14,819 (18.3)	11,379 (-16.1)	7,789 (-10.1)
모집인수	기존사	181,848 (6.1)	190.346 (-0.1)	224,328 (6.4)	218,356 (-1.2)	200,686 (1.6)
	신설사	28,436 (573.0)	101,382 (29.0)	124,878 (-2.5)	75,042 (-27.2)	40,743 (-16.2)
	계	210,284 (19.8)	291,728 (8.4)	349,206 (3.1)	293,398 (-9.4)	241,429 (-1.9)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1999년 5월호.

<그림 Ⅱ-4> 생보사 영업조직 증가율 추이



나) 조직생산성 추이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10년간 점포당 수입보험료는 FY1989에 15억 5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FY1999에는 3.8배 증가한 60억 3백만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점포당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Y1999 기준 점포당 수입보험료는 기존사 61억 7천4백만원, 신설사 52억 8천만원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1%의 증가를 보였다. 모집인당 수입보험료 역시 기존사 1억 9천4백만원, 신설사 1억 9천2백만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8%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조직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FY1998이후 수입보험료 규모가 감소 내지 정체되었고 FY1999에는 기존사의 영업조직 규모가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사의 경우 큰 폭의 점포당 수입보험료 증가를 보여 모집인당 수입보험료의 경우 기존사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부실 모집인 및 점포의 대대적인 정비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Ⅱ-10> 연도별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점포당 수입보험료	기존사	1,658 (10.6)	2,552 (9.8)	3,276 (19.3)	5,050 (33.3)	6,174 (6.0)
	신설사	754 (107.7)	1,236 (3.8)	1,366 (-5.3)	2,937 (84.0)	5,277 (34.3)
	계	1,550 (7.4)	2,138 (4.6)	2,381 (7.5)	4,302 (52.9)	6,003 (12.1)
모집인당 수입보험료	기존사	61 (13.7)	97 (11.9)	115 (18.5)	170 (31.6)	194 (1.1)
	신설사	25 (-11.7)	41 (13.9)	76 (33.3)	158 (68.9)	192 (10.1)
	계	56 (5.6)	78 (7.8)	101 (23.4)	167 (41.6)	194 (2.8)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1999년 5월호.

4) 총자산

가) 자산규모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10년간 총 자산규모는 FY1989에 22.6조원에서 FY1999에는 4.9배 증가한 110.3조원으로 연평균 17.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는데 신설사가 32.8%로 기존사(15.9%)보다 현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FY1999에는 생보사 총자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19.5%의 증가한 110.2조원 기록하였다. 이는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약률 감소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금융기관 안정성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신설사보다는 기존사의 총자산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기존사의 경우에는 최근 5개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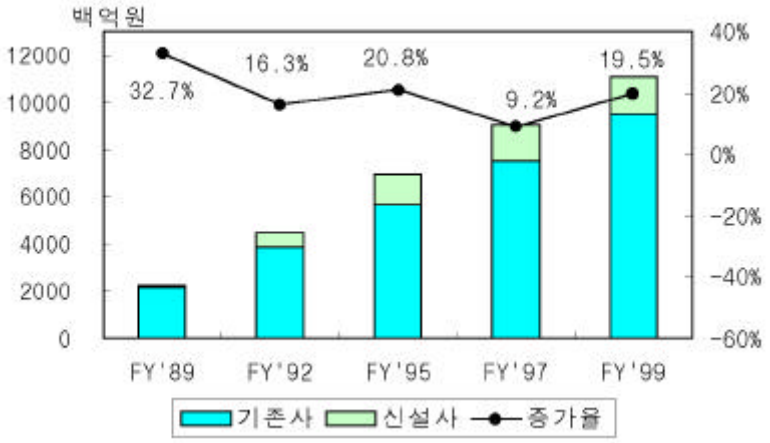
<표 Ⅱ-11> 생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기존사	217,730 (28.7)	388,357 (13.0)	564,510 (19.8)	753,240 (11.4)	954,635 (22.9)	15.9
신설사	8,705 (470.7)	63,193 (42.0)	132,257 (25.5)	155,969 (-0.6)	148,318 (1.5)	32.8
계	226,435 (32.7)	451,551 (16.3)	696,767 (20.8)	909,209 (9.2)	1,102,953 (19.5)	17.2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년, 2000년, 6월호.

<그림 Ⅱ-5> 생보사 총자산 추이



³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생명보험회사의 10년 동안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살펴보면 IMF 이전에는 대출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FY1997 IMF 체제이후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대출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FY1999 생보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40.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 부동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의 비중은 FY1998 보다 5.8%p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의 비중은 6.4%p나 감소하여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국공채 및 특수채의 투자확대로 채권의 투자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7%p 증가하였다.

한편, FY1999부터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자산은 총자산의 4.3%이며, FY1998 회계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계약비 이연과 FY1999 특별계정 도입으로 FY1998 이후 비운용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Ⅱ-12> 생보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현예금 등	9.9	13.4	13.8	14.9	4.7
유가증권	26.1	25.8	27.6	25.8	40.8
- 주식	18.0	10.8	13.6	10.1	8.1
- 채권	8.0	13.8	12.8	10.9	15.3
- 수익증권	-	-	-	4.1	13.8
- 기타	-	1.1	0.9	0.6	3.5
대출금	52.8	47.2	45.3	45.9	32.0
부동산	7.5	7.3	7.3	8.1	8.7
운용자산	96.3	93.7	94.0	94.8	86.3
비운용자산	3.7	6.3	6.0	5.2	9.5
특별계정	0.0	0.0	0.0	0.0	4.3
총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월간 생협』, 1999년 5월호.

3) 경영효율

가) 보험금 지급률

최근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인 보험금 지급률은 FY1989에 60.9%에 불과하였으나 FY1999에는 82.3%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21.4%p나 증가하여 보험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FY1997 금융위기 이후 보험금 지급률의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해약은 급증하는 반면 수입보험료는 정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FY1999의 보험금 지급률은 FY199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보험산업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안정궤도로 접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FY1999에는 신설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전년도 보다 현저하게 개선(29.9%p 감소)된 89.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FY1997 이후 보험회사의 신뢰성의 위기로 보험금지급률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현저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3> 생보사 경영효율 주요 지표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보험금지급률		60.9	77.7	63.5	84.1	82.3
실효해약률		27.0	32.5	25.9	28.1	20.5
사업비율	예정	11.8	13.6	17.5	15.6	16.0
	실제	11.9	13.5	18.2	14.7	13.4
	초과	0.1	-0.1	0.7	-0.9	-2.6
자산운용률		96.3	93.7	94.0	94.8	86.3
총자산수익률		13.0	11.9	10.8	11.0	11.1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2. 실효해약률 = 효력상실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3.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의 비율임.

4. 초과사업비율 = 실제사업비율 - 예정사업비율.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연호.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년/2000년 6월호.

나) 실효해약률

생명보험회사의 실효해약률은 FY1989에는 26.0%를 기록하였으나 FY1999에는 20.5%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효해약률은 FY1992에는 30.5%에 이르는 등 최고치를 보이면서 FY1998에는 29.4%까지 지속되다가 FY1999에는 20.5%로 현저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FY1998의 실효해약률의 증가는 금융위기 이후 효력상실 및 해약액이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신규계약과 전년도 보유계약은 증가율이 둔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실효해약률은 경제의 성장세 둔화, 임금상승률 둔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기존계약의 해약증가 등 악화 요인과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 및 계약자 서비스 강화 등 개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다) 사업비율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는 수입보험료의 증가에 따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국내 생보사의 경우 신설사의 과당경쟁으로 사업비율이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즉, FY1994 FY1996까지 3개년 연평균 사업비율이 18.2%를 기록하는 등 최고조를 보이다가 FY1997부터 현저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FY1999의 사업비율은 13.4%로 FY1992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개선실적을 나타냈다.

한편 초과사업비율의 경우 일시적(FY1992) 현상을 제외하고 FY1997까지 초과사업비율이 양(+)의 수치를 보였으나 FY1998이후 초

과사업비가 해소되었고, FY1999에는 -2.6%수준에 이르고 있다.

라) 자산운용수익률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수익률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1.3%를 기록하여 채권 금리 수준을 밑돌고 있다. IMF 체제 직후인 FY1998에는 시중금리가 상당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여 수익률이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Y1999 총자산수익률은 11.2%로 전년보다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사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1.1%p 감소한 11.1%를 기록한 반면, 신설사의 경우에는 3.6%p 증가한 12.2%를 기록하였다.

나. 손해보험

1) 수지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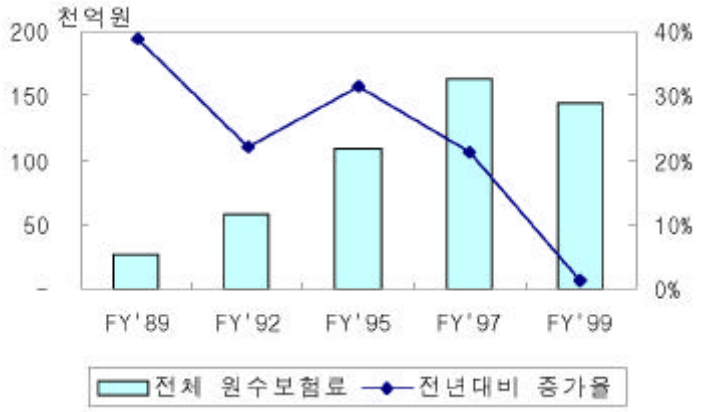
가) 원수보험료

국내 손보사 전체의 최근 10년간 원수보험료 성장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 18.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 8월 1 일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과 자동차대수의 꾸준한 증가, 1994년 6월부터 판매된 개인연금손해보험의 판매증가 등 장기손해보험의 금융형 상품의 판매호조로 높은 성장을 시현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실업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등록대수가 감소되고 환율급등 등에 의한 차량유지비 상승으로 소유차량의 소형화, 신차교체의 둔화, 보험의 일부가입 또는 미가입의 증가로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극히 낮아졌다.

<그림 Ⅱ-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감추이



IMF 한파로 물가상승, 임금동결 및 감소, 구매력 감소영향이 동시에 몰아쳐 일시적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해약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FY1998 이후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며 신상품개발에 의한 신시장의 개척으로 특종보험은 IMF 환경 하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경기의 불확성실이 커지고 주주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신장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FY1999의 원수보험료는 14조 4,5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의 점유율은 각각 38.8%, 45.9%를 차지하여 손해보험 비중의 84.7%를 점유하였다.

(1) 회사별 원수보험료

국내 손보사들의 최근 10년간 원수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FY1997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IMF 체제에 진입하면서 FY1998에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한 후 소폭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FY1989 이후 경제성장과 한국보증보험의 본격 영업, 장기보험상품

의 개발 및 판매,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 등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FY1991까지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가계성 보험시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 IMF 체제 이전까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IMF 체제 이후 보증사의 원수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IMF 직전인 1997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보증에 대한 인수제한을 완화한 결과 보험료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IMF 이후 두 보증사가 서울보증으로 합병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외형성장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다.

FY1999 국내 손보사들의 원수보험료는 14조 4,52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하는데 그쳐 아직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4> 국내 손보사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원 수 사	24,416 (38.9)	54,025 (23.0)	102,229 (33.4)	150,224 (17.2)	138,759 (1.7)	19.0
보 증 사	1,966 (40.3)	3,777 (11.5)	7,009 (7.9)	12,951 (99.1)	5,752 (-6.1)	11.3
재 보 사	6 (27.3)	5 (-1.4)	6 (10.4)	8 (20.9)	13 (-3.1)	8.3
계	26,388 (39.0)	57,807 (22.2)	109,244 (31.4)	163,183 (21.2)	144,524 (1.4)	18.5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2)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① 화재보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화재보험의 경우 FY1989 FY1993까지 200만호 주택건설,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가계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다가 FY1997 이후 IMF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와 같은 원수보험료 절대액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측면과 더불어 위험의 종합담보상품에 대한 선호(재산종합, 패키지보험 등으로의 지속적인 이전) 및 계약유치를 위한 보험사의 경쟁적인 요율제시가 계약이전 및 신규가입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②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FY1990 및 FY1994년에 교역조건이 유리해지며 수출입 물동량 증대에 따른 성장세 기록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FY1999에 수출증대로 인해 적하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하보험과 운송보험은 손해율 실적이 양호한 종목으로 향후 순율제 시행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수보험료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선박보험은 1997년 환율상승에 힘입어 보험료가 증가되기도 했으나 범위요율 적용 폭의 확대, 역외보험거래(cross-border) 허용 등으로 보험료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동차보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IMF 이후로 감소세를 보인 자동차보험은 FY1989 FY1995까지는 원수보험료의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1995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과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대수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FY1994 FY1996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12월 이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자동차등록대수 감소 및 기본요율 가격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FY1998년에는 전년대비 14.5%까지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FY1999년 플러스보험의 판매호조로 감소세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연평균 증가율 11.3%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보증사의 유동성위기와 이에 따른 영업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보증보험의 고성장은 물적담보를 대체하는 보증시장 자체의 성장에 따른 것이었으며 FY1997에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보험수요의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권의 회사채보증 기피로 인한 회사채보증의 비정상적 성장에 따라 보험료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보증보험의 예금자보호법 지급대상 제외로 인한 무보증 회사채의 증가로 사채보증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이행보증수요의 감소, 할부판매보증의 시장이탈, 신원보증의 수요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보험료 규모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7년부터 판매개시된 신용보험은 통신사업자대상 상품의 판매호조로 보증보험 신규시장 개척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⑤ 특종보험

특종보험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위험의 다양화에 대비한 손보사들의 활발한 상품개발 노력 및 기술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FY1994 FY1996년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FY1998 FY1999년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위축이 건설수주 및 근재보험의 급격한 수요감소로 이어져 원수보험료 감소추세를 보였다.

⑥ 장기보험

장기보험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종목으로써 1995년 이후 장기상해보험의 상품개발 및 판매증가로 인해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3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비과

세 가계장기저축상품 등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확대로 장기상해, 장기종합보험의 판매호조가 지속되었다.

FY1998에는 전년대비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국내경제의 침체에 따른 실업인구의 증가와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로 신계약이 크게 감소하고, 기존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1999년은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신상품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표 Ⅱ-15>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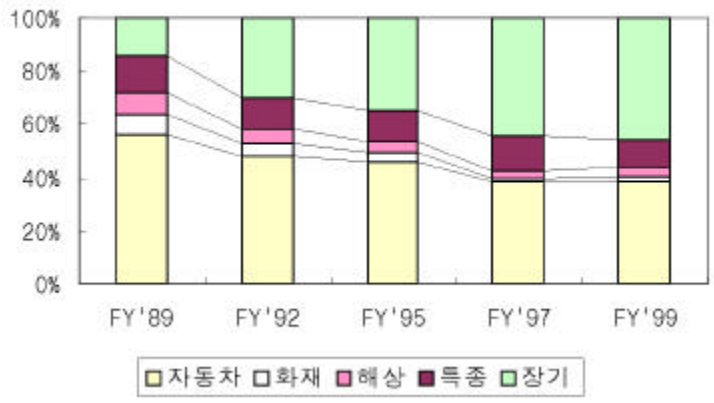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화 재	1,897 (7.2)	2,918 (5.0)	3,782 (3.5)	3,216 (2.0)	2,646 (1.8)	3.4
해 상	2,271 (8.6)	3,191 (5.5)	4,532 (4.1)	3,986 (2.4)	4,571 (3.2)	7.2
자 동 차	14,811 (56.1)	27,460 (47.5)	50,103 (45.9)	61,765 (37.8)	55,368 (38.3)	14.1
보 증	1,960 (7.4)	3,769 (6.5)	7,002 (6.4)	12,939 (7.9)	5,738 (4.0)	11.3
특 종	1,547 (5.9)	2,928 (5.1)	5,662 (5.2)	8,425 (5.2)	9,179 (6.4)	19.5
원 보 험	69 (0.3)	249 (0.4)	408 (0.4)	789 (0.5)	673 (0.5)	25.5
장 기	3,832 (14.5)	17,293 (29.9)	30,592 (28.0)	63,018 (38.6)	60,307 (41.7)	31.7
개인연금	- -	- -	7,163 (6.6)	9,046 (5.5)	6,041 (4.2)	10.7
계	26,388 (100.0)	57,807 (100.0)	109,244 (100.0)	163,183 (100.0)	144,524 (100.0)	18.5

주 : ( )안은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의 추이를 살펴볼 때 FY1995를 기준으로 하여 전반기인 FY1989 FY1995까지는 원수보험료의 규모면에서 자동차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FY1997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기보험(개인연금 포함)의 경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여 FY1998에는 전체 규모의 47.2%를 차지하였으며, FY1999에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여 45.9%에 이르고 있다.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7>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주 : 특종은 보증보험, 장기는 개인연금을 포함한 실적임.

나) 발생손해액

국내 손보사들의 최근 10년간 발생손해액은 24.4%의 증가율을 보여 원수보험료 증가율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체제 이후 기업부도의 증가 등으로 보증보험의 대지급금 증가와 FY1998 초 장기보험의 해약급증에 따른 환급금 증가가 발생손해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사료된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FY1999 중 대우사태에 따른 대지급금 증가로 발생손해액이 전년보다 109%나 증가한 4조 4,600억원을 기록하여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는 FY1998 이후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원수보험사들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FY1999에 발생손해액이 전년보다 11.9% 증가하여 원수사들의 수지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고 8월부터 소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보험 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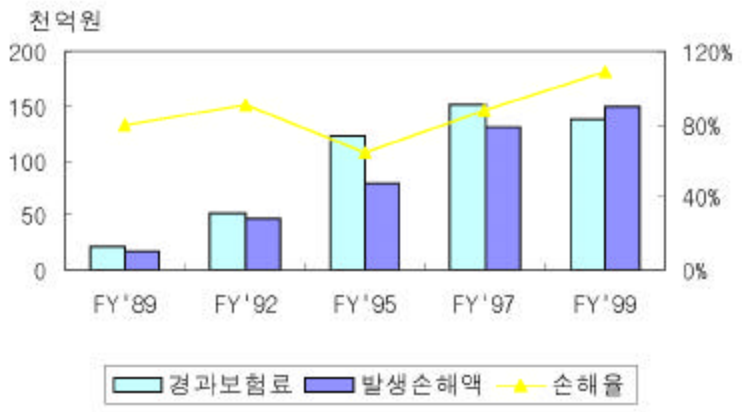
<표 Ⅱ-16> 손해보험 종목별 발생손해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화 재	543	868	1,318	1,852	1,270	8.9
해 상	447	679	1,049	1,196	927	7.6
자 동 차	10,971	23,142	35,331	37,735	36,456	12.8
보 증	900	5,716	5,514	18,822	44,598	47.7
특 종	689	1,418	2,299	3,576	3,615	18.0
원 보 험	23	93	111	241	272	28.0
외국수재	281	300	179	521	399	3.6
장 기	3,113	14,678	28,625	58,251	55,717	33.4
개인연금	-	-	5,147	9,249	6,873	22.0
계	16,968	46,895	79,571	131,445	150,126	24.4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Ⅱ-8> 손해보험 손해율 증감추이



다) 사업비

IMF 체제 직전인 FY1997까지 사업비는 원수보험료 증가추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IMF 체제 이후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FY1998에는 전년대비 12.0%나 감소하였다가 FY1999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더불어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Ⅱ-17>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화 재	558 (18.9)	974 (15.2)	1,399 (21.6)	1,545 (8.9)	1,142 (-11.5)	7.4
해 상	502 (10.5)	625 (9.2)	901 (22.5)	1,173 (19.4)	882 (-8.1)	5.8
자 동 차	3,355 (51.0)	5,946 (15.7)	11,404 (34.4)	18,460 (9.5)	17,766 (3.3)	18.1
보 증	402 (47.9)	740 (3.0)	1,098 (13.0)	1,186 (-7.7)	685 (-37.4)	5.5
특 종	469 (30.3)	760 (11.8)	1,270 (36.6)	2,107 (21.5)	1,558 (-30.0)	12.7
원 보 험	26 (-4.1)	75 (31.1)	89 (-20.0)	124 (55.3)	161 (-4.5)	19.9
외국수재	86 (10.5)	129 (12.7)	111 (-0.9)	153 (48.8)	229 (4.2)	10.3
장 기	928 (42.5)	3,070 (34.8)	5,563 (27.7)	12,348 (27.7)	12,405 (21.8)	29.6
개인연금	- -	- -	1,578 (60.8)	1,426 (-19.1)	891 (56.0)	-1.9
계	6,326 (39.5)	12,319 (18.4)	23,413 (31.3)	38,523 (13.6)	35,720 (5.3)	18.9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보증보험사의 경우 1998년 2개 보증사의 합병 이후 사업비 절감 노력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FY1999에는 전년대비 37.4%나 감소하는 실적

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장기와 개인연금은 FY1998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수보험료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라) 투자수익

최근 10년간 국내 손보사 투자수익의 연평균증가율은 21.7%로 나타났으며 원수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FY1999 국내 손보사 투자수익은 2조 5,18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7%p 증가한 26.8%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생보사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증권시장의 호전으로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높은 손보사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사의 경우 FY1998에 비해 무려 154%나 증가하였지만 재보사의 경우 4.2%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다.

<표 Ⅱ-18> 손보사 투자수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원 수 사	2,747	4,868	7,832	14,609	22,195	23.2
보 증 사	343	485	539	526	2,052	19.6
재 보 사	449	339	537	873	940	7.7
계	3,540	5,691	8,908	16,008	25,187	21.7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마) 보험영업이익

최근 10년간 국내 손보사들의 보험영업이익은 매년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증보험과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의 적자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 IMF 체제 이후 기업부도의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종목 중에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으로 이들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해 손해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손보사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FY1997 FY1998에 대규모 이익을 시현하였으나 FY1999에는 손해율 증가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여 원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Ⅱ-19>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화 재	262	70	-14	-693	-361
해 상	606	717	972	12	304
자 동 차	-2,228	-3,159	-2,240	2636	-4,292
보 증	-26	-3,134	-841	-13,028	-35,504
특 종	25	214	575	510	1,177
원 보 험	-8	-21	26	35	-5
외국수재	-159	-88	27	-233	183
장 기	-446	-1,875	-3,514	-7,002	-7,982
개인연금	-	-	387	-1,611	-1,719
계	-1,974	-7,276	-4,623	-19,375	-48,201

주 : 비상위험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수치는 반영안됨.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바) 총수익 및 총비용

최근 10년 동안의 손보사 총수익을 살펴볼 때 보험영업수익 비중이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보사에 비하여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아 총자산수익률이 최근 10년간 평균 2% 정도 낮은 상황이어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20> 손보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총수익	보험영업	21,321	51,932	98,392	150,579	137,645
	자산운용	3,540	5,691	8,908	16,008	25,187
	기 타	174	835	800	2,463	5,300
	계	25,035	58,458	108,100	169,050	168,132
총비용	보험영업	23,695	59,238	105,293	173,393	186,328
	자산운용	240	481	1,144	3,824	8,777
	기 타	212	144	270	1,499	6,187
	계	24,147	59,863	106,707	178,716	201,292
수지차	보험영업	-2,374	-7,306	-6,901	-22,814	-48,683
	자산운용	3,300	5,210	7,764	12,184	16,410
	기 타	-38	691	530	964	-887
	계	888	-1,405	1,393	-9,666	-33,160
법 인 세		215	102	65	250	1,164
당기순이익		673	-1,507	1,328	-9,916	-34,324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수지는 보험영업수익에서 보험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업비 등의 지출요인이 보험료 수입 등의 수입요인보다 항상 많아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전에는 장기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보험영업비용의 1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IMF 체제가 시작된 FY1997에는 23.9%, FY1998에는 30.4%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적자 증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손보사의 보험수지가 대폭 악화된 것은 보증보험사의 발생손해액 증가도 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FY1989 자산운용 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674억원의 순이익 이후 보험영업이익의 감소 등으로 매년 감소하여 FY1992에는 1,50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FY1995와 FY1996에는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입대수증가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원수보험료 증대와 손해율의 개선에 따른 수지개선에 따라 적자에서 탈피하였다가 FY1997 이후 다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IMF 체제 이후 보증보험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산업전체가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다. 원수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FY1999에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전년에 비해 59%나 감소한 898억원에 그쳤으며 재보사의 경우 FY1999에 흑자 폭이 확대되어 전년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Ⅱ-21> 보험사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원 수 사	366	-302	1,666	557	898
보 증 사	164	-1,175	-432	-10,453	-35,514
재 보 사	144	-29	93	-20	294
계	674	-1,506	1,327	-9,916	-34,323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2) 영업조직

가) 조직규모 추이

국내 손보사들의 점포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업비 절감을 위한 점포 통폐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FY1999에는 전년대비 13.5% 감소하여 3,505개소로 나타나, IMF를 기점으로 한 점포수 감소추세가 지난 회계연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수도 FY1996을 기점으로 한 부실 모집인 정리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대리점 수는 FY1998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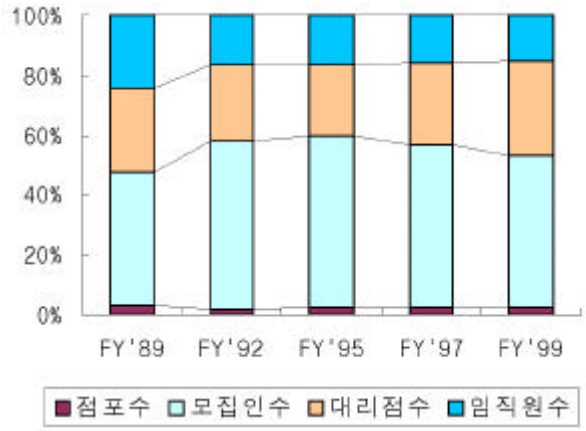
<표 Ⅱ-22> 손보사 모집조직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임직원수	18,659 (15.7)	21,082 (1.6)	26,749 (16.1)	30,617 (-1.5)	24,524 (-3.6)	2.8
점 포 수	2,209 (20.4)	2,699 (6.3)	3,686 (24.0)	4,465 (-2.0)	3,505 (-13.5)	4.7
모집인수	34,010 (46.3)	72,196 (22.2)	91,942 (26.3)	102,732 (-11.3)	83,466 (-4.9)	9.4
대리점수	21,025 (30.5)	33,077 (10.0)	38,252 (0.5)	51,823 (11.7)	52,432 (2.7)	9.6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그림 Ⅱ-9> 손보사 모집조직 추이



³ ₉) 생산성

국내 손보사들의 모집인당 원수보험료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모집인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Y1999 기준 모

집인당 원수보험료는 7,980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추세는 IMF 이후 부실 모집인의 정리 등을 통하여 모집인 수가 감소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리점당 원수보험료는 FY1997에 1억 2,79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FY1998에는 감소하였다가 FY1999에는 소폭 회복되었다. 대리점당 원수보험료는 1997년 이전에는 모집인당 원수보험료의 2.5 3배 수준을 기록했으나, 1997년 이후 1.5 1.7배 수준으로 하락하여 생산성이 하락 내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23>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임 직 원	24.8 (-6.9)	35.6 (5.4)	52.3 (2.1)	70.3 (52.0)	53.2 (-7.9)	7.9
모 집 인	17.9 (3.7)	18.8 (3.4)	40.0 (15.1)	70.5 (47.6)	79.8 (5.3)	16.1
대 리 점	71.4 (11.0)	98.0 (10.0)	119.6 (23.4)	127.9 (5.2)	122.6 (3.3)	5.6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거수보험료/임직원수.
3. 모집인당 원수보험료 = 모집인 거수보험료/모집인수.
4.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거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다) 판매채널비중

국내 손보사들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모집조직인 모집인과 대리점의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임직원과 공동인수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장기손해보험의 판매증가로 모집인의 판매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리점의 비중도 꾸준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FY1999 현재 보험종목별 판매채널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화재, 해상, 특종)은 기업성 물건이 대부분이어서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타 종목에 비해 매우 낮고 회사직급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고, 장기보험은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계성보험이 대부분이어서 전통적인 모집조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판매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전통적인 모집조직의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9년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퇴직보험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Ⅱ-24> 손보사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임 직 원	17.5	13.0	12.8	13.2	9.0
모 집 인	23.0	23.5	33.7	44.4	46.1
대 리 점	56.9	56.1	41.9	40.6	44.5
공동인수	2.6	7.5	11.6	1.8	0.4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라) 효율성

국내 손보사들의 모집조직 효율성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증가율 16.0%를 기록한 임직원 효율성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FY1997과 FY1999에는 모집인이나 대리점에 비해 1.5배 2배 수준을 보인데 반해 대리점이나 모집인의 효율성은 계속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효율

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25> 모집조직 효율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임 직 원	32.0 (5.8)	32.5 (6.0)	58.6 (10.3)	121.6 (56.0)	141.1 (8.5)	16.0
모 집 인	9.6 (-2.1)	9.3 (-3.2)	6.8 (-4.6)	6.9 (15.8)	7.5 (-4.7)	-2.4
대 리 점	12.5 (-3.7)	10.6 (-18.5)	9.3 (3.2)	8.7 (2.4)	8.4 (-5.5)	-3.9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임직원 효율성 = 임직원당 원수보험료/임직원당 비용.
3. 모집인 효율성 = 모집인당 원수보험료/모집인당 비용.
4. 대리점 효율성 = 대리점당 원수보험료/대리점당 비용.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3) 자산

가) 총규모

국내 손보사들의 최근 10년간 총자산의 연평균증가율은 21.9%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던 총자산 규모는 FY1995 이후로 매년 20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IMF 이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여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FY1999 기준 손보사 총자산은 26조 4,70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5%p 증가한 18.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원수보험료의 소폭 증가와 자동차보험에서의 발생손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에서의 해약률 감소에 따른 발생손해액 감소와 증권시장의 호전에 따른 투자수익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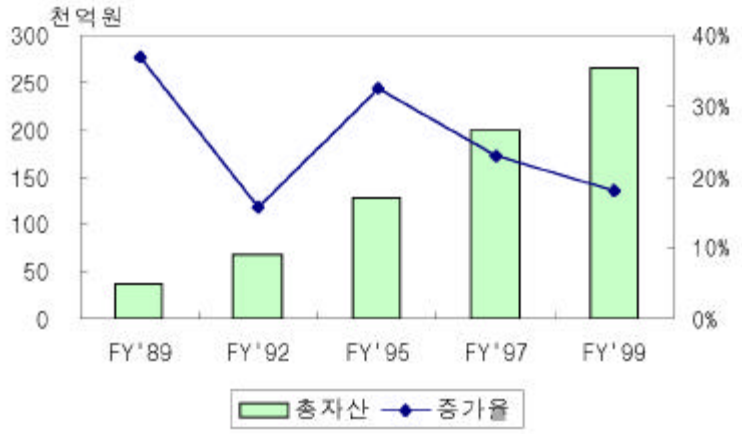
<표 Ⅱ-26> 손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연평균 증가율
원 수 사	28,130 (38.8)	55,292 (17.0)	108,399 (37.6)	170,044 (20.0)	216,760 (15.7)	22.7
보 증 사	3,726 (39.0)	6,031 (8.4)	10,094 (6.1)	17,362 (65.1)	32,940 (40.7)	24.4
재 보 사	4,564 (24.8)	6,612 (13.7)	8,621 (13.7)	12,034 (19.5)	15,009 (10.4)	12.6
계	36,420 (36.9)	67,935 (15.8)	127,114 (32.6)	199,440 (22.9)	264,708 (18.0)	21.9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그림 Ⅱ-10>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국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높은 비중이 매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손보사의 자산이 생보사보다

단기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 이후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대출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증권시장의 호전에 따라 유가증권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유가증권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 특히 국공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Y1998에는 수익증권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식시장의 활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투신사 수익증권의 매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FY1999 손보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45.1%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 13.7%, 현예금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의 비중은 FY1998 보다 2.8%p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의 비중은 2.14%p 감소하여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국공채 및 특수채의 투자확대로 채권의 투자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6.3%p 증가하였다.

FY1999부터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자산은 총자산의 1.3%이며, 비운용자산은 전체의 19.2%에 이르러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Ⅱ-27> 손보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현·예금 등	7,885 (21.7)	12,226 (18.0)	23,905 (18.8)	37,106 (18.6)	29,056 (11.0)
유가증권	14,492 (39.8)	25,162 (37.0)	41,549 (32.7)	64,068 (32.1)	119,287 (45.1)
- 주 식	8,185 (22.5)	10,844 (16.0)	19,822 (15.6)	22,462 (11.3)	21,928 (8.3)
- 채 권	6,218 (17.1)	13,568 (20.0)	20,677 (16.3)	39,850 (20.0)	58,173 (22.0)
- 수익증권	- -	- -	- -	- -	27,100 (10.2)
- 기 타	88 (0.2)	750 (1.1)	1,050 (0.8)	1,757 (0.9)	12,086 (4.6)
대 출 금	5,318 (14.6)	12,554 (18.5)	27,877 (21.9)	44,675 (22.4)	36,267 (13.7)
부 동 산	2,587 (7.1)	5,066 (7.5)	11,147 (8.8)	17,532 (8.8)	25,783 (9.7)
운용자산	30,282 (83.1)	55,008 (81.0)	104,478 (82.2)	163,381 (81.9)	210,393 (79.5)
비운용자산	6,138 (16.9)	12,927 (19.0)	22,636 (17.8)	36,059 (18.1)	50,781 (19.2)
특별계정	- -	- -	- -	- -	3,534 (1.3)
총 자 산	36,420 (100.0)	67,935 (100.0)	127,114 (100.0)	199,440 (100.0)	264,708 (100.0)

주 : 1. ( )안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1989 1997 수익증권은 기타에 포함됨.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4) 경영효율

가) 합산비율

국내 손보사들의 합산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우선 손해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FY1992를

제외하고 FY1995까지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FY1997부터 매년 악화추세에 있으며, 사업비율의 경우에는 25% 내외에서 큰 폭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산비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손해율의 상승에 기인하며, 특히 보증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손보산업의 손해율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손보사의 수익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은 FY1993 92.9%를 기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우리 나라가 IMF 체제로 진입하면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말미암아 보증보험사의 대지급금 증가로 FY1997과 FY1998에는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원수사들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사업비율이 최근 27% 내외에 달하고 있어 합산비율이 109%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산운용수익률이 10%내외에 이르고 있어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손해율 증가, 자산운용환경 급변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익구조가 악화될 소지가 있어 회사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과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Ⅱ-28> 손보사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원수사	경과손해율	80.8	86.8	80.4	78.8	83.9
	사업비율	24.9	22.1	22.4	24.7	27.0
	합산비율	105.6	108.9	102.8	103.6	110.9
보증사	경과손해율	74.5	130.2	96.8	267.2	462.4
	사업비율	20.2	21.0	20.2	21.2	15.0
	합산비율	94.7	151.3	117.0	288.4	477.4
재보사	경과손해율	70.9	104.9	72.1	89.5	75.2
	사업비율	35.6	29.5	29.3	28.7	23.4
	합산비율	106.5	134.4	101.5	118.2	98.6
계	경과손해율	79.6	90.3	80.9	87.3	109.1
	사업비율	25.4	22.4	22.6	24.8	26.4
	합산비율	105.0	112.7	103.5	112.1	135.5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원수사의 손해율은 대체로 80%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FY1992에 86.8%로 증가하였고, FY1999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1%p나 증가하여 수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반해 재보사의 경우에는 FY1997 이후로 합산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율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 보험종목별 손해율 추이

국내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FY1995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IMF 이후 기업부도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특히 FY1999 대우사태로 인하여 손해율이 무려 456%에 달해 손보산업의 손해율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FY1990 들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보험사 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가 FY1999에는 전년대비 11.3%p나 증가하여 보험영업수익에 큰 타격을 주어 금년 8월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었다.

<표 Ⅱ-29> 손보사 보험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화 재	39.9	45.4	4.9	68.5	61.9
해 상	28.8	33.7	35.9	50.2	46.0
자 동 차	90.7	89.3	79.4	64.1	73.0
보 증	70.5	172.1	95.5	269.7	456.0
특 종	58.3	59.3	55.5	57.7	56.9
원 보 험	55.6	63.4	49.1	60.3	63.6
외국수재	135.3	88.0	56.6	118.0	49.2
장 기	86.6	92.5	93.3	91.6	92.6
개인연금	-	-	72.0	102.2	113.7
계	79.6	90.3	64.8	87.3	109.1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한편, 화재, 해상, 특종 등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10년간 40 60% 내외의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 손보사 수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추이

국내 손보사들의 최근 10년간 평균 총자산수익률은 9.4%로 시중 실세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자산수익률은 11.6%로 총자산수익률을 2%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큰 차이는 보험미수금이나 임차보증금과 같은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운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미수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보사의 경우 두 수익률간의 격차가 FY1999 기준으로 약 7%나 발생하고 있다. 보증사의 경우에도 FY1999에 대우사태에 따른 채권미회수액을 비운용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두 수익률간의 격차가 7%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업사의 경우 보증사는 채권회수를 통한 비운용자산의 감소가 필요하고 재보사의 경우에는 보험미수금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Y1999기준 국내 손보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0.9%로 전년대비 1.1%p나 증가하였다. 이는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높은 손보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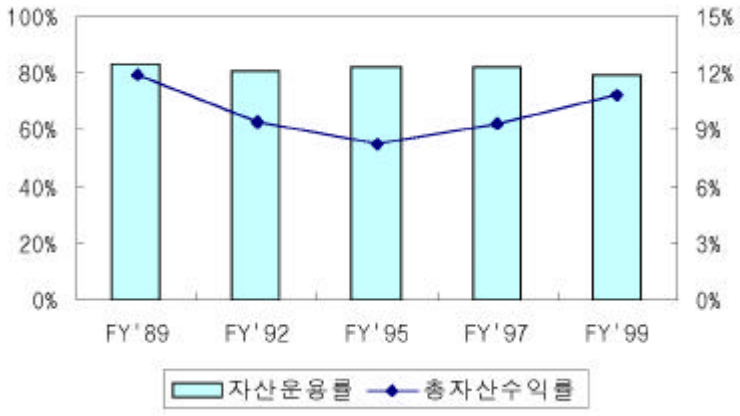
<표 Ⅱ-30> 손보사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자산운용률	원수사	85.4	84.0	84.3	84.1	85.8
	보증사	79.8	69.1	74.4	75.6	48.4
	재보사	71.7	66.6	65.2	60.7	52.3
	계	83.1	81.0	82.2	81.9	79.5
총자산수익률	원수사	12.0	10.0	8.7	9.8	11.6
	보증사	11.3	8.7	5.7	3.8	7.6
	재보사	11.6	5.6	6.9	8.2	6.8
	계	11.9	9.4	8.3	9.3	10.9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Ⅱ-11> 손보사 자산운용률 및 총자산수익률 추이



2. 보험사 경영전략 변화추이

현재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다가 IMF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성장률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외형성장 위주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정착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세계 속의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규모에서 금융위기 직후인 FY1998에도 생명보험이 46.3조원으로 6위, 손해보험이 14.1조원으로 12위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7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처럼 보험산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질적인 면에서는 IMF 직전까지 보험산업의 후진성이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IMF라는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으며 각 보험사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의 요구를 수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IMF 이전 우리 나라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최고가치는 성장이었으며 이러한 경제운용의 틀 속에서 대형화만이 살아남는다는 신화가 생겨났으나, IMF 체제는 이러한 신화에서 깨어나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케 하였으며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 보험회사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경영전반에 걸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수익성위주의 전략으로 전환

국내 보험회사들은 지난 30여년간 Cash Flow Management 위주로 외형과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키는 데만 주력해왔다. 즉,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력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외형성장 위주로 보유한 주

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식의 무모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과 보호, 동일한 가격과 자산운용상의 저위험 시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IMF 체제로 접어들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자금운용상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외형확대는 수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바, 경영전략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로의 전환을 불러왔다.

우선 상품개발 측면을 살펴보면, 생보사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부터 소비자의 보장성 보험의 니드 증대에 따라 보장성 상품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Y1989에는 수입보험료 중에 보장성 상품의 비중이 3.0%에 불과하던 것이 FY1999에는 24.0%로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생보업계의 상품개발 특징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보장성보험의 강세와 저축성보험의 퇴조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특히 제3분야보험의 상품개발이 활발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Y1997 10.2%에서 FY1999에는 19.9%로 높아졌으며, 계약자 지향적인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이 활성화되어 이들 보험에 다양하게 부가하기 위한 독립특약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부보대수의 감소, 보험요율자유화 등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비와 손해율의 증가를 불러왔으며 그 결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계약자 계층을 세분화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언더라이팅 전략과 함께 운전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소멸성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방안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과거 손해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던 장기저축성보험은 IMF 이후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로 신규가입이 줄고 해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수요는 저축형보다는 순수보장형과 고금리상품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응한 고금리상품인 파워플랜과 해약방지를 위한 계약전환보험을 개발하는 등 해약증대와 신계약 감소로 인

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판매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하는 한편 자사에 적합한 주력상품을 특화하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판매조직 정비

국내 보험사들의 판매채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집인이나 대리점을 활용한 연고판매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상당히 많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도 많았다.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보험모집인에 의해 판매되었으며, 대량도입과 대량탈락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실계약과 사업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모집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포의 무분별한 설치와 인력 스카웃의 월권행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단기 금융형 상품의 수익률 보전을 위한 변칙적 사업비 운용, 변칙적 보험계약 스카웃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생보사를 중심으로 모집조직의 재구축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특히 IMF 체제 이후 부실 모집인의 과감한 정리와 생산성이 낮은 점포의 통폐합을 통하여 모집조직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금융겸업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에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과거 거수보험료의 90% 이상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전형인 대리점/설계사 조직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형화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들어 각 사는 TM, 인터넷, 우편 등을 활용한 직판제도(Direct Marketing)를 도입, 확대시켜 가고 있어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다.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관리

최근 들어 보험사기 범죄가 급속히 늘어감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이러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다발자나 소득에 비해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철저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험금의 부당 누수 방지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검찰, 경찰, 보험회사간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험범죄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라. 자산운용전략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자금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는 자금시장에서 리스크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에 치중해 왔다. IMF 금융위기 전까지 자산운용 실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가증권에서 적정수준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은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 투자방법이나 투자대상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보험영업적자의 지속,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투자비용이나 업무가 투자규모에 비해 단순, 저렴하던 과거의 자산운용 형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수익성 못지 않게 안정성이 강조되어 국공채의 비중을 늘리고 소액가계대출에 중점을 두는 등 위험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산운용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는 절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조달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손익관리에 기초한 적정 상품포트폴리오와 자산포트폴리오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주요국의 보험산업 성장추이

본 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보험산업의 성장추이를 주요 지표 중심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국내 보험산업성장 추이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1. 미국

가.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최근 10년간 미국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GDP성장률(5.5%)을 웃돌고 있다. 미국생명보험은 크게 일반생명보험, 연금 및 건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종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금보험의 증가율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증가율은 각각 5.9% 및 5.3%로 전체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에 47.1%에서 1998년에는 54.7%로 7.6%p나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생명보험은 5.8%p 감소하였고 건강보험의 비중도 3.8%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연금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숫적으로도 8천만명에 달하고 있을 만큼 대규모이면서 이전 세대보다 평균수명은 더욱 연장되고 있으나 조기퇴직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 퇴직 후 생활보장을 기업연금과 사회보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민영 생보사의 연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1)]

<표 Ⅲ-1> 미국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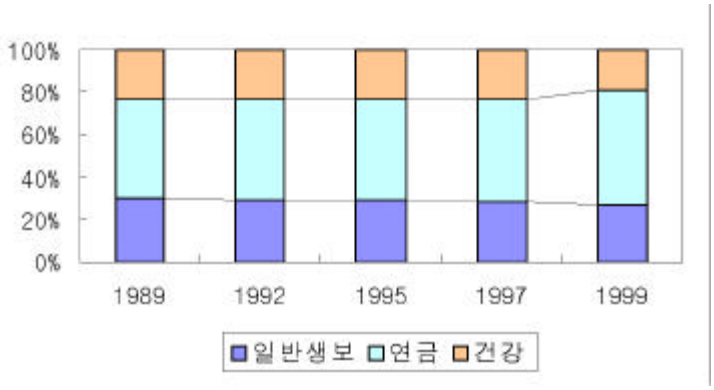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일반생명	73,290 (30.0)	83,868 (29.7)	98,925 (29.2)	115,039 (28.4)	129,952 (26.3)	5.9
연 금	114,997 (47.1)	132,644 (49.0)	159,935 (47.1)	197,529 (48.7)	270,185 (54.7)	8.9
건 강	56,079 (22.9)	65,545 (23.2)	80,352 (23.7)	92,737 (22.9)	99,981 (19.0)	5.3
전 체	244,366 (100.0)	282,057 (100.0)	339,212 (100.0)	405,305 (100.0)	494,118 (100.0)	7.3
단체보험 비 중	49.3	47.7	46.2	49.2	49.6	-

주 : 1. 일반생명보험 = 보통생명보험+단체보험+간이보험+신용보험
2.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1999.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Life-Health*, 2000.

<그림 Ⅲ-1> 미국 생명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한편,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단체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단체보험의 비중은 1989년에는 49.3%,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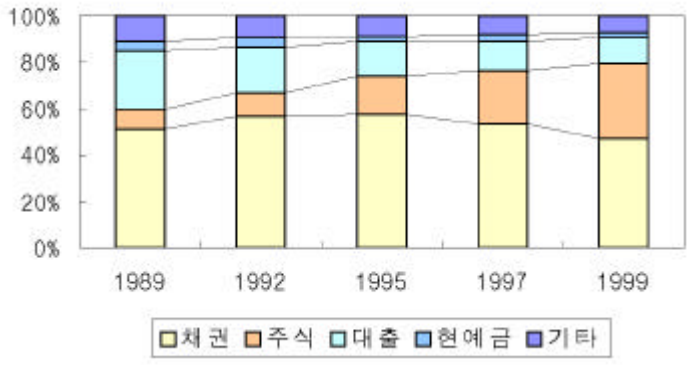
1) 류건식, 이경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8. pp. 36 37.

년에는 50.1%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44.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호황이 지속되어 1999년에는 다시 49.6%로 증가하였다. 미국 단체보험은 주로 건강보험과 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9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단체보험의 비중은 69.9%, 연금에서는 57.2%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일반생명보험에서는 19.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종업원 복지를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정착과 단체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총자산

최근 10년간 미국 생보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평균 9.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총자산 중 주식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24.5%) 채권의 증가율(8.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생보사들의 주식투자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Ⅲ-2> 미국 생명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표 Ⅲ-2> 미국 생명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현예금 등		55,553 (4.2)	59,312 (3.6)	62,158 (2.9)	83,519 (3.2)	91,663 (2.9)	5.1
유가증권	채 권	676,722 (51.6)	942,579 (56.8)	1,242,536 (57.8)	1,375,524 (53.4)	1,466,019 (47.1)	8.0
	주 식	66,050 (8.6)	172,192 (10.4)	345,950 (16.1)	601,203 (23.3)	1,013,670 (32.6)	24.5
	계	789,816 (60.2)	1,114,771 (67.2)	1,588,486 (73.9)	1,976,727 (76.7)	2,479,689 (79.7)	12.1
대출	저 당	264,741 (20.2)	252,132 (15.2)	216,942 (10.1)	209,869 (8.1)	230,475 (7.4)	-1.4
	약 관	59,185 (4.5)	69,633 (4.2)	97,891 (4.6)	104,299 (4.0)	98,881 (3.2)	5.3
	계	323,926 (24.7)	321,765 (19.4)	314,833 (14.7)	314,168 (12.1)	329,356 (10.6)	0.2
부 동 산		40,991 (3.1)	51,653 (3.1)	53,123 (2.5)	46,885 (1.8)	39,127 (1.3)	-0.5
기 타 투자자산		47,337 (3.6)	51,470 (3.6)	63,367 (2.9)	86,164 (3.3)	93,102 (3.0)	7.0
운용자산		1,257,623 (95.8)	1,598,971 (96.4)	2,081,967 (96.9)	2,507,463 (97.3)	3,032,937 (97.5)	9.2
기타자산		55,044 (4.2)	59,161 (3.6)	66,461 (3.1)	68,722 (2.7)	78,790 (2.5)	3.2
합 계		1,312,667 (100.0)	1,658,132 (100.0)	2,148,428 (100.0)	2,576,185 (100.0)	3,111,727 (100.0)	9.0

주 : 1.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반계정과 분리계정의 합계임.

자료 :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Life-Health*, 2000.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투자대상중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권의 비중이 전체의 47.1%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주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의 비중은 1989년에는 8.6%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32.6%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저당대출과 부동산의 경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대출 및 부동산의 투자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일반계정의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998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는 채권의 비중이 71.7%인 반면 주식의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채권의 비중이 16.0%인데 비하여 주식의 비중은 73.1%에 이르고 있다.[2] 이는 분리계정의 경우 실적배당형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여 주식의 투자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일반계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상품의 판매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고정금리형상품의 비중이 높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3]

3) 경영효율지표

미국 생보사들의 보험금지급률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연금지급금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약률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제호황에 따라 1990년대 후반 들어 해약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 동안(1989 1998) 2.6%p나 감소하였다.

자산운용수익률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채권금리의 안정세[4]로 매년

---

2) 자세한 내용은 목진영,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3, pp10 13 참조.

3) 연금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준비금 비중이 일반계정의 경우에는 90% 이상인 반면,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정금리형 연금자산을 운용할 경우 동자산의 장기적 성격에 비추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

4) 만기 5년 재무성증권(Treasury Note)의 수익률 추이는 1988년 9.16%, 1990년 7.69%, 1993년 5.20%, 1995년 5.38%, 1998년 4.55%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추세를 시현하였으나 1998년에는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자산운용률은 1989년에는 95.8%이었으나 1998년에는 97.5%로 다소 높아졌다. 비운용자산의 대부분은 미수이자(Due and Accrued Investment Income)와 미수보험료(Due and Deferred Premium)가 차지하고 있다.

총자산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97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감소(0.58, 9.70)하였으며 1999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Ⅲ-3> 미국 생명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보험금지급률	75.5	80.5	85.3	84.6	87.0
해 약 률	8.4	8.0	6.9	6.1	5.8*
자산운용수익률	9.0	8.9	7.5	7.3	9.0*
자 산 운 용 률	95.8	96.4	96.9	97.3	97.5
ROA	0.81**	0.74	0.73	0.81	0.65
ROE	14.95**	13.23	12.54	13.42	11.41

주 : 1. * 1998년 기준임. ** 1990년 기준임.
2. 자산운용수익률은 투자비용을 감안한 순수익률 기준임.
3. 해약률은 보통생명보험(Ordinary Insurance) 기준임.
4. ROA(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E(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자료 :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각 연호.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Life-Health*, 2000.

나. 손해보험

1) 수입보험료

최근 10년간 미국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Net Premium Written 기준)[5]는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GDP성장률(5.7%)과 생명보험 성장률(7.3%)을 하회하고 있다. 각 보험종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재보험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체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반면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해상보험은 전체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종보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특종보험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勤災保險(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 마이너스 성장률(-2.4%)을 기록하였고 또한 특종보험 중 가장 높은 비중(45%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증가율이 1.5%의 저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종보험 중 상해건강보험의 증가율은 9.2%를 기록하여 손해보험종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보험종목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호황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중이 증가, 1999년에는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특종보험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보다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勤災保險의 요율인하 및 자기부담금 확대에 따른 勤災保險의 수입보험료 감소추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종목에서 성장률이 평균을 밑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종보험의 비중은 1989년에는 45.2%에 달했으나 1999년에는 40.1%로 10년 동안 5.1%p 감소하였다.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의 비중은 최근 10년간 3%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

5) 미국 손해보험 관련통계는 A.M.Best사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동사는 손해보험 종목을 24개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4개 종목을 국내기준에 맞추어 6개종목으로 단순화하였다.

<표 Ⅲ-4> 미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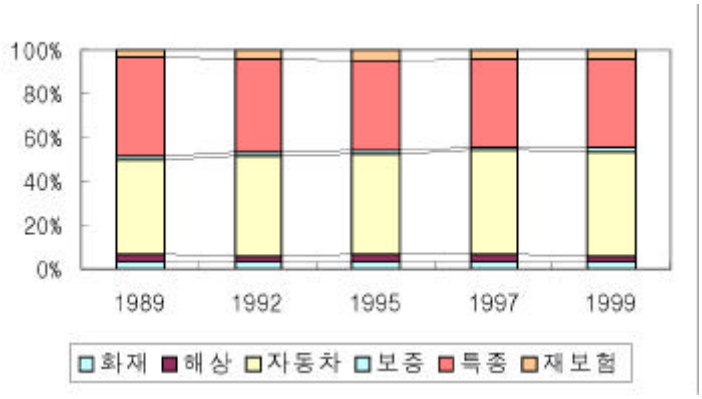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화재보험	7,045 (3.4)	7,107 (3.2)	9,402 (3.6)	9,123 (3.3)	8,849 (3.1)	2.3
해상보험	6,131 (2.9)	5,996 (2.6)	8,021 (3.1)	8,489 (3.1)	8,595 (3.0)	3.4
자동차보험	90,863 (43.6)	104,445 (45.9)	119,137 (45.9)	131,600 (47.6)	136,707 (47.6)	4.2
보증보험	3,203 (1.5)	3,813 (1.7)	4,204 (1.6)	4,726 (1.7)	5,291 (1.8)	5.1
특종보험	94,271 (45.2)	97,510 (42.9)	106,390 (41.0)	110,727 (40.1)	115,030 (40.1)	2.0
재 보 험	6,873 (3.3)	8,631 (3.8)	12,526 (4.8)	11,747 (4.2)	12,485 (4.4)	6.2
계	208,386 (100.0)	217,825 (100.0)	259,680 (100.0)	276,412 (100.0)	286,957 (100.0)	3.3

주 : 1. Net Premium Written 기준임.
2. 화재보험=화재+Allied+지진, 해상보험=해상+운송+항공, 보증보험= 신용(fidelity)+이행(surety)+금융(guaranty), 특종=종합(가계종합+농장종합+상업용종합)+상해건강+근재+의료과실+기타책임+유리+도난+보일러 및 기계+기타.
3.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Property-Casualty*, 2000.

<그림 Ⅲ-3> 미국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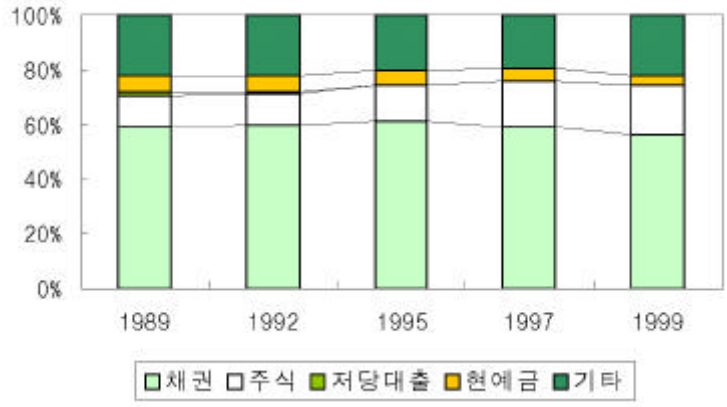


2) 총자산

최근 10년간 미국 손보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총자산 중 주식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살펴보면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대상 중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권의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60% 전후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주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채권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식의 비중은 1989년에는 11.7%이었으나 1999년에는 18.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Ⅲ-4> 미국 손해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표 Ⅲ-5> 미국 손해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현예금 등		33,547 (6.4)	37,850 (6.0)	41,811 (5.5)	39,741 (4.5)	32,674 (3.5)	-0.3
유가증권	채 권	310,480 (58.9)	379,869 (59.8)	463,260 (61.2)	525,386 (59.1)	527,186 (56.4)	5.4
	주 식	61,811 (11.7)	71,471 (11.2)	98,435 (13.0)	148,254 (16.7)	168,726 (18.0)	10.6
	소 계	372,291 (70.6)	451,340 (71.0)	561,695 (74.2)	673,640 (75.8)	695,912 (74.4)	6.5
대 출		6,027 (1.1)	5,369 (0.8)	2.559 (0.3)	2,108 (0.2)	1,874 (0.2)	-11.0
부동산		5,860 (1.1)	8,037 (1.3)	8,846 (1.2)	9,433 (1.1)	9,708 (1.0)	5.2
기 타 투자자산		27,743 (5.3)	35,349 (5.6)	40,610 (5.4)	58,692 (6.6)	75,212 (8.0)	10.5
운용자산		445,468 (84.5)	537,945 (84.7)	655,521 (86.7)	783,614 (88.2)	815,380 (87.2)	6.2
기 타		81,551 (15.5)	97,474 (15.3)	100,936 (13.3)	105,141 (11.8)	119,911 (12.8)	3.9
합 계		527,019 (100.0)	635,419 (100.0)	756,457 (100.0)	888,755 (100.0)	935,291 (100.0)	5.9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Property-Casualty*, 2000.

3) 경영효율지표

미국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1992년 이후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비율(combined ratio)도 1992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 투자자산이익률(ROI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992년 이후에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에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6> 미국 손해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손 해 율	82.0	88.1	78.9	72.8	78.5
사 업 비 율	26.0	26.6	26.3	27.1	28.0
합 산 비 율	108.0	114.7	105.2	99.9	106.5
ROIA	6.8*	8.9	10.2	11.5	6.9
ROE	8.5*	4.7	19.3	23.1	7.0
자산운용률	n.a.	84.7	86.7	88.2	87.2

주 : 1. 손해율=(발생손해액+손해사정비용)/경과보험료.
2. ROIA(투자자산이익률)= Return on Invested Asset, ROE(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3. * 1990년 기준임.

자료 :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Property-Casualty*, 2000.

2. 일본

가.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최근 10년간 일본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GDP성장률(2.1%)을 밑돌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보험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금융시스템의 불안, 금융산업의 안정성 저하, 생보사들의 파산 증가 등으로 생보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일본의 생명보험은 크게 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단체보험, 단체연

금보험 및 기타보험(재형보험, 재형연금, 의료보장, 취업불능보장, 수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보험종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개인보험(개인연금포함)의 증가율이 -0.4%인데 비해 단체보험(단체연금포함)은 0.4%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보험은 취업불능보장보험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2.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Ⅲ-7> 일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 억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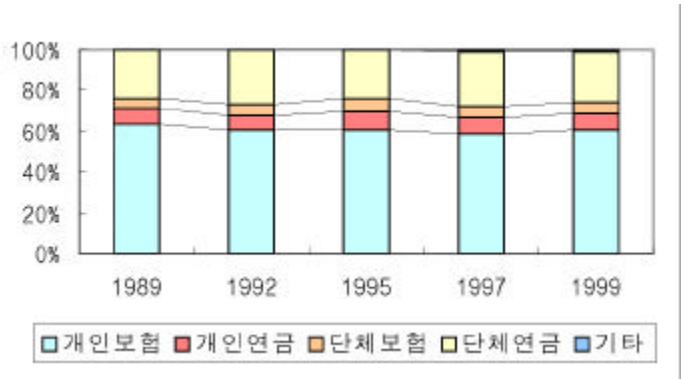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개인보험	175,864 (62.7)	177,961 (60.3)	183,877 (59.8)	177,397 (58.4)	164,724 (60.6)	-0.7
개인연금	21,359 (7.6)	19,898 (6.7)	29,376 (9.5)	24,476 (8.1)	20,866 (7.7)	-0.2
단체보험	12,456 (4.4)	15,546 (5.3)	17,952 (5.8)	14,450 (4.8)	13,622 (5.0)	1.9
단체연금	66,869 (23.8)	77,668 (26.3)	72,097 (23.4)	82,597 (27.2)	68,718 (25.3)	0.3
재형보험	2,801 (1.0)	3,025 (1.0)	3,337 (1.1)	3,330 (1.1)	2,952 (1.1)	0.5
재형연금	626 (0.2)	639 (0.2)	647 (0.2)	579 (0.2)	472 (0.2)	-2.8
의료보장	136 (0.0)	224 (0.1)	264 (0.1)	279 (0.1)	301 (0.1)	8.3
취업불능	0 (0.0)	1 (0.0)	10 (0.0)	48 (0.0)	63 (0.0)	80.7
수재보험	292 (0.1)	340 (0.1)	421 (0.1)	452 (0.1)	1,248 (0.5)	25.6
계	280,403	273,207	307,621	303,608	271,968	-0.3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 Book』, 각 연호.

보험종목별 비중을 199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보험이 전체의 6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단체연금보험이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생명보험 대국이면서 최고의 장수국이지만 연금보험의 비중은 33.1%에 불과하여 미국의 51.7%에 비하

면 상당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연금보험의 비중은 30 35%로 미국의 45 50% 수준보다는 1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국 등의 歐美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노후생활의 준비수단으로서 생명보험(연금보험 포함)보다는 공적연금 및 은행(신탁)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5>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2) 총자산

최근 10년간 일본 생보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평균 5.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총자산 중 국공채의 증가율이 21.0%로 가장 높았고 주식의 증가율은 1.1%로 가장 낮았다.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유가증권의 비중은 1989년에는 47.1%이었으나 1999년에는 55.4%로 8.3%p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공채의 비중이 15%p 정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 국공채의 투자비중이 증대한 반면 주식 및 대출금의 투자비중은 각각 6.8%p 및 6.6%p 감소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금리가 매우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외투자에 대

한 관심이 높아 외국증권의 비중도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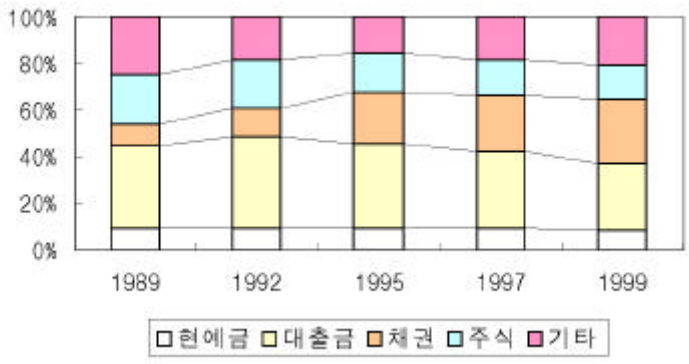
<표 Ⅲ-8> 일본 생명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현예금 등		110,672 (9.5)	148,655 (9.5)	178,951 (9.5)	175,564 (9.2)	154,963 (8.2)	3.4
유가증권	국공채	54,477 (4.7)	121,334 (7.8)	313,556 (16.8)	312,135 (16.4)	366,221 (19.4)	21.0
	회사채	45,738 (3.9)	71,991 (4.6)	105,976 (5.7)	133,725 (7.0)	153,257 (8.1)	12.9
	주 식	253,600 (21.8)	315,068 (20.2)	320,215 (17.1)	299,132 (15.7)	282,581 (15.0)	1.1
	외국증권	193,966 (16.7)	181,041 (11.6)	156,662 (8.4)	206,374 (10.9)	242,216 (12.9)	2.2
대 출 금		410,671 (35.4)	611,479 (39.2)	673,349 (35.9)	635,168 (33.4)	541,919 (28.8)	2.8
부 동 산		65,520 (5.6)	83,990 (5.4)	97,651 (5.2)	98,595 (5.2)	89,840 (4.8)	3.2
기 타		26,951 (2.3)	26,552 (1.7)	28,563 (1.5)	40,417 (2.1)	53,172 (2.8)	7.0
합 계		1,161,595	1,560,110	1,874,293	1,901,110	1,884,173	5.0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 Book』, 각 연호.
日本保險研究所, 『Insurance 生命保險統計號』, 2000.

<그림 Ⅲ-6> 일본 생명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3) 경영효율지표

최근 10년 동안 보험금지급률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해약률도 3%p나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후반이후 금융산업 불안정성 심화, 생보사들의 파산 등에 따른 생보산업의 신뢰도 저하에 기인한다. 다만 사업비율은 경영개선 노력을 위한 사업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수익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초저금리 상태 지속 등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1989년에는 3조 5,000억엔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3,500억엔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는 상당히 회복되어 1조 1,400억엔을 시현하였다.

<표 Ⅲ-9> 일본 생명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단위 : %, 억엔)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보험금지급률	37.9	58.0	75.5	108.9	105.7
실 효 해 약 률	7.6	7.0	8.6	10.8	10.5
사 업 비 율	13.7	15.2	13.8	13.2	13.4
자산운용수익률	6.8	6.4	3.7	3.3	3.1
자 산 운 용 률	97.7	98.3	98.5	98.4	97.2
당 기 순 이 익	34,960	19,359	12,356	10,878	11,387

주 : 실효해약률은 개인보험 기준임.
자료 : 日本保險研究所, 『Insurance 生命保險統計號』, 각 연호.

나. 손해보험

1)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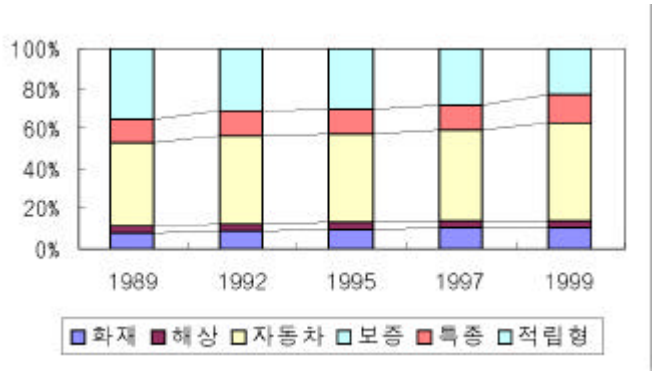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積立保險料를 포함한 元受正味保險料 기준)[6]는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GDP 성장률(2.7%)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명보험 성장률(-0.3%)에는 다소 상회하고 있다. 특히 1996 1999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지속 이외에도 가격자유화의 실시에 따른 요율인하 경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보험종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증보험의 증가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체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반면 해상 및 적립형보험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 특히 적립형보험의 증가율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3.7%를 기록하여 손보산업 전체의 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 보험종목별로 보면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지진보험, 적립개호, 배상책임, 도난, 풍수해보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종목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1989년에는 비중이 41.3%이었으나 1999년에는 전체의 48.9%를 차지하여 시장점유율이 7.6%p 증가하였다.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최근 10년 동안 각각 2.7%p, 2.2%p 증가하였고, 적립형보험과 해상보험은 14.8%p, 0.5%p 하락하였다.

<그림 Ⅲ-7>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6) 일본 손해보험 관련통계는 보험연구소에서 매년 발표(Insurance 損害保險統計號)하고 있는데 동사는 손해보험 종목을 29개로 구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9개 종목을 국내기준에 맞추어 6개 종목으로 단순화하였다.

<표 Ⅲ-10> 일본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화재보험	7,354 (8.2)	8,353 (9.0)	9,951 (9.7)	10,907 (10.6)	10,222 (10.9)	3.3
해상보험	2,969 (3.3)	3,284 (3.5)	3,236 (3.2)	3,293 (3.2)	2,652 (2.8)	-1.1
자동차보험	36,905 (41.3)	40,838 (43.8)	45,701 (44.8)	46,595 (45.2)	45,804 (48.9)	2.2
보증보험	115 (0.1)	213 (0.2)	168 (0.2)	216 (0.2)	289 (0.3)	9.7
특종보험	10,195 (11.4)	11,705 (12.6)	12,588 (12.3)	13,288 (12.9)	12,695 (13.6)	2.2
적립형보험	31,912 (38.2)	28,833 (30.9)	30,446 (29.8)	28,811 (27.9)	21,924 (23.4)	-3.7
계	89,450	93,226	102,090	103,110	93,586	0.5

주 : 1.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화재보험=보통화재+지진, 해상보험=선박+적하+운송+항공, 자동차보험=자동차+자배책, 보증=신용+보증, 특종보험=상해+배상책임+선주상해배상책임+도난+유리+풍수해+동물+기계+원자력+건설공사+동산종합+勞災補償+비용・이익+介護費用, 적립형보험=적립화재+적립상해+적립동산종합+積立勞災+적립개호(수입적립보험료포함).

자료 : 日本保險硏究所, 『Insurance 損害保險統計號』, 각 연호.

2) 총자산

최근 10년간 일본 손보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생보의 자산증가율(5.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총자산 중 회사채의 증가율이 8.7%로 가장 높았고 현예금 및 대출금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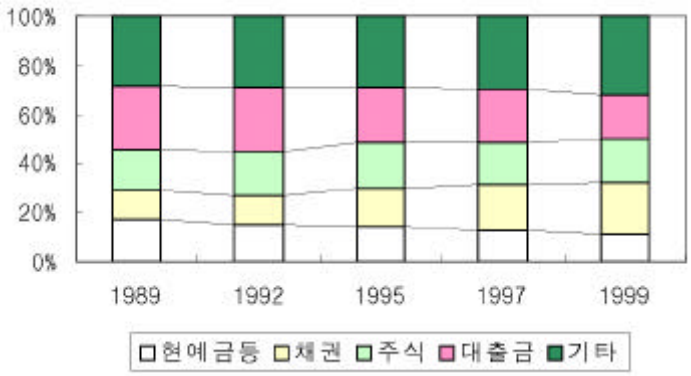
<표 Ⅲ-11> 일본 손해보험 총자산 성장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증가율
현예금		40,432 (17.0)	40,362 (14.7)	40,736 (13.8)	38,952 (12.5)	34,502 (11.0)	-1.6
유가증권	국공채	10,883 (4.6)	10,905 (4.0)	15,111 (5.1)	18,666 (6.0)	23,696 (7.7)	8.1
	회사채	18,652 (7.8)	23,173 (8.4)	32,678 (11.1)	39,293 (12.6)	43,122 (13.7)	8.7
	주 식	38,189 (16.1)	47,657 (17.4)	53,734 (18.2)	54,281 (17.4)	56,305 (17.9)	4.0
	외국증권	36,221 (15.2)	41,413 (15.1)	46,588 (15.8)	49,277 (15.8)	45,529 (14.5)	2.3
대출금		61,827 (26.0)	72,196 (26.3)	65,522 (22.2)	66,635 (21.4)	54,888 (17.5)	-1.2
부동산		11,083 (4.7)	15,687 (5.7)	18,177 (6.2)	18,257 (5.9)	17,913 (5.7)	4.9
기 타		20,378 (8.6)	23,052 (8.4)	21,982 (7.5)	25,812 (8.3)	27,727 (12.0)	6.4
합 계		237,665	274,445	294,528	311,173	313,684	2.8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日本保險研究所, 『Insurance 損害保險統計號』, 각 연호.

<그림 Ⅲ-8> 일본 손해보험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살펴보면 손보사도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유가증권의 비중은 1989년에는 43.7%이었으나 1999년에는 53.8%로 10.1%p 증가하였으며, 특히 회사채의 비중이 5.9%p 증가하였다. 국공채의 비중은 3%p, 주식의 비중은 1.8%p 증가하였는데 생보사와의 차이점은 손보사의 경우 자산운용 듀레이션이 생보사에 비해 훨씬 단기이기 때문에 국공채보다는 회사채의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의 비중은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최근 10년 동안 8.5%p나 감소하여 경기침체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본 손보사의 경우에도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저금리 상황 때문에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외국증권의 비중도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3) 경영효율지표

일본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태풍 발생여부에 따라 매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상최대의 태풍피해가 발생했던 1991년에는 손해율이 57.3%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1999년에는 54.4%로 다시 높아졌다. 사업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격자유화 실시에 따른 경쟁심화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자산운용수익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초저금리 상태 지속 등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12> 일본 손해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추이

(단위 : %, 억엔)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손 해 율	45.1	53.8	48.2	49.0	54.4
사 업 비 율	.5	42.3	41.4	43.8	43.5
합 산 비 율	85.6	96.1	89.6	92.8	97.9
자산운용수익률	5.8	5.4	3.3	2.9	2.6
자산운용률	91.4	91.6	92.5	91.7	88.0
당기순이익	1,695	1,372	1,054	1,113	994

주 : 손해율=正味支給保險金/正味收入保險料
사업비율=(보험인수사업비+손해조사비)/正味收入保險料
자료 : 日本保險研究所, 『Insurance 損害保險統計號』, 각 연호.

3. 국내 보험산업 성장추이와의 비교분석

가.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 비교

보험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보험수요는 공

급능력, 가격, 경제여건, 시장구조, 국민소득, 국민성, 사회보장의 보급정도, 자동차대수, 가족제도, 종교 등에 의해서 좌우되나 가장 큰 요인은 구매자인 국민의 1인당 소득에 대체로 비례한다는 것이다[7].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86년 Swiss Re.가 발간하는 *Sigma*(No. 7/1986년)에서 "Income Elasticity of Insurance Demand"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각 종목별로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10년이며, GDP 및 1인당 可處分所得(DI, Disposable Income)은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하였다[8]. 국민소득은 총계적 개념으로의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의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1인당 가처분소득(DI)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GDP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계이므로 기업성보험(단체보험)의 시장수요에 대한 변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처분소득의 경우 개인저축 및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보험의 시장수요에 대한 변수로 파악할 수 있다[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을 계산할 경우 기업성보험(단체보험)과 가계성보험

---

7) 박은회,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30집, p36.

8) 우리 나라와 일본의 달러 기준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경우 환율은 bias를 줄이기 위하여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다.

9) 조강필, 「국내 보험시장개방에 대한 평가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보험개발연구』, 보험개발원, 제10권 제3호, 1999.12, pp48 49. GDP는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활동별 GDP를 살펴 보면 산업(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GDP가 전체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소득의 proxy로 간주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서는 1인당 GDP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저축과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개인소득의 proxy로 사용하였다.

(개인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한 보험종목에 대해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10].

일반적으로 수요이론에서는 소득탄력성이 플러스(+)이어서 소득과 X財의 수요가 正의 관계를 가질 때 X재를 優等財(superior goods) 또는 正常財(normal goods)라 하고,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이어서 소득과 수요가 逆關係를 가질 때는 그 재화를 劣等財(inferior goods)라고 한다. 한 소비재가 정상재이냐 또는 열등재이냐 하는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약간 증가할 때 한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이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열등재가 될 수도 있다. 정상재의 경우 탄력성이 1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탄력성이 零(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수요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보다는 작은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탄력성이 마이너스

---

10)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생명보험 상품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된 통계가 입수가능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한국은 가계성보험과 기업성보험으로 6개 종목(화재, 해상, 보증, 특종, 자동차, 장기) 모두 구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만이 구분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전 종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분이 불가능한 보험종목의 소득탄력성은 GDP 증가율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구하고, 구분이 가능한 종목중 개인(가계성)보험의 탄력성은 1인당 GDP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단체(기업성)보험은 GDP 증가율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일본의 자동차보험과 적립형보험의 경우에는 가계성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종목의 소득탄력성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로 계산하였다.

* 개인(가계성)보험 탄력성(ε_1) = 수입보험료 증가율/ 1인당 가처분소득증가율
단체(기업성)보험 탄력성(ε_2) = 수입보험료 증가율/ GDP증가율
보험종목 전체탄력성(ε) = ε_1×개인(가계성)보험 비중 + ε_2×단체(기업성)보험 비중

1(-1)보다는 크지만 零(0)보다는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기는 하지만 수요의 증가율(감소율)이 소득의 감소율(증가율)보다는 작은 경우이다. 이와 같이 탄력성이 零(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및 -1보다 크고 零(0)보다 작은 경우를 수요가 非彈力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산업에 이를 적용시켜 보면 보험의 소득탄력성이 절대값 기준으로 1이하인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으로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험수요가 포화 내지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 이상인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생·손보상품별로 소득탄력성을 구하여 우리 나라 보험수요를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명보험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 소득탄력성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수요가 미국, 일본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속도가 매우 급속하였음을 나타낸다. 1997년의 경우에는 IMF 체제 돌입 후 국민소득 규모가 감소하였는데도 수입보험료는 증가함으로써 소득탄력성이 -3.3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고금리 상황에서 국내 생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리연동형 일시납상품을 대량판매했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국민소득이 상당폭 회복되었지만 보험수요는 큰 변동이 없어 아직 본격적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상품 중 연금보험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호황이 지속됨으로서 연금의 소득탄력성이 다

른 상품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상품보다는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구매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생명보험의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생명보험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보사들의 파산에 따른 생보산업의 신뢰성 저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 Ⅲ-13> 국가별 생명보험 상품별 소득탄력성 추이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한 국	생존	3.27	4.03	0.62	2.39	-0.16
	사망	1.27	20.26	2.82	-4.22	1.04
	생사혼합	-0.38	2.34	2.90	-20.91	-0.81
	개인계	1.11	3.90	1.15	-2.20	-0.17
	단체	1.99	-0.05	2.43	-5.78	0.51
	계	1.28	3.16	1.43	-3.35	0.04
미 국	일반생명	-0.07	1.10	0.68	1.11	1.97
	연금	1.70	1.59	0.86	2.07	3.67
	건강	1.02	1.42	1.26	0.15	-0.07
	계	0.98	1.35	0.85	1.29	2.41
일 본	개인보험	-1.47	0.79	0.57	-0.07	-0.59
	개인연금	10.70	1.89	5.14	-0.12	-0.60
	단체보험	-6.03	0.66	0.62	1.88	-0.08
	단체연금	-33.51	0.26	-1.98	-1.85	0.15
	계	-8.10	0.50	0.26	-0.41	-0.43

한편 우리 나라가 미국, 일본에 비하여 생명보험의 소득탄력성이 큰 것은 생명보험 가입률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 나라

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률이 1991년에는 37.8%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69.2%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81.9%에 이르러 미국 및 일본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는 1997년 이전까지는 우리 나라의 생보산업이 약 20%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시현함으로서 GDP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으로서 생명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9년에는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률이 급증한 것은 건강/질병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4> 국가별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국 가	1988	1991	1992	1994	1995	1997	1998	2000
한 국	32.8	37.8	-	50.9	-	69.2	-	81.9
미 국	81.0	70.0	78.0	-	78.0	85.0	85.0	-
일 본	78.6	80.5	-	82.5	-	80.8	-	-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각 연호.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각 연호.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 Book』, 각 연호.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 보다는 GDP 증가율을 전후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상품별로 증가속도가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득증가에 따른 연금보험시장의 탄력적인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 침투도는 미국, 영국 등 보험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관심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보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15> 국가별 연금보험 침투도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한 국	1.4	1.1	2.2	2.5	1.8
미 국	2.1	2.1	2.2	2.4	2.9
영 국	3.3	4.1	3.6	4.5	5.3
일 본	2.2	2.1	2.1	2.1	1.8

주 : 1. 연금보험 침투도=연금보험 수입보험료/경상GDP×100
2. 한국의 경우 연금보험은 개인연금 및 종퇴보험의 합계

2) 손해보험

우리 나라의 손해보험 소득탄력성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이전까지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여 상당히 탄력적이었으나 1997년 IMF 체제 직후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장기보험에서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소득탄력성이 -2.33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민소득이 상당폭 회복되었지만 손해보험수요는 큰 변동이 없어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 소득탄력성은 1999년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2년에는 장기보험 수입보험료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4.07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손해보험수요가 미국,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보험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우리 나라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속도가 매우 급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1997년의 경우에는 IMF 체제 진입 후 국민소득 규모가 감소하였는데도 수입보험료는 증가함으로써 소득탄력성이 -2.3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고금리 상황에서 국내 손보사들이 금리연동형 장기보험을 대량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손해보험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손해보험의 소득탄력성이 1미만으로서 국민소득의 증

가율보다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1995년을 기점으로 탄력성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손보시장이 전반적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기준으로 손해보험 종목 중에서는 보증보험과 재보험의 성장성이 높았고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탄력성을 보여 소득이 증가함에도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9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손해보험의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손해보험 수요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탄력성이 -0.17로 나타났는데 보험종목 중에서는 보증보험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보증수요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화재, 특종 및 자동차보험의 탄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 동 종목들의 보험수요는 거의 포화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적립형보험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0.82로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어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최근의 수요감소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 Ⅲ-16> 국가별 손해보험 종목별 소득탄력성 추이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한 국	일반보험	0.87	1.81	0.65	-4.08	0.09
	- 화재	1.06	2.54	0.49	1.20	-0.12
	- 해상	-0.05	0.96	3.68	0.47	0.80
	- 보증	1.83	1.71	0.36	-11.88	-0.22
	- 특종	1.29	2.20	1.43	-2.20	0.07
	자동차	2.45	3.42	1.29	-0.31	0.20
	장기보험	2.19	7.64	3.16	-4.07	-0.04
	계	1.92	4.07	1.73	-2.33	0.05
미 국	일반보험	0.31	-0.16	0.33	0.21	0.34
	- 화재	0.19	-0.25	1.66	-1.22	-0.37
	- 해상	-0.20	0.23	1.12	-0.07	0.32
	- 보증	0.69	1.72	0.51	0.89	1.36
	- 특종	0.34	-0.24	0.16	0.33	0.36
	자동차	0.85	1.03	1.23	1.15	0.23
	재보험	-1.11	0.87	2.43	-0.15	2.42
	계	0.50	0.43	0.84	0.64	0.38
일 본	일반보험	-15.66	0.33	0.35	-0.12	-0.08
	- 화재	-6.62	0.73	0.38	-0.35	0.02
	- 해상	-5.90	0.10	0.09	0.35	-0.55
	- 보증	-31.70	2.34	-2.12	0.51	1.33
	- 특종	-26.48	0.09	0.44	-0.07	-0.07
	자동차	-5.34	0.96	0.29	0.12	0.08
	적립형	0.69	-0.84	0.28	0.96	-0.82
	계	-5.57	0.24	0.30	0.29	-0.17

향후 우리 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손보산업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시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보험종목별로 성장세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가 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향후 손해보험종목 중 보증보험의 성장세가 다른 보험보다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세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보험침투도 비교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우리 나라의 보험침투도는 매년 증가하여 1998년 기준으로 13.87%로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1위는 남아공화국). 미국 및 일본은 8.66% 및 11.73%로서 세계 8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험침투도가 이처럼 높은 이유는 생명보험의 고성장세에 기인한다. 생명보험이 고성장세를 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생명보험산업의 육성정책과 생보사들의 적극적인 영업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말 IMF 체제에 진입하면서 보험산업의 고성장 신화는 막을 내리고 아울러 보험침투도도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다만 손해보험의 보험침투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보험침투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상승세,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5년을 기점으로 보험침투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도 IMF 체제를 계기로 고성장의 신화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침투도도 과거와 같이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표 Ⅲ-17> 국가별 보험침투도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8	증감폭
한 국	생명보험	8.34	9.80	10.25	10.32	1.98%p
	손해보험	1.85	2.50	2.91	3.55	1.70%p
	계	10.19	12.30	13.16	13.87	3.68%p
미 국	생명보험	3.65	3.61	3.83	4.11	0.46%p
	손해보험	5.13	5.09	4.77	4.55	-0.58%p
	계	8.78	8.70	8.60	8.66	-0.12%p
일 본	생명보험	7.30	6.35	10.24	9.35	2.05%p
	손해보험	2.41	2.25	2.54	2.38	-0.03%p
	계	9.71	8.60	12.78	11.73	2.02%p

자료 : Swiss Re., *Sigma*, 각 연호.

다음으로 국가별 1인당 지출보험료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1989 1998년까지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이는 달러화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IMF 체제 이후 국내 원화가치가 예년에 비해 약 40 50% 정도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동 기간동안 증가율이 각각 3.9%, 5.8%를 기록하여 우리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도에 큰 폭의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수입보험료 증가규모는 0.8%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지출보험료 수준도 전년을 약간 밑돌았다(원화기준 -0.2%). 이러한 사실은 본격적으로 보험수요가 회복되기까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의 지출보험료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Ⅲ-18> 국가별 1인당 지출보험료 추이

(단위 : US$, %)

구 분		1989	1992	1995	1998	증가율
한 국	생명보험	412.0	657.8	1,042.1	769.0	7.2
	손해보험	91.6	167.9	295.5	264.6	12.5
	계	503.6	825.7	1,337.6	1,033.6	8.3
미 국	생명보험	754.9	856.8	1,055.6	1,291.7	6.1
	손해보험	1,062.2	1,210.8	1,366.6	1,279.4	2.1
	계	1,817.1	2,067.6	2,372.2	2,571.1	3.9
일 본	생명보험	1,616.9	1,902.6	4,075.8	2,855.6	6.5
	손해보험	533.0	673.5	1,012.5	727.7	3.5
	계	2,149.9	2,576.2	5,088.3	3,583.3	5.8

자료 : Swiss Re., *Sigma*, 각 연호.

다. 자산운용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보험업무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보험사의 자금구성은 자본금,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과 책임준비금 등으로 구성되는 타인자본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본질적 기능인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배당을 통하여 계약자의 보험료를 경감시키며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보험사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에 있어서는 생·손보간에 그 중요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자금이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적은 생명보험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손해보험만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준비금의 비중이 생명보험보다 낮고 보험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장기보험의 판매비중이 높

을 경우에는 너무 유동성에 치우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운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성, 유동성이 높은 운용대상은 그만큼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대상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산운용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계약자 자산인 보험사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해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자산운용규제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투자한도, 분산투자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규제완화 추세에 맞추어 과거보다는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채권금리,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수익률 비교, 투자포트폴리오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우리 나라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은 11 13%(10년간 평균 11.6%)를 유지하고 있는데 10년간 평균적으로 볼 때 채권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이 채권수익률을 하회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채권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채권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대출위주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생보사들의 대출비중은 IMF 체제 이전까지는 45% 이상을 유지해 왔고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했다. 그러나 IMF 체제에 진입하면서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유가증권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확대와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채권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대출의 비중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9> 국가별 생보사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2	1995	1997	1999
한 국	국채금리	14.4	13.2	9.2	15.3	10.1
	회사채금리	15.2	14.0	11.7	24.3	9.9
	주가상승률	0.3	11.1	-14.1	-48.5	82.8
	운용수익률	13.0	11.9	10.8	11.0	11.1
미 국	국채금리	7.87	6.04	5.38	5.72	4.55*
	주가상승률	21.8	12.1	18.5	28.7	15.9*
	운용수익률	9.0	8.9	7.5	7.3	9.0*
일 본	국채금리	5.80	3.96	1.79	1.21	0.94
	주가상승률	26.0	-25.2	-12.9	-12.9	-0.9
	운용수익률	6.8	6.4	3.7	3.3	3.1

주 : * 1998년 기준임.
1. 미국의 국채금리는 만기 5년 재무성증권 기준임.
2. 일본의 국채금리는 정부채 5년 기준임.
3. 미국의 주가지수는 다우지수, 일본은 Nikkei225기준임.
4. 주가상승률은 전년말 대비 상승률임.
5. 운용수익률은 총자산운용수익률임.
6. 금리는 연말 기준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0.5.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1999 2/4분기.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각 연호.
日本保險研究所, 『Insurance 生命保險統計號』, 각 연호.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험계약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채권시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채권투자의 비중을 50% 전후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장기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국내금리가 워낙 낮아 해외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높다. 일본 생보사들의 해외유가증권 수익률은 1996년 이후 국내의 채권수익률보다 1.5배 이상의 고수익률을 시현함으로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 역마진의 위험을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 생보사들은 1997년 이전까지는 현금 및 예치금의 투자비중이 미국 및 일본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물론 우리 나라가 미·일에 비하여 해약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지만 현예금의 비중 과다는 수익성 저하로 직결된다. 다행히 최근 들어 현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비중 확대, 특히 채권투자 비중의 확대는 다행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로 보험사 자산운용의 중대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상태를 보이면서 대부분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다. 물론 향후 주식시장이 회복된다면 재무건전성도 다시 회복되겠지만 지급여력비율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은 자구노력을 취해야만 경영개선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다시 한번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을 통하여 저수익 자산의 비중을 축소(현예금, 부동산 등)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부동산 저당대출 등 우량개인대출의 확대와 장기 저금리 기조를 염두에 둔 국공채, 금융채의 비중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경험부족 등으로 해외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나 자산운용 대상의 다양화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축소하여 적립금 부담을 줄이고 예정이율의 인하 등을 통하여 부담금리를 최소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측면에서도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완화를 더욱 추진하

고 장기적으로는 Negative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채권시장의 육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험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효율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Ⅳ. 보험산업 중장기 시장규모 예측

1. 경제·금융환경 변화[11)]

가. 세계경제 중장기 전망

1) 경제환경 변화

가) 세계경제의 통합 및 지역주의의 강화

과거 물리적 거리에 따른 운송·통신비용, 정부 규제, 문화적 차이 등의 제약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세계경제는 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를 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은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경제주체가 全地球的 차원의 효율성을 추구함에 따른 결과로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시장개방은 상품 및 자본의 급격한 이동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평균 무역의존도는 1975년 18%에서 2000년에는 25%로 높아지고, 2010년경에는 3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는 국가간 교역보다 훨씬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산업 역시 자본 및 금융자유화, 거래비용의 저하, 파생금융상품 및 새로운 금융기법의 출현 등의 영향으로 자본의 국제이동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직접투자가 급성장하고 국가간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와 함께 지역경제통합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에 대응하여 미국은 현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칠레를 비

1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2000.1)을 참고하였다.

롯한 중남미 국가들을 편입시켜, 2005년에는 미주자유무역지대(FATT)를 창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무역투자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는 등 경제협력기구로서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지역경제통합현상은 특정지역 국가들간의 높은 상호의존성, 미국 및 EU 등 선진국들의 지역주의 표방 그리고 개도국의 자유화 움직임에 따른 현상으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건수를 고려할 때, 지역주의의 확산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의 지역주의 강화추세와 함께 화폐경제 역시 지역간 유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통화 질서는 변동환율제와 국가간 화폐통합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이미 단일통화 유로(EURO)를 출범시켰으며, 남미에서도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폐통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역시 1997 1998년의 통화위기를 경험하면서 화폐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폐통합의 움직임은 지역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지식기반경제란 고기술산업, 정보통신관련산업, 소프트웨어, 전문직종과 같은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행되는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산업·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사회는 기존의 산업자본 시대를 대치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자원의 확보나 효율화 경쟁만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자원이라도 지식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는 인구증가 및 자본투입의 정체로 내생적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기술진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표 Ⅳ-1>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17세기 19세기초 (봉건주의)	19세기 20세기후반 (자본주의)	20세기 후반 (지식기반경제)
핵심생산기술 (기반기술)	- 토지 (농업기술)	- 산업자본 (산업기술)	- 인적자본 (정보통신기술)
부의 일차원천과 중심산업	- 토지기반경제 - 농·수산업	- 기계·금융기반 경제 - 제조업	- 금융·지식기반 경제 - 서비스업
경쟁내용	- 비용경쟁	- 품질경쟁	- 시간 경쟁
경제활동 공간	- 지방경제 중심	- 국가경제 중심	- 세계경제로 확대
경제운영 체제	- 국가주도 체제 - 봉건 체제	- 국가와 기업중심 - 수직적 경영체제 (대립적 경제관계)	- 기업주도 - 제휴 경영체제 (협조적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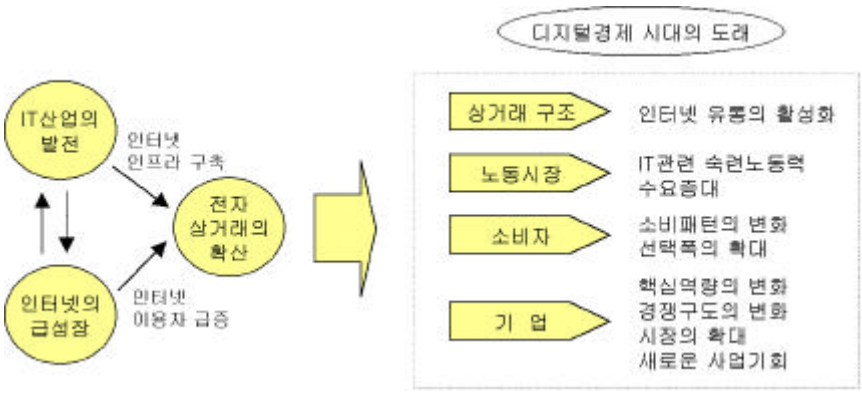
다) 디지털 경제의 대두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이라 하겠다.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보·기술·금융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사이버 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산업 및 개인간 거래비용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발하고, 이는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의 인하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개인에 대하여는 방대한 자료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에 대한 정보발신기능을 높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림 Ⅳ-1>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디지털경제



2)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가) WEFA 전망

WEFA는 자유무역지역의 증가 및 교역규모의 확대,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 국제자본이동의 증가, 다국적기업의 확산 등을 통하여 세계화가 진전되며, 각국 경제체제가 세계표준으로 수렴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WEFA는 향후 20년간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아시아, 남미 등은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이 유입되면서 생산성증가와 경제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고성장 지속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이며, 중남미의 경우도 4%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EFA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일본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해소될 것이며, 아시아의 경우 역내무역의 급속한 증가와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이라 예견했다.

한국은 대만과 함께 고위기술과 중화학 제품의 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며 생산성 향상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Ⅳ-2>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구 분		1999 03	2004 08	2009 13	2014 18
경제성장률	세 계	2.7	3.2	3.2	3.1
	선진국	2.1	2.4	2.4	2.3
	미 국	2.1	2.3	2.2	2.1
	일 본	1.0	2.0	2.3	2.1
	서유럽	2.5	2.4	2.4	2.4
	태평양연안국	4.2	5.9	5.5	5.1
	중 국	7.4	7.8	7.4	6.9
	중남미	3.3	4.5	4.6	4.2
	중 동	3.2	3.2	3.7	3.5
세계교역량 (수출물량기준)		5.3	5.7	5.4	5.2
유가($/Barrel, 평균)		15.4	19.7	22.3	25.2

주 : 태평양연안국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을 포함.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year Extension*, March 1999.

나) 일본경제센터 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세계경제가 2000 2020년간에 인구증가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에 의하여 연평균 3%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세계수출은 연평균 5.6% 신장을 보여, 세계 GDP 대비 비율이 2000년의 18.1%에서 2020년에는 2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경제는 2000 2020년간에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겠지만 세계 GDP 비중은 감소할 것이며, 아시아 경제(일본 제외)는 중국 경제의 큰 폭의 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에는 연평균 6.8%, 2010년대에는 연평균 6.2%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경제의 투명성과 가능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Ⅳ-3> 지역별 GDP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

구 분	명목 GDP 비중				실질 GDP 성장률		
	1995	2000	2010	2020	1990 2000	2000 2010	2010 2020
세 계	100.0	100.0	100.0	100.0	2.5	3.3	3.2
서 구	30.1	30.4	26.3	22.1	2.1	2.4	2.1
북 미	27.7	26.3	25.3	23.9	2.3	2.2	2.0
일 본	18.0	16.2	13.7	11.3	1.9	2.6	2.1
대양주	1.5	1.5	1.4	1.2	2.2	2.4	2.0
아시아	9.4	12.0	18.1	25.8	7.3	6.8	6.2
중 국	2.5	3.7	6.1	9.2	10.3	7.8	7.0
NIEs	3.3	3.9	4.8	5.7	6.3	5.2	4.3
ASEAN	1.6	2.0	3.1	4.5	7.0	6.8	6.4
남아시아	1.5	1.9	3.4	5.3	4.5	7.5	6.5
중 동	2.3	2.3	3.2	3.0	3.0	5.0	4.0
아프리카	1.8	1.8	1.8	1.9	1.4	2.2	3.7
중남미	5.2	5.6	6.6	7.1	4.0	5.5	4.6
동 구	3.9	3.7	3.7	3.7	-3.2	2.7	2.9

주 : 아시아에는 일본이 제외됨.

다) OECD 전망

OECD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산업기술의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충분히 발현되면, 1995 2020년간 세계경제는 4.8%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고성장 시나리오와 그렇지 못할 경우 3.1% 성장에 머문다는 저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OECD국들이 고성장 시나리오상의 주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생산성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고, GDP도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이지만 개혁이 부진한 가운데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가중될 경우 GDP 성장률은 2.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반면 비OECD국들은 기본 성장잠재력이 OECD국들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25년간 고성장 시나리오상의 건전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연평균 6.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5국들이 전세계 GDP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5에서 2020년에는 1/3이상으로 증가하여, 전체 빅5국가의 2020년 GDP 규모가 OECD국의 전체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보인 중국의 2020년 GDP 규모는 OECD국 전체의 절반수준에 거의 육박할 것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 Ⅳ-4> 실질 GDP 성장률[1] 전망

(단위 : %)

구 분	1996 2000		2001 2010		2011 2020		1995 2020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OECD 국	2.7	2.7	3.0	2.3	2.7	1.6	2.8	2.1
미국	2.2	2.2	2.7	2.1	2.6	1.5	2.6	1.9
유럽	2.4	2.4	2.7	2.0	2.1	1.3	2.4	1.8
일본	3.3	3.3	2.9	2.0	2.3	1.2	2.7	1.9
비 OECD 국	6.5	4.7	6.9	4.1	6.5	3.9	6.7	4.2
빅5국[2]	7.2	5.4	7.3	4.5	6.7	4.3	7.1	4.6
중 국[3]	(9.3)	(7.9)	(8.2)	(5.3)	(7.2)	(4.8)	(8.0)	(5.6)
여타국가	5.9	4.0	6.5	3.7	6.2	3.5	6.3	3.7
전 세 계	4.3	3.5	5.0	3.1	4.9	2.8	4.8	3.1

주 : 1. 1992년 구매력평가기준의 연평균 %.
2. 세계의 경제, 정치 및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5개 국가.
3. 홍콩이 포함됨.

나.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1) 경제환경 변화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의 성공으로 1960년대 이후 8%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이는 선진국의 기술, 자본, 수요기반 등을 배경으로 빠른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소위 후발주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및 소득수준 격차가 줄어들면서 후발주자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와 자본투입의 감소추세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을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출구조 측면에서는 성장둔화에 따른 투자율 저하로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노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디지털 환경 하에서 가격비교 능력을 가진 소비자의 출현과 함께 시장의 힘을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역전시키는 현상을 재촉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성장둔화는 신규고용 창출을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는 지식노동자와 비지식노동자로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는 등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구성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1997년에 4,766억달러에 달하던 GDP 규모(경상가격기준)가 1998년에는 약 2/3수준인 3,213억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1999년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4000억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으

며, 향후 10년 동안에도 연 5%대의 실질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에는 1.1조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인구노령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 및 여가활동 증대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의 상승과 함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지출의 비중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해외생산의 확대 등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지식집약화를 위한 설비고도화 그리고 R&D를 포함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의 부진으로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신규투자는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총투자율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5> GDP 지출구조 및 무역규모 전망

구 분	1998	2000	2010
GDP(억달러)	3,213	4,760	11,050
1인당 GDP(달러)	6,823	10,070	21,820
지출구조(%)			
민간소비지출	53.7	56.7	58.7
정부소비지출	10.1	9.8	9.3
고정자본형성	37.1	30.4	31.9
재 고 증 가	-0.4	1.7	0.0
수 출	29.8	30.7	26.8
수 입	30.3	29.3	26.6
국 내 총생산	100.0	100.0	100.0
국제수지기준(억달러)			
총수출	1,567	1,812	2,955
상품수출	1,321	1,523	2,452
총수입	1,144	1,637	2,939
상품수입	905	1,347	2,379
총교역규모	2,711	3,449	5,894

수출은 일부 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비중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및 국내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활발한 수입대체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흑자로 인한 지속적 원화절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율은 점진적으로 저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요인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및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 등의 해외요인에 힘입어 총교역규모(상품·서비스 교역)는 1999년 2,7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0억 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대내외적 안정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전반적인 균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물가 및 고용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며, 공급측면에서도 환율의 하향안정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안정, 시장경쟁 활성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 경제의 구조변화가 물가안정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인구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대의 1.6%에서 2000년대에는 1.4%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공급과 더불어 향후 5%의 실질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실업률은 2001년 2005년 기간 중 연평균 4.5%, 2006 2010년 기간 중에는 4.0%대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실업률 추이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향후 외환위기 이전의 3%대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6> 물가 및 고용전망

(단위 : %)

구 분	1991 2000	2001 2005	2006 2010
소비자물가증가율	5.2	2.5	2.0
인구증가율	1.0	0.8	0.6
경제활동인구	1.6	1.4	1.4
경제활동참가율	61.2	61.7	63.0
남자	75.5	75.3	75.6
여자	47.7	48.7	51.1
취업자증가율	1.2	1.7	1.5
실 업 률	3.5	4.5	4.0

주 : 1999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통계청의 전망치이며,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률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호.

2. 보험산업 주요 지표 예측모형

가. 모형의 특징

본 예측모형은 연간자료를 이용한 모형으로 행태방정식 12개, 정의식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형의 기본구조는 주요 경제지표와 보험산업의 제도적 변화를 외생변수로하여 보험변수의 행태변화를 모형으로 구축하였다.

동 모형은 주요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지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근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보험산업지표를 내생화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단기 전망에 사용하는 ARIMA모형은 보험산업지표의 과거 시차변수를 이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전망치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과거 실적치에 대한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나 미래의

전망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경제환경의 변화를 모형 내에 내재화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모형은 1972년부터 1999년의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두고 이로부터 2000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의 보험지표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과거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변수의 경우 자료가 이용가능한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두었다.

또한 동 모형에서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보험지표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외환위기는 일반적인 금융 및 제조업에 미친 영향이외에도 보험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 경제위기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도 사용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보험산업이 많은 구조조정 정책을 펴온 바, 이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나. 모형의 추정방법

모형의 추정은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은 모형 내에서 연립방정식 편의(simultaneous equation bias)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이나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도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모형의 경우 최소한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OLS 추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계량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형전체를 한꺼번에 추정하기보다는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2SLS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각 부문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재추정하는 방식을 연구한 바 있다. 모형의 구조가 부문별 축차형(block recursive form)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2SLS방식을 사용하면 OLS방식에 의한 계수 추정치보다도 일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모형의 구조가 부문간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유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

생한다. 본 모형에서는 추정량의 일치성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모형의 기본구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OLS추정방식을 채택하였다.

개별 행태방정식에서 단위근을 보유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공적분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2단계 오차수정모형(two step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첫번째 단계인 수준변수간의 회귀방정식은 변수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두번째 단계인 차분변수의 회귀방정식은 변수간의 동태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변수의 경우에는 단위근을 보유하더라도 수준변수간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가성적 회귀현상(spurious regression)을 감수하더라도 예측 및 변수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오차수정모형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려하는 보험산업변수도 통상적인 시계열 거시경제변수와 마찬가지로 특성상 시간추세를 가지는데, 개별 방정식내에서 시간추세의 정식화 문제가 Nelson and Plosser(1982)에 의해 1980년대 초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단위근(unit root) 및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을 통하여 공적분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오차수정모형(ECM)을 원용하여 1차 시계열상관을 처리하였으며, 잔차항에 시계열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단계 수준변수간의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공적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성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차분형태로 정식화하였다.

개별 거시경제변수의 단위근검정은 Dickey and Fuller(1979), Phillips and Perron(1988), Stock and Watson(1988)방식에 따랐으며 공적분여부는 Stock and Watson(1988)방식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회귀방정식의 오차항이 안정적인 시계열이라고 판단되고 1차 자기상관이 강하지만 굳이 오차수정모형으로 정식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Cochrane-Orcutt 반복수정과정에 의해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방정식에 따라서는 설명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해당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경제이론에도 합당하고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모형이 예측 및 정책효과분석에 사용되려면 우선 개별 행태방정식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야 하지만 아울러 시뮬레이션의 적합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추정된 모형으로부터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된 내생변수의 시뮬레이션 값과 실적치 간의 오차분석에 의해 평가된다.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은 비선형 모형의 시뮬레이션에 흔히 사용되는 Gauss-Seidel(GS) 방법을 이용하였고, 해의 수렴판별기준은 최대상대오차의 크기로 정하였다. Gauss-Seidel 해법의 기본내용은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간단한 모형을 가정하자.

$$f_1(y_{it}, y_{2t}, \cdots, y_{nt}, x_{1t}, \alpha_1) = u_{1t}$$
$$f_2(y_{it}, y_{2t}, \cdots, y_{nt}, x_{2t}, \alpha_2) = u_{2t}$$
$$\vdots$$
$$f_n(y_{it}, y_{2t}, \cdots, y_{nt}, x_{nt}, \alpha_n) = u_{nt}$$

위 식에서 y 를 내생변수, x 를 선결변수를 포함한 외생변수, α 를 방정식의 추정계수, u 를 오차항이라고 한다면, 위 식들은 각각의 내생변수 y_1, y_2, ⋯, y_n 에 관해 다음 식과 같이 변환시킬 수 있다.

$$y_{1t} = g_1(y_{2t}, y_{3t}, \cdots, y_{nt}, x_{1t}, \alpha_1) = u_{1t}$$
$$y_{2t} = g_2(y_{1t}, y_{3t}, \cdots, y_{nt}, x_{2t}, \alpha_2) = u_{2t}$$
$$\vdots$$
$$y_{nt} = g_n(y_{1t}, y_{2t}, \cdots, y_{n-1t}, x_{nt}, \alpha_n) = u_{nt}$$

단계 1 : 위 모형을 풀기 위해서는 각 계수의 값과 오차항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 편의상 α_1, α_2, …, α_n은 회귀계수의 추정치이며, 오차항 u_{1t}, u_{2t}, …, u_{nt}는 0 이라고 가정하자. 내생변수의 초기치는 전기의 실적치 혹은 전망치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모든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모형을 풀어 y_{1t}, y_{2t}, …, y_{nt}에 해당하는 새로운 내생변수의 값을 구한다.

단계 2 : 단계1에서 얻어진 새로운 내생변수의 집합을 가지고 모형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해를 구한다.

단계 3 : 단계2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형으로 나온 해가 수렴하여 허용상대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단계2를 중단하고 이때의 내생변수의 값을 모형의 해로 간주한다.

단계 4 : 단계3의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기로 옮아간 후 단계1 - 단계3의 과정을 반복한다.

GS 반복법은 g_1, g_2,… , g_n 방정식에 포함된 내생변수의 값이 바로 전기의 해인지 아니면 현재의 반복과정에서 얻어진 값인지에 따라 수렴속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렴속도는 후자의 방법, 즉 y_{1t}에 대한 해를 y_{2t}, …, y_{nt}의 해를 구하는데 사용하고, y_{1t}, y_{2t} 에 대한 해를 y_{3t}, …, y_{nt}의 해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라. 모형에 사용된 변수

1) 생명보험 관련변수

< 내생변수 >

SIBL	생존보험료
DIBL	사망보험료
SDBL	양로보험료
GIBL	단체보험료
TALI	생명보험 총자산

< 생명보험제도 변화 더미 >

SIBLDUM,	생존보험 신설생보사의 외형경쟁 더미변수(1989-1995)
MCDUM	95년 이후 소비자들의 사망보험 니드증가 더미변수 (1995-2010)
SDBLDUM	생사혼합보험에 있어서 경제위기 더미변수(1997-1999)

2) 손해보험 관련변수

< 내생변수 >

FIBD	화재보험료
MIBD	해상보험료
CIBD	자동차보험료
GIBD	보증보험료
EIBD	특종보험료
LIBD	장기보험료
TDIB	손해보험 전체보험료
TADI	손보총자산

< 외생변수 >

TRB	등록선박톤수
NWPC	자동차사고부상자수
NDPC	자동차사고사망자수

3) 주요 경제변수

E	수출
I	수입
M3	M3 (평잔)
L_A	예금은행대출금(평잔)
GDP	국내총생산
IRTD	정기예금금리
BER	기준환율
NRC	자동차등록대수
NCA	자동차사고수
IMF	IMF로 인한 심리적효과
	0 if 기타
	1 if (97.4~98.3)
POST IMF	IMF로 인한 보험회사의 경영개선
	0 if (~98.3. 99.4~)
	1 if (98.4~99.3)

3. 주요지표 종합전망

가. 수입보험료

FY2010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와 국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위험의 다양화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FY1999 FY2005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 FY2006 FY2010 기간은 5.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과거보다는 매우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및 단체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FY2005 65.4조원, FY2010 87.2조원의 실적을 보여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FY2005 21.3조원, FY2010 27.1조원의 실적을 보여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생명보험의 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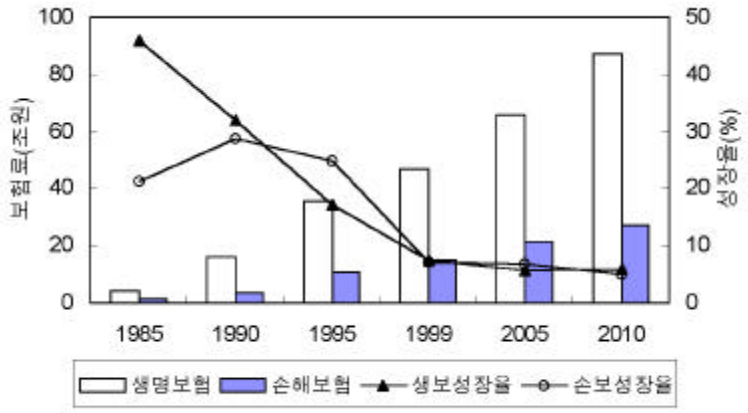
<표 Ⅳ-7>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FY2010(P)
생명보험	4.0 (45.9)	16.0 (32.1)	35.3 (17.1)	46.8 (7.3)	65.4 (5.7)	87.2 (5.9)
손해보험	1.0 (21.1)	3.6 (28.8)	10.2 (23.2)	13.8 (7.9)	21.3 (7.5)	27.1 (4.9)
전 체	5.0 (38.7)	19.6 (31.4)	45.5 (18.3)	60.6 (5.9)	86.7 (6.2)	114.3 (5.7)

주 : 1. ( )안은 해당연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임.
3. 손해보험 수보는 개인연금보험,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보험이 제외된 것임.

<그림 Ⅳ-2>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및 증가율 추이



나. 보험침투도

FY2010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는 보험산업의 성장이 과거의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추세에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하락추세를 시현하여 FY1999 대비 2%p 하락한 10.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종목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FY1999 대비 1.5%p 하락한 8.2%, 손해보험의 경우 0.5%p 하락한 2.5%로 전망된다.

<표 Ⅳ-8> 연도별 보험침투도 추이

(단위 :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생명보험	4.9	9.0	9.4	9.7	8.5	8.2
손해보험	1.3	2.0	2.7	2.9	2.8	2.5
전 체	6.2	11.0	12.1	12.6	11.3	10.7

주: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보험이 제외된 것임.

다. 1인당 보험료

FY2010의 국민 1인당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25만 9천원 정도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생명보험 보험료는 매년 5.1% 증가하여 172만 3천원이 되고 , 손해보험 보험료는 53만 6천원으로 매년 5.6%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손해보험의 증가율이 생명보험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9>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생명보험	98	374	783	999	1,331	1,723
손해보험	25	84	226	295	434	536
전 체	123	458	1,009	1,293	1,765	2,259

주: 손해보험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보험이 제외된 것임.

라. 생·손보 구성비

FY2010의 생·손보 구성비는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76.3% : 23.7%로 예상되어 FY1999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FY2005의 구성비는 75.4% : 24.6%로 FY1999에 비해 생명보험의 비중이 1.8%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0> 연도별 생·손보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E)	2010(P)
생명보험	79.7	81.7	77.6	77.2	75.4	76.3
손해보험	20.3	18.3	22.4	22.8	24.6	23.7

주 : 손해보험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보험이 제외된 것임.

마. 총자산

FY2010의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208.1조원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총자산 규모는 FY2005년 143조원, FY2010년 168조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FY2005년 35조원, FY2010년 40.1조원으로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1> 연도별 총자산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E)	2010(P)
생명보험	7.0 (47.6)	31.0 (34.7)	70.0 (17.7)	110.0 (12.0)	143.0 (4.5)	168.0 (3.3)
손해보험	1.2 (43.1)	4.8 (32.0)	12.7 (21.5)	26.5 (20.2)	35.0 (4.7)	40.1 (2.8)
전 체	8.2 (46.9)	35.8 (34.3)	82.7 (18.2)	136.5 (13.4)	178.0 (4.5)	208.1 (3.2)

주 : ( )안은 해당연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4. 생명보험

가. 종합전망

향후 10년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재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시현하여 FY2010에는 총 수입보험료가 8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자산은 177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입보험료

생명보험산업은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하였으나 선진국 수준에 달한 보험가입률과 세계 2위의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로 인해 향후에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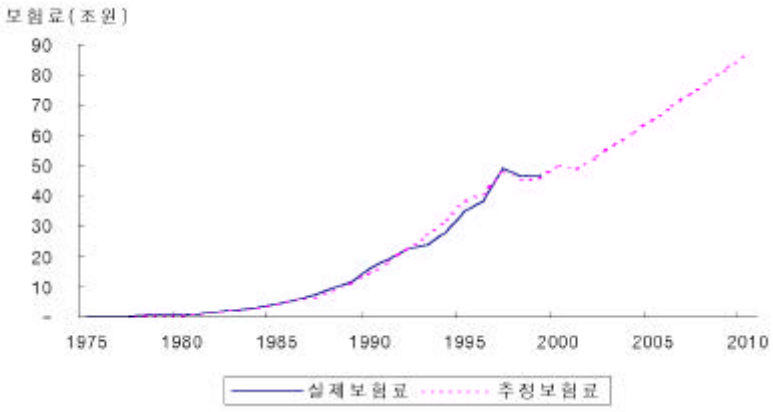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5	30,810	53.5	9,063	30.2	39,873	45.9
1990	120,333	31.3	40,103	34.6	160,436	32.1
1995	274,937	18.0	77,944	14.2	352,880	17.1
1999	316,082	3.5	151,473	8.1	467,554	7.3
2005(P)	475,000	7.0	179,000	2.8	654,000	5.7
2010(P)	626,000	5.7	246,000	6.6	872,000	5.9

주 : 증가율은 해당년도까지의 연평균증가율(1985년의 경우 5년간 평균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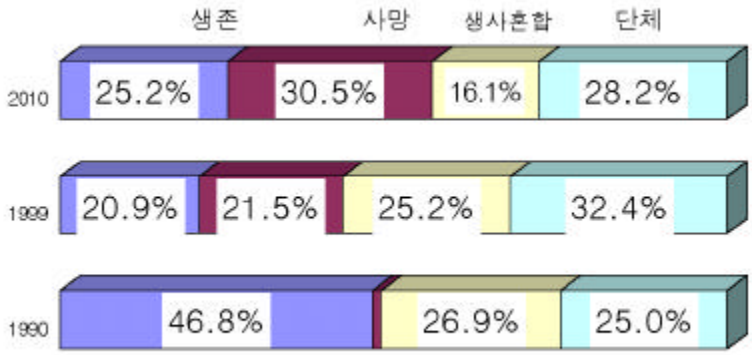
성보험 수요가 꾸준히 증대하고 보장성보험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는데 힘입어 GDP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5.8%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시현하여 FY2010의 총 수입보험료는 8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Ⅳ-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개인보험 중심의 생명보험산업은 노령화에 따른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단체보험의 역할이 상당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체보험의 비중이 30%에 가까운 탄탄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보험분야에서는 연금과 투자형 상품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수요가 재편되는 가운데, 보험인식 제고에 따른 사망보험의 성장도 꾸준히 이어져 사망보험의 비중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FY2010에는 3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종목별 비중에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합친 개인 저축성보험 분야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대신 단체보험과 개인사망보험의 비중이 증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Ⅳ-4>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2) 총자산

생명보험산업의 고속성장의 결과 총자산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19.5%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향후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 총자산의 성장률도 하락하여 연평균 3.9%의 성장을 시현하여, FY1999년 말 현재 110조원인 총자산은 FY2010에는 168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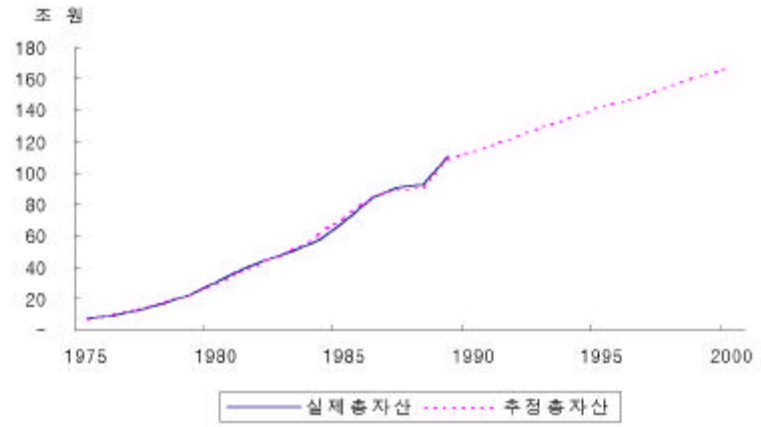
<표 Ⅳ-13> 생명보험 총자산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총자산	7	31	70	110	143	168
증가율	47.6	34.7	17.7	12.0	4.5	3.3

주 : 증가율은 해당년도까지의 연평균증가율(1985년의 경우 5년간 평균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Ⅳ-5> 생명보험 총자산규모 추이



나. 생명보험 종목별 전망

1) 개인보험

가) 전체 수입보험료

1990년대에 걸쳐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경제위기에 따른 수입보험료 하락이나 종퇴보험의 퇴직보험 전환에 따른 단체보험 비중 증대가 나타났던 시기를 제외하면 75% 80% 수준의 비중을 나타내 생명보험에서 핵심적 사업분야의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개인저축성보험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어 전체적인 개인보험분야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70%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보험료규모는 연평균 5.7% 성장을 보여 총 6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4>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5	6,843	39.8	1,712	59.0	22,254	59.3	30,810	53.5
1990	75,108	61.5	2,045	3.6	43,180	14.2	120,333	31.3
1995	193,310	20.8	32,426	73.8	49,200	2.6	274,937	18.0
1999	97,808	-15.7	100,461	32.7	117,813	24.4	316,082	3.5
2005(P)	155,000	8.0	208,000	12.9	112,000	-0.8	475,000	7.0
2010(P)	220,000	7.3	266,000	5.0	140,000	4.6	626,000	5.7

주 : 증가율은 해당년도까지의 연평균증가율(1985년의 경우 5년간 평균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나) 종목별 수입보험료

(1) 생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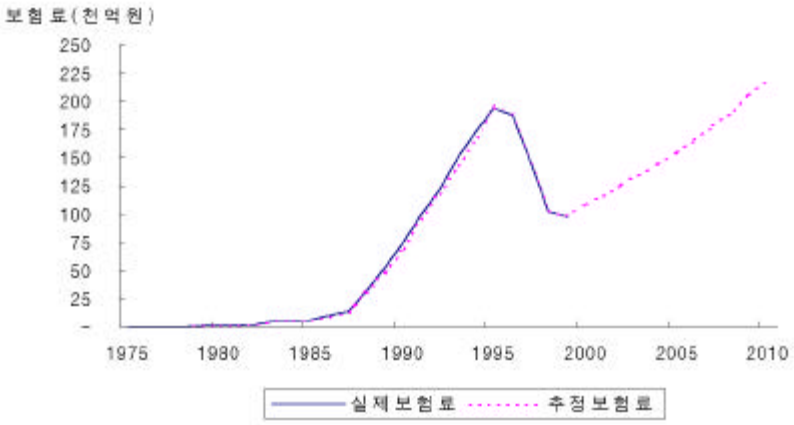
생존보험은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종목으로 노후복지연금의 판매 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대표적 보험종목이었으나 IMF 경제위기로 해약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 판매비중이 급속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이탈을 막고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판매개시된 고금리 저축성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생사혼합보험)의 대량 판매 이후 개인저축성보험의 주된 분야로서의 위치를 상당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체제 하의 고금리시대가 끝나면서 저금리추세의 가시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앞두고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생존보험 수요가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노령화로 인해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개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自助的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12]에 따라 생명보

험시장의 주요 종목으로 다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시장의 확대에 따라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크게 확대되어 FY2010에는 22조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 비중도 전체 수입보험료의 2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Ⅳ-6>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연금시장은 노령화에 따라 규모가 크게 성장할 종목이며 금융기관간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인연금은 전금융권에 취급이 허용되었으며 최근 개인연금 계약을 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금융기관간에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분야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저금리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의 저축성 수요가 투자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변화에 대응해 변액보험 도입을 계기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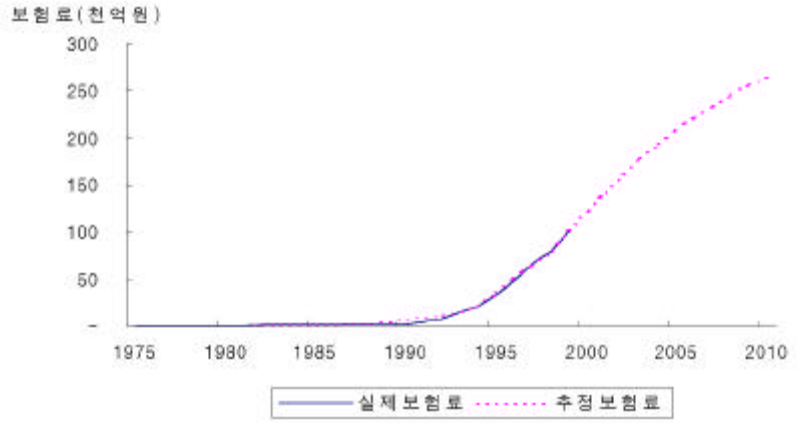
(2) 사망보험

12) 2001년부터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망보험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과 상해 및 질병보험, 장기간호보험 등 새로운 보장성보험을 포괄하는 보험종목이다. 저축성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의 특성상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그 사망보험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보험인식의 제고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촉진 노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최근 2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망보험은 21세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FY2010에는 27조에 달하는 수입보험료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구성비도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Ⅳ-7>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사망보험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종신보험수요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의 하나인 종신보험은 보험선진국에서는 매우 높은 판매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축성 보험을 중심의 성장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한 생명보험의 고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종신보험시장이 점차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신보험시

장을 중심으로 한 선진형 생명보험시장으로 보장성보험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 보장성보험시장의 또 다른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비는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적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여서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간병을 위한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공적 노인간병제도의 도입과 함께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생사혼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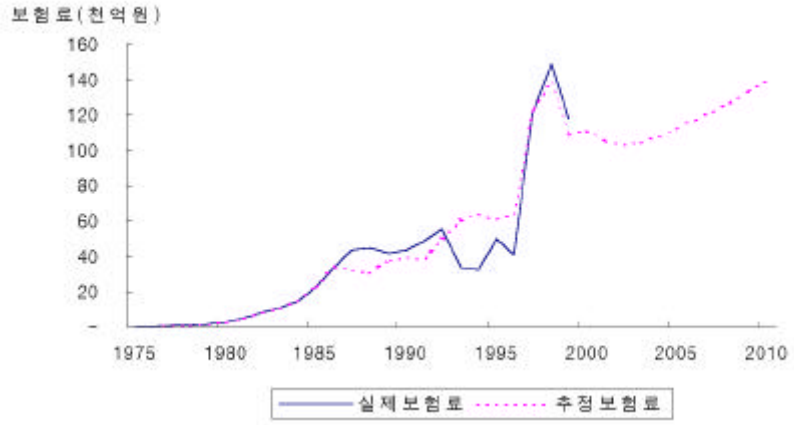
생사혼합보험은 IMF 경제위기 이후 유동성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중실세금리에 연동하는 슈퍼재테크보험을 개발한 이래 한때 전체 수입보험료의 30%를 상회하는 등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저금리추세,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등의 환경 하에서 비과세혜택 등의 장점으로 금리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의 확대로 금리경쟁력상의 하락요인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어 저금리추세가 뚜렷해지고 직접금융시장 활성화가 정착되는 경우 소비자의 금리민감도 증대와 투자형 상품선호 추세가 가속화되어 상당한 시장위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생사혼합보험은 향후 수요감소를 경험하고 FY2010에는 14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 중 비중은 1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의 저축성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생사혼합보험은 투자형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여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1년으로 예정된 변액보험의 도입은 보험산업에서 저축성보험시장 구조전환

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Ⅳ-8>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2) 단체보험

1990년대 초반 단체보험의 비중은 20%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중반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FY1999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비중은 32.4%에 까지 이르렀으나 이는 종퇴보험의 퇴직보험 전환에 따른 수입보험료 과대계상과 개인보험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하락의 결과로 실제 20 25%의 비중으로 판단된다. 기업연금제도로서 1999년 도입된 퇴직보험제도는 단체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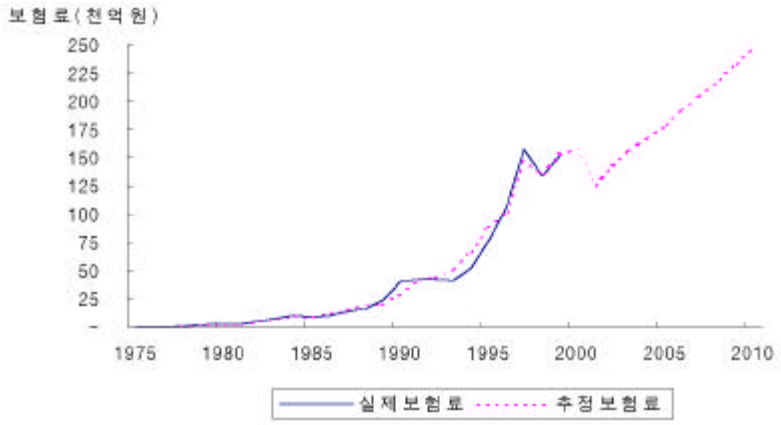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법정 퇴직금제도하에서 기업 파산시 사내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근로자의 우선 취득권이 보장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연금시장은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화되면 종업원복지제공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에 의한 건강보험 등 다양

한 보험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업연금시장의 확대와 기업복지제도 발전의 결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큰 신장세를 보여 FY2010에는 25조원 규모에 이르러 전체수입보험료의 2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Ⅳ-9>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현재 단체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가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를 확대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취급이 전 금융권에 허용됨에 따라 기존에 생명보험사가 영위하던 시장에서의 경쟁확대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의 하락 또한 예상된다. 확정갹출형 연금 등 새로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권간 경쟁도 단체보험시장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손해보험

가. 종합전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인구의 노령화, 소비자주권 신장, 기술발전에 따른 위험의 다양화 및 고액화,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유통비용의 감소 등 향후 10년간 경제·산업 환경은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손해보험산업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현재 보험산업의 최대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판매채널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손해보험 산업은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보험침투도가 높은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특성에 따라 국내경제의 실질성장세인 5%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원수보험료

FY20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연평균 6.3%의 성장을 시현한 결과 27조 1,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손해보험 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 종목에서 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동차 및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자율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2005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Ⅳ-1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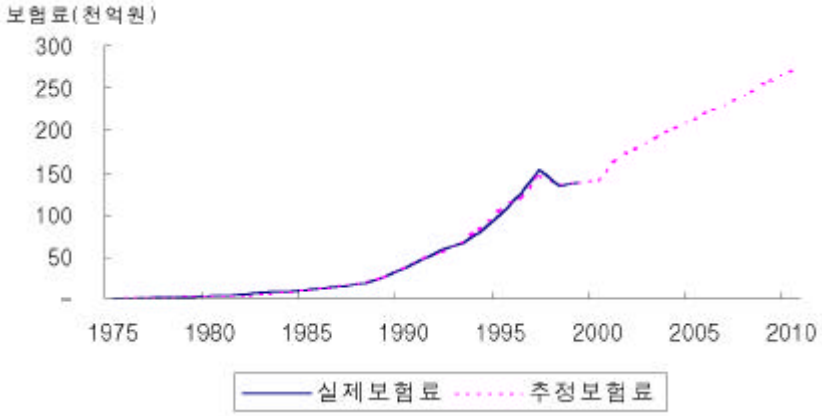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화 재	955 (14.5)	2,215 (18.3)	3,782 (11.3)	2,646 (-8.5)	4,635 (9.8)	6,931 (8.4)
해 상	1,666 (17.6)	2,856 (11.4)	4,532 (9.7)	4,571 (0.2)	6,916 (7.1)	9,267 (6.0)
보 증	469 (16.0)	2,853 (43.5)	7,002 (19.7)	5,738 (-4.9)	14,658 (16.9)	23,146 (9.6)
특 종	1,223 (19.6)	1,992 (10.2)	5,662 (23.2)	9,179 (12.8)	12,609 (5.4)	16,031 (4.9)
일반계	4,313 (17.2)	9,916 (18.1)	20,978 (16.2)	22,134 (1.4)	38,818 (9.8)	55,375 (7.4)
자동차	4,585 (28.6)	17,729 (31.1)	50,103 (23.1)	55,368 (2.5)	84,293 (7.3)	111,166 (5.7)
장 기	1,212 (14.2)	8,136 (46.3)	30,592 (30.3)	60,307 (18.5)	89,832 (6.9)	104,545 (3.1)
계	10,111 (21.1)	35,780 (28.8)	101,673 (23.2)	137,810 (7.9)	212,943 (7.5)	271,085 (4.9)

주 : ( )안의 수치는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에 의한 증가율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그림 Ⅳ-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FY2010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보증보험이 큰 폭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부문의 점유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손해보험 종목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온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FY1999 대비 5.2%p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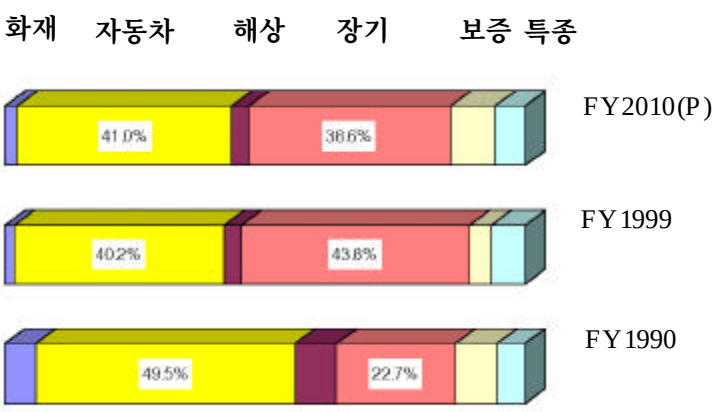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지만, FY2010에도 자동차 및 장기보험이 79.6%의 점유비를 차지하여 손해보험 주요 종목으로의 위치를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16>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화 재	9.4	6.2	3.7	1.9	2.2	2.6
해 상	16.5	8.0	4.5	3.3	3.2	3.4
보 증	4.6	8.0	6.9	4.2	6.9	8.5
특 종	12.1	5.6	5.6	6.7	5.9	5.9
일반계	42.6	27.8	20.6	16.1	18.2	20.4
자동차	45.4	49.5	49.3	40.2	39.6	41.0
장 기	12.0	22.7	30.1	43.8	42.2	3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Ⅳ-11>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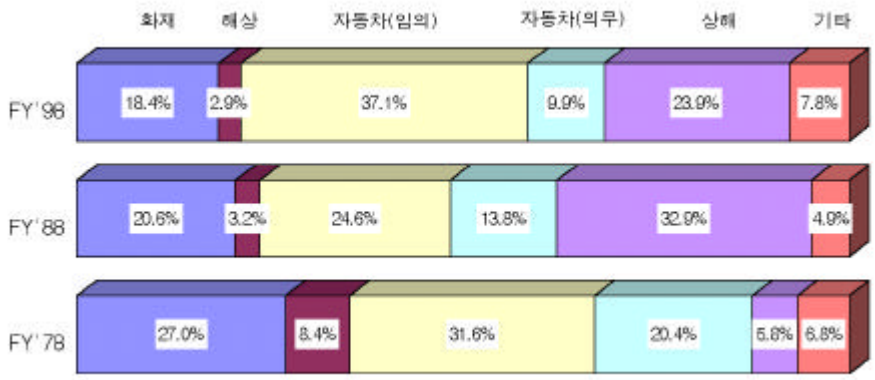
세부종목별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 점유비중이 FY1999 대비 4.3%p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는 달리 화재 및 해상보험의 점유비중은 각각 2.6%, 3.4%로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가장 현저한 성장세를 보여 손해보험 중 최대의 점유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은 자동차 및 일반보험의 상대적인 성장의 영향에 따라 38.6%로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별 구성비 변화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자동차, 기술, 배상책임보험의 비중 증가를 보이는 보편적 추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및 특종보험의 점유비중이 90%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동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동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 및 해상보험의 점유비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 및 자동차 보험은 꾸준한 비중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12>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주 : 각 종목에 적립형 보험의 실적이 포함된 것임.
자료 : The Marine and Fir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Non-life Insurance in Japan』, 1998-1999

2) 총자산

손해보험 산업의 총자산은 경제성장 및 원수보험료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3.9%의 성장을 시현하여, FY2010에는 4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 및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연평균 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저축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정체로 과거 고성장 시대에 볼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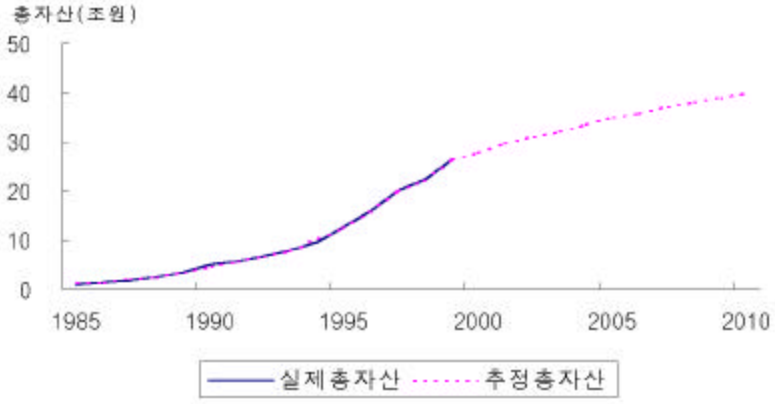
<표 Ⅳ-17>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총자산	1.2	4.8	12.7	26.5	35.0	40.1
증가율	(43.1)	(32.0)	(21.5)	(20.2)	(4.7)	(2.8)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에 의한 증가율임.

<그림 Ⅳ-13> 손해보험산업 총자산 추이



나.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1) 화재보험

추정결과에 따르면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9.2%의 성장을 보여 FY2010에는 6,9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계약자들의 포괄담보상품 선호추세 및 고객맞춤형 상품의 판매증대에 따라 화재담보를 포함하는 보험상품의 판매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화재위험만을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성장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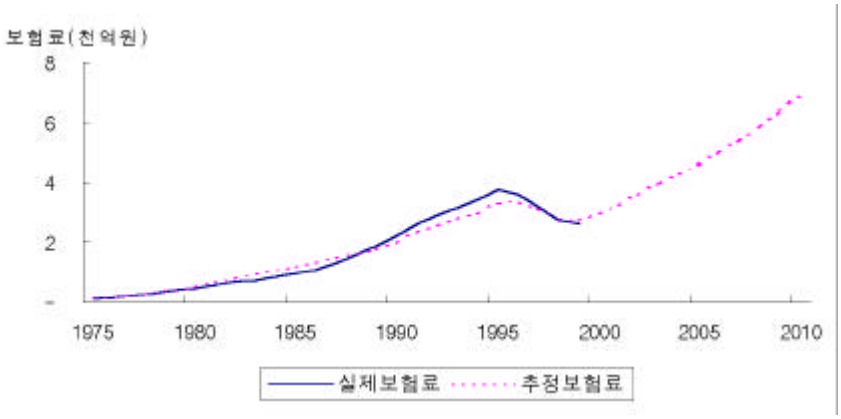
<표 Ⅳ-18>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수입보험료	955	2,215	3,782	2,646	4,635	6,931
증 가 율	(14.5)	(18.3)	(11.3)	(-8.5)	(9.8)	(8.4)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14>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2) 해상보험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5에 6,916억원, FY2010에는 9,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3%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해상보험의 시장점유율은 FY2010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보험은 일찍부터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어온 종목으로 손해보험 종목중 가격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쟁에 따른 요율인하 압력과 선박건조 및 항해기술 발전에 따른 손해율 저하에 따라 전통적 해상보험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선박 및 적하보험의 성장세는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적 및 물적 교류의 증대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위성통신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항공보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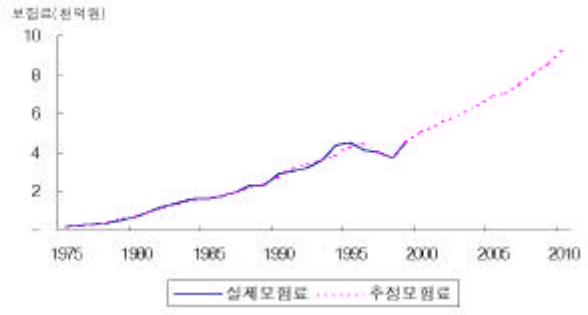
<표 Ⅳ-19>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수입보험료	1,666	2,856	4,532	4,571	6,916	9,267
증 가 율	(17.6)	(11.4)	(9.7)	(0.2)	(7.1)	(6.0)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3) 자동차보험

향후 10년간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연평균 6.5%의 성장을 지속하여, FY2005에는 8조 4,293억원, FY2010에는 11조 1,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통계자료를 살펴보더라도 1999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성장률은 1인당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동 성장률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 보험시장은 포화상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요율자유화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보험료 감소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범위 확대를 통한 보험상품의 고급화 그리고 전자장비의 발달에 따른 차량의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율자유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1999년 기준)은 각각 47.7% 및 48.9%로, 우리나라의 40.2%에 비하여 8%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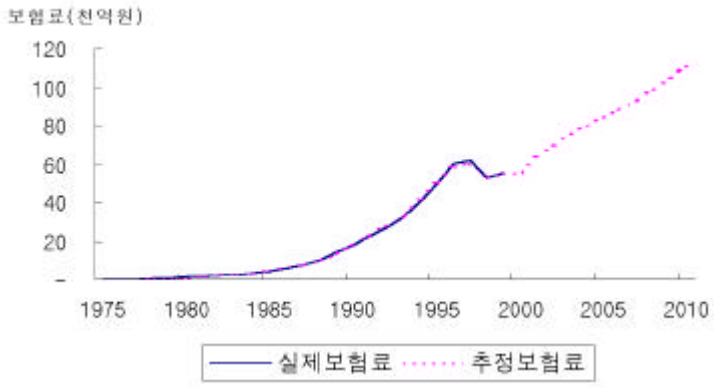
<표 Ⅳ-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수입보험료	4,585	17,729	50,103	55,368	84,293	111,166
증 가 율	(28.6)	(31.1)	(23.1)	(2.5)	(7.3)	(5.7)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4) 보증보험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3.5%라는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여, FY2010에는 2조 3,1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보험 산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보험종목으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어려움을 겪은바 있지만,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 진작 그리고 원활한 구상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보증보험 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보증수요 증대와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신용보험 상품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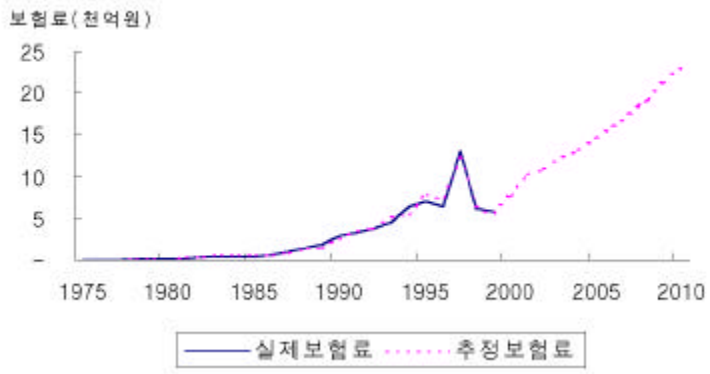
<표 Ⅳ-21>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수입보험료	469	2,853	7,002	5,738	14,658	23,146
증 가 율	(16.0)	(43.5)	(19.7)	(-4.9)	(16.9)	(9.6)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17>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5) 특종보험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FY2010에는 1조 6,0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현재 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도 2002년 7월 시행예정으로 있는 제조물책임법 및 e-business 관련 신상품 개발,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수요증대, 농작물 및 자연재해보험 도입 등에 따라 특종보험 부문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상해 및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손해보험 상품 중 제휴판매 및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판매가 가장 용이한 종목의 하나로 가입권유에 의해 시장을 확대하여온 기존 보험상품과는 달리 지속적인 상품개발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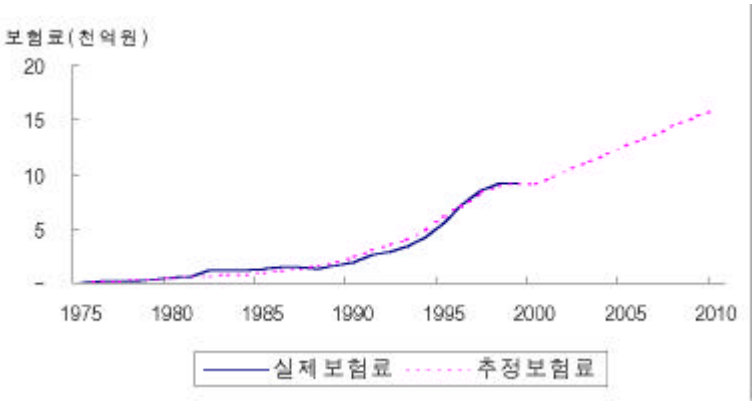
<표 Ⅳ-22>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수입보험료	1,223	1,992	5,662	9,179	12,609	16,031
증 가 율	(19.6)	(10.2)	(23.2)	(12.8)	(5.4)	(4.9)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18>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6) 장기손해보험

지난 10여년간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온 장기손해보험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1%의 성장을 시현하여, FY2010에는 10조 4,5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은 현재 손해보험 산업의 43.8%를 차지하는 최대의 종목으로 향후에도 1인당 GDP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은 보이겠으나, 인구노령화에 따른 저축률 감소 및 이자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5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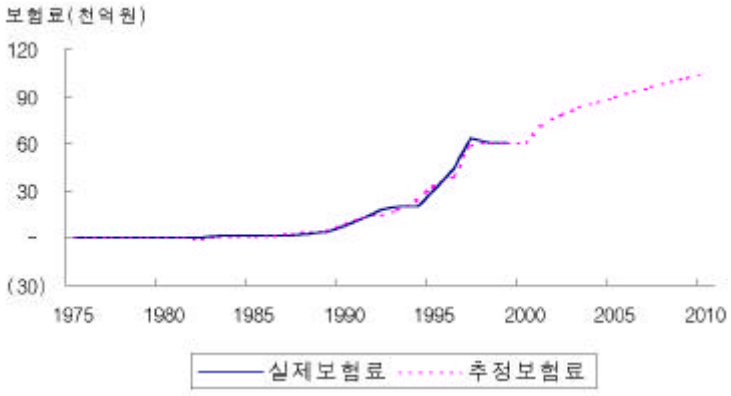
<표 Ⅳ-2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2005(P)	2010(P)
수입보험료	1,212	8,136	30,592	60,307	89,832	104,545
증 가 율	(14.2)	(46.3)	(30.3)	(18.5)	(6.9)	(3.1)

주 : ( )안은 해당 기간별 기하평균임(1985년의 경우 1980년 대비 증가율임).

<그림 Ⅳ-19>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Ⅴ.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추세 전망

1. 보험수요 특성의 구조적 변화

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생명보험 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성장률을 시현한 바 있다. 이는 보험가입률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량의 모집인 투입에 따른 외형성장의 결과라 할 것이다. 보험가입률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 이미 보험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보험가입률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근 발표된 생명보험협회의 『제9차 생명보험성향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률 수준[13]은 81.9%로 일본의 80.8%(1997년)[14], 미국의 85%(1998년)[15]와 비슷한 수준이고, 가구당 보험가입건수도 평균 3.6건에 이르고 있다<제Ⅲ장 표 Ⅲ-14참조>. 이러한 지표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성숙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저축장려정책에 따른 저축성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성장이 수입보험료 규모의 급속한 증대를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9차 생명보험성향조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가구당 지출보험료는 연간 293만원, 연간소득 대비 1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한가구당 연간 615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지만, 이는 소득대비 9.6%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지출보험료나 GDP 대비 수입보험료를 의미하는 보험침

---

13)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각 호, 생명보험 가입률은 민영생명보험회사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14)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book』, 1998.

15)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1999.

투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Ⅲ장 표 Ⅲ-18참조>.

<표 Ⅴ-1> 한·일간 가구당 보험료 비교

구 분		1991	1994	1997	2000
한 국	연간보험료	161만원	215만원	285만원	293만원
	비중	11.4%	10.8%	10.9%	11.2%
일 본	연간보험료	348만원	503만원	615만원	-
	비중	9.4%	9.6%	9.6%	-

주 : 비중은 (연간보험료)/(가구당 연간소득)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성향조사』, 각 호.
생명보험협회, 「한·미·일의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보(통권 15호)』.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지출은 정부의 저축장려정책 및 높은 저축심리, 보험세제, 외형위주 성장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저축성보험 편향의 불균형성장이라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률 수준 뿐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지출규모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양적으로 성숙단계에 이르러 과거와 같은 성장추세를 지속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보험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의 결정에 있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 생명보험가입자 특성의 변화

과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시장의 특성을 보여왔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보험수요의 비자발성이라는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집인 조직을 중심으로 한 밀어내기(push)형 수요창출이 주된 경영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명보험 가입자의 특성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첫째, 고학력화추세, 각종 대형 재해 및 고액치료 질병 빈발로 보장성보험의 필요성 재인식,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증대 등 전반적인 보험인식 제고의 결과 자발적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자발적 보험수요는 1990년대 이전 30% 전후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들어 크게 신장되어 최근에는 5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2> 자발적 보험수요 추세

(단위 :%)

구 분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필요성에 의한 가입률	30.4	28.9	30.7	36.2	40.0	44.9	48.1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성향조사』, 각 호.

이러한 자발적 보험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들어 30대의 보험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20대의 보험가입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보험수요 주도세대가 저연령층으로 확산되어 전 연령에 걸쳐 보험가입률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생명보험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세대로의 보험수요 확산이 자발적 보험수요 증대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사회전체의 고학력화도 자발적 보험수요의 확대와 보험가입률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보험가입목적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가입목적에 따른 보험계약의 분포를 보면 최근 질병보장과 재해보장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의료비나 재해보장상품의 가입이 매우 낮은 수준의 비중을 보인 것에 비교하면, 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수요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및 2000년에 실시한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 추가가입을 원하는 최우선 상품이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인 점과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에서 우선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보완상품 개발을 든 점도 보험수요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표 Ⅴ-3> 생명보험 가입목적의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가족의 생활보장	34.7	37.0	53.3	46.9	52.6	66.8	51.7
의료비보장	5.9	4.4	6.3	8.7	15.1	45.0	70.2
재해 등 대비	19.9	17.5	23.7	23.4	33.4	45.9	42.3
노후생활보장	27.7	30.9	37.5	32.2	38.7	38.8	20.0

주 : 최근 가입상품을 기준으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성향조사』, 각 호.

이런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보험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양적 성장을 특성으로 하던 시대에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주보험수요 세대의 특성

보험수요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주된 소비연령층을 판별하고 그 세대적 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주요 소비세대의 세대적 특성은 전체 사회의 소비패턴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향후 10년에 걸친 기간동안 가장 높은 인구구성을 가진 연령층은 1,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 1963년생이고, 2차 베이비붐은 1970년을 전후해서 발생했다. 따라서 인구분포상 2000년에 25세에서 45세에 분포한 연령층, 2010년에 35세에서 55세까지에 속하는 연령층은 우리나라 인구분포상 가장 두터운 층에 속하고, 이들 세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성비가 높은 인

구군으로 존재한다.

이들 연령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높은 평균수명, 짧아진 정년, 낮은 출산율과 핵가족화 등 노령화에 따른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세대는 스스로 노후생활보장을 준비해야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보장성 수요증대에 기초하여 저축성보험 편향의 불균형성장이 조정되는 변화와 아울러 새로운 형태로 저축성보험 구성비가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적 시장재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차 베이비붐세대는 향후 10년간 40대에서 50대로 변화하며 주요 보험소비계층을 이루게 되고, 1970년 전후 세대 또한 주요 보험소비계층인 30대에서 40대에 걸쳐 분포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세대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1980년대생은 새로운 보험수요세대인 20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보호주의의 경험을 공유한 이들 세대들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보험소비세대로서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60년대생 연령군은 인터넷 벤처붐을 주도한 세대로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세대전반에 걸쳐 시작된 세대로서 정보통신기술발달의 영향을 대중적으로 받은 첫 세대이며, 1970년대생 연령층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80년대생은 인터넷이 생활속에 체화된 전형적인 N세대이다.

IT 혁명과 금융겸업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명하고 능동적인 소비자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기업에게는 보험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쳐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서비스제공체제를 요구한다. 이들은 보험서비스 제공에서 시간상·공간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금융업을 비롯한 관련 분야를 포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것이며, 개별 니드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연금시장의 성장

가. 노령화추세 및 연금시장 성장의 필연성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변화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7%를 넘어섬으로써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이행하였고, 2022년경에는 노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는 본격적인 노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4>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연 도	연령계층별인구			노년인구 부양비
	0 14세	15 64세	65세이상	
1960	10,588(42.3)	13,698(54.8)	726(2.9)	5.3
1970	13,709(42.5)	17,540(54.4)	991(3.1)	5.7
1980	12,951(34.0)	23,717(62.2)	1,456(3.8)	6.1
1990	10,937(25.6)	29,701(69.3)	2,195(5.1)	7.4
2000	10,233(21.7)	33,671(71.2)	3,371(7.1)	10.0
2010	10,080(19.9)	35,506(70.1)	5,032(10.0)	14.2
2022	8,845(16.8)	36,164(68.8)	7,527(14.3)	16.7

주 : 1. 노년인구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 64세 인구)×100.
2.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현실 통계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출산율의 하락[16]과 의료기술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증대[17]가 동시에 빠르

16)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하는 출산력은 1970년 4.5명에서 1998년 1.48명으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는 감소 속도 면에서 외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절대숫자에서도 선진국의 1.56명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17)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의 경우 남자 50.1세, 여자 53.7세였으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는 노령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노령화사회로부터 노령사회로의 이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45년이 소요되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만에 노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령사회진입이 가장 빨랐던 일본에 비해서도 3년 빠른 수준이다.

<표 Ⅴ-5> 세계 각국의 노령화의 진행 속도

(단위 : %)

국 가	65세 이상 인구 7% 도달연도 (A)	65세 이상 인구 14% 도달연도 (B)	B - A
프 랑 스	1865	1995	130
스 위 스	1890	1975	85
영 국	1930	1975	45
미 국	1945	2015	70
일 본	1970	1995	25
한 국	2000	2022	22

자료 : 김기홍·안종범,『노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제도 도입방안』, 1993(한국의 경우 현실 통계를 감안하여 일부 수정함).

이러한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낮은 출산율과 핵가족화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근로세대에 의해 노인부양이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방식이 더 이상 원활히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정비와 개인적 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러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개 연금제도를 근간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수용되어 왔다. 이 때 민영연금시장의 구조와 성장잠재력은 사회전체의 연금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를 위해

나 1995년에는 각각 69.6세, 77.4세로 35년 사이에 20년 정도나 연장되었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20년 경에는 인구전체의 평균수명이 78.1세(남자 74.5세, 여자 81.7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영연금제도는 공적 연금보험제도를 기초로 하여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경쟁적 역할을 수행하며, 민영연금제도 또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법제화를 통해 그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 연금제도변화 방향과 시사점

전통적인 복지국가모델에서 노후생활보장은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으며 다각도의 개선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은 전통적 복지국가모델에 비해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사회의 노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 전통적인 공적 연금제도는 재정상의 위기를 겪으면서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재구축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1999년에 이르러서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며, 기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형식상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졌지만, 이 제도는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소득수준에 못미치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적용제외자[18], 소득재분배의 왜곡[19], 재정적자문제 등 제도개선의

---

18)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계층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보편적인 연금제도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상가입자의 1/4 정도인 250만명만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노인, 전업주부, 소득이 분리되지 않는 자영자의 배우자 등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19) 농어민과 도시자영자의 경우 현재 소득파악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1998년 말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부수준의 하향조정과 수급적격연령의 연장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재정불안은 여전히 커서 2034년에 연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에 기금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는 가입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고급여·저부담」의 수급부담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20], 노령화의 진행은 이러한 구조를 사회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연금제도까지 감안한 사회전체의 연금제도 개선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수급구조의 개선논의,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개편논의, 국민연금의 이원화 등 여러 갈래의 제도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21].

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소득재분배의 왜곡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 현재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연령을 68세까지 높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소득의 15% 수준까지 인상시켜야 한다.

21)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세계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족시킨 공사연금제도 개선실무소위원회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3개의 개혁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기존제도 내에서 개선책을 도모하는 안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구조와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연금수급개시 기준연령을 평균여명이 연장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메카니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안은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개선책을 도모하는 안으로, 국민연금을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국민 공통의 연금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안은 기초연금제도를 신설하여 제도개혁을 도모하는 안으로, 국민연금을 이원화시켜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전국민이 가입하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피용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선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적 연금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재정상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민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영연금의 역할강화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정비와 개인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소득보장은 법정 퇴직금제도하에서 개별 기업의 책임하에 회사 내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부분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1977년 도입, 이하 종퇴보험)이 존재하였다. 본격적인 기업연금제도는 종퇴보험의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은행, 투신 등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한 1999년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기존의 종퇴보험시장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IMF 이후 경기불안정 지속으로 기업의 연금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나, 경제의 회복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책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사내 유보되는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업연금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과세제도의 개편,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최종 직장의 정년퇴직시까지 퇴직금이 적립되도록 하는 通算制度(Portability)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 및 기업연금제도 이외에 이들 연금제도로 충분하지 않은 보장을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의 노후생활보장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는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를 통해 자조적 노후생활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감소에 따른 저축률의 감소 등 경기불안정에 따라 개인연금시장이 성장 정체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개인연금을 장기적인 노후생활보장보다 저축상품으로서 인식하는 금융소비자의 특성으로 인해 계약유지율이 낮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세제적격 개인연금보다 5년 계약유지에 따라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비적격연금 수요가

더 많은 등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노령화와 공적연금제도의 취약성에 따라 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공제범위의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제도(Transference)[22] 등 제도 개선 이외에도 연금활성화 중심의 과세제도 개편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연금시장 성장전망과 보험회사의 역할

따라서 기업 및 개인연금시장은 시장잠재력에 있어 향후 가장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분야로 판단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금규모는 2000년 3월 기준으로 49조원 규모로 GDP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고, 도입초기단계인 기업연금시장은 17조원 규모, 개인연금시장은 16조원 규모이다. 연금제도에서 민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제고는 민영 연금시장의 규모를 빠른 속도로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기업연금분야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하에서 사내 유보된 퇴직금을 대체하는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공적 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공적연금의 보완제도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가 임의제도 등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퇴직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3].

---

22)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72만원으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3)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는 경우에는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참여나 적용제외(Contract Out)를 통한 해당부분의 기업연금을 통한 흡수 등이 가능하다. 퇴직금제도가 법정 퇴직금제도가 아닌

기업연금시장의 향후 성장잠재성은 퇴직금규모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병호(2000)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시 기업 퇴직금의 미적립 채무규모가 2000년 76조원 규모에서 2010년에는 146조원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의 퇴직금 채무규모는 GDP의 22.5%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Ⅴ-21 참조). 동 연구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의무화되고,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최종 퇴직시까지 기업연금계정이 유지되어 적립되는 통산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퇴직금부채의 규모는 2010년에 1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표 Ⅴ-6>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시 퇴직금 채무규모 추계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9	2000	2005	2010	2020
총퇴직금 채무(A)	67,973	76,369	111,402	145,751	221,008
(A)/ GDP	15.6	16.6	20.0	22.5	25.4

주 : 1998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최병호·조준행,「기업퇴직금의 미적립 부채규모 추정과 연금보험 전환에 관한 연구」,『보험개발연구』, 보험개발원, 제11권 제2호, p.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간정산 확대, 평균 근속기간 단축, 근무형태 다양화 및 기업 고용근로자의 감소 등 추정의 기초를 이루는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추계치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의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업연금시장은 경제회복의 지연과 경제불안정의 지속으로 단기간 내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됨과 함께 급속한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회사의 비적격 연금보험을 제외하고 은행, 투신사 등을 포함하여 2000년 3월 현재 1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임의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연금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있으나 향후 개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생명보험성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입하고 싶은 보험으로 연금보험을 선택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금시장의 잠재력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DP에 대비한 기업연금자산의 비율(1991년 기준)은 미국의 경우 66%, 영국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자산 대비 비율 또한 미국의 경우 29%, 영국의 경우 3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24],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차츰 증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25]. 우리나라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미국의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 IRA)도 전 수탁기관을 합하여 1999년 현재 2조 5천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이래 연평균 16%의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26].

제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보험시장에서는 연금제도의 정착과 노령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연금시장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17.4% 수준이던 연금분야 수입보험료의 비중은 급속한 증가세를 시현하여 1999년에는 54.7%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31.3%, 23.4%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분야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종목이 되었다<제III장 표III-1 참조>.

---

24) E. Philip Davi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Financing of Occupational Pensions",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Pension Research Council, 1996, p.250.

25) 방하남,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정책대안」,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 개선방향』, 2000, p69, 영국의 경우 노후소득원에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에 16%에서 1988년 23%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의 비중은 하락하여 왔다.

26) 고광수, 「미국의 연금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0. p.3.

연금시장은 향후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과 아울러 금융기관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연금시장을 둘러싸고 은행, 투자회사, 연기금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공적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자산에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 모두 수탁기관 다양화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회사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기업연금의 경우 종퇴보험 운영경험에 따른 영향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기금은 장기투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장기투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수탁기관으로서의 잠재적 경쟁력과 브랜드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네티즌 설문조사에서도 노후보장기관으로서 이미지에 있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생명보험사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보험회사가 생활보장기관 및 장기투자기관으로서 우월적 브랜드이미지를 유지하고, 실제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전문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금까지 장기보험계약의 높은 해약률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기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회사가 연금시장의 주요 경제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기관에 적합한 투자전략과 투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금전문기관으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하고, 공적연금의 한계에 따른 노후생활보장 수요에 부응한 상품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

27) OECD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8년 기준으로 11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연금자산 중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은 1조 3,600억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28) 김헌수,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2000, pp123 124, 네티즌들은 노후복지를 위해 가장 거래하고 싶은 기관으로 생보사를 우선적으로 꼽아(46.2%) 은행(30.5%)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손보사는 2.2%로 나타남.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상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소비자 니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니드가 투자형 상품 선호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춘 변액연금 도입이나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대응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도 멀지 않은 장래의 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자금을 일시금이 아니 연금, 특히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은 보험회사만의 장점으로 종신연금을 통해 보험회사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건강보험시장의 급속한 확대

가. 의료비 증대와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

OECD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1997년 기준으로 17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여왔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은 3.8%에서 4.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7>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규모 추계

(단위 : 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국민의료비	581	2,604	11,171	32,328	70,151	135,859	154,281	170,134
GDP대비	2.1	2.5	2.9	3.9	3.9	3.9	4.0	4.1

자료 : OECD, Health Data, 1998.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증대는 질병발생의 빈도와 질병치료기간을 증대시켜 의료수요를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65세 노령인구의 의료비지출이 인구비중에 비해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29]. 암과 만성퇴행성질환, 치매 등 고액의 치료비와 치료기간이 긴 질병이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의료비의 심도 또한 깊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핵가족화는 가정 내 노인부양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더 이상 원활히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결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의료기술도 발전을 거듭하여 보다 고급화된 의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에서 공적 건강보험(과거 의료보험)의 보험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기준 32.6%로 공적 건강보험의 낮은 의료비 부담률로 의료비지출의 보다 많은 분야를 개인이 지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30]. 높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규모와 개인부담률의 과다가 민영 건강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험사가 판매하는 건강관련 상품의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의 주요 영위영역이 되지 못했던 것은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았던 제도적 문제와 리스크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공적 건강보험제도만을 염두에 둔 의료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으로 민영 건강보험제도의

29) 오영수, 이경희,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1999, p.4.
30) 오영수, 이경희,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1999, p.9, OECD 추계 의료비 17조원 중 보험급여비는 5조 5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음.

발전은 검토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노력이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국민들의 민영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영 보험의 역할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보장제도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영건강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건강보험제도에서 민영보험의 보완적 역할 증대

민영 건강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주요한 제도적 변화로는 공적 건강보험을 민영 건강보험을 통해 보완하는 제도의 추진, 장기간병보험제도의 도입, 기업복지체제의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공적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1989년에 이르러 농어촌 및 도시에 걸쳐 적용되는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실현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실시를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단일한 공적 건강보험제도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몇 가지 주요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소득수준의 증가로 의료니드가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저부담-저급여”의 골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니드의 고급화 경향 등에 의해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는 심화될 전망이다. 세째, 소득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이 통합되는 데 따른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료수가의 인상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귀결되어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의 구조를 고부담-저급여의 구조로 개악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계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함께 고액급여 및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조노력 또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의료보험의 2층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는 단일 공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환자 본인의 부담이 매우 크고,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의료욕구에 대응하며,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31]. 공적 건강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부가부분에 대해 민영보험회사가 보완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의료보험제도 개혁시 비록 구체적인 형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방안이기도 하다[32].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민영 건강보험제도의 활성화는 민영 건강보험을 통한 개인의 자조노력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핵심적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와 같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 상품을 넘어서 종합적인 건강보험시장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장기간병보험제도의 도입과 기업복지제공체제의 선진화도 민영 건강보험시장의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노인부양방식의 원활한 유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보완책으로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거

---

31)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2000년 11월까지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구체적 시행계획을 1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들은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2) 오영수, 이경희,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1999. pp.39 45, 독일의 민영의료보험, 미국의 메디갭(medigap), 의료저축구좌(Medical saving Accoun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이 불편한 노인간호를 위한 노인간병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 뿐 아니라 유럽국가들에서는 노령화로 노령인구에 대한 간병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예산상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병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33].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 도입은 이를 보완하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인병 치료와 관련된 보험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한 보완적 민영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제고로 기업을 통해 다양한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선진적인 기업복지 제공체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용인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의 제공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에 의한 민영 건강보험제공은 더욱 확대되어 민영 건강보험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다. 건강보험 시장의 전망과 보험회사의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민영 건강보험제도의 미비로 민영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의료비 급부로 지급된 보험금은 1조 5천 2백억원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며, 자동차사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면 5천 5백억원 규모로 추정된다[34]. 이 규모는 OECD 추계 국민의료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

---

33)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Deloitte Consulting(2000), *Year 2000 Top 10 Globla Insurance Industry Outlook*, pp.10, www.dc.com.

34)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의료비 관련 지급보험금 통계를 존재하지 않아 이원분석보고서와 요율검증보고서를 참조하여 생명보험의 입원, 수술 등과 관련된 순위험보험금,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의료비관련 지급보험금, 특종보험 중 상해보험의 의료비관련 손해액,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지급보험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을 통한 비용지출의 비중은 1994

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한 의료비의 높은 본인부담률로 민영 건강보험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민영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보험시장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기준으로 21.4%, 1999년 기준으로는 19.0%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상해/건강(Accident & Health)종목의 비중은 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손해보험종목 24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목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영보험회사가 사회전체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에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시장의 잠재력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35]. 우리와 유사한 공적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개인생명보험에서 의료관련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기준으로 6.9%로 나타나고 있다[36].

최근 암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질병치료 관련 보험상품 개발건수도 크게 증대하였다. 또한 최근 생명보험 성향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신상품개발의 제1순위로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건강보험상품을 꼽은 바 있다.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증대와 민영 건강보험을 활성화는 제도도입에 대응해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상품개발과 효율적인 운용시스템을

년에 9.0% 수준으로 추정된다. 오영수, 이경희(1999), p.86.

35) 류건식, 이경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2000. pp.36 37.

36) 日本保險研究所, 『Insurance 生命保險統計號』』, 1998, 생명보험회사들의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를 합하여 추산하였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영 건강보험제도 도입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건강보험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개발에 필요한 전국민 의료통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 건강보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전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투자형 보험상품과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가. 금융겸업화의 진전

금융분업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금융산업이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으로 금융분업주의를 철폐하였고, 일본의 경우 금융겸업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겸업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수요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소비자의 니드는 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서비스의 통합화가 가능해지는 제도변화와 함께 보다 다양해지고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업종별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해체되는 금융겸업화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범위 확대, 금융업간 제휴영역의 확대, 종합금융그룹 형성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는 타 금융업의 업무영위가 규제되는 고유업무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수업무의 범위 및 제휴 가능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

며, 종합금융그룹 형성은 자회사방식 및 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보험업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보험상품에 투자신탁서비스가 결합된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이 2001년 중 도입될 예정이며, 금융기관간 제휴의 확대와 금융그룹의 형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투자형 보험상품 수요 확대

변액보험은 지급보험금이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에 해당되는 부분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손익이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투자형 상품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투자형 상품의 종류로는 변액보험, 변액연금,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주가지수연동형 연금(이상 미국), 유닛 링크(Unit Linked), With Profit(이상 영국) 등이 있다. 변액보험은 미국에서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 하에서 현금관리계좌(CMA)나 MMF 등 증권사의 신종금융상품 도입으로 대량의 자금이탈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970년대 중반 경 도입되었고, 199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1998년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일반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9%에 이르고 있다[37].

미국 보험시장에서 투자형 보험상품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은 노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후 베이비붐세대의 노후대책을 위한 저축수요가 低金利·高株價의 금융환경 하에서 뮤추얼펀드 대중화를 배경으로 투자형 상품 선호추세를 보였고, 보험회사들도 과세상의 혜택 이외에도 상품 구조상 많은 유연성을 가진 투자형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투자형

37) 류건식, 이경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2000, pp55 56.

상품 선호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와 1950년 중반이후 출생한 전후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이러한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화 추세 및 직접금융시장의 확대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저축수요가 투자형 상품선호로 빠르게 변화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장기적인 저금리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낮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형 상품 수요가 감퇴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금리민감도 증대, 고수익추구의 증대, 간접투자상품의 활발한 성장으로 저축형 상품 수요가 투자형 상품 선호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고, 이는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나 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단위형 금전신탁 등의 수요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안정적인 금리가 보장되는 은행 예금계정과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보증형 저축성보험으로 금융수요가 재역전되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형 수요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로 판단된다.

이러한 금융수요의 구조전환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투자형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융통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권간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저금리, 고주가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권간 경쟁에서 심각한 자금이탈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도 도입 등 선진형 연금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투자형 금융상품의 운용역량은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형 상품의 도입은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예정이율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정이율 보증형 상품은 금리고정형이건 금리연동형이건 저금리추세와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심각한 금리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일본 보험산업에서 다이이치화재, 치요다생명, 교에이생명 등 중견

보험회사들이 법정관리상태에 놓인 것도 근본적으로 누적된 이차손의 결과이다.

저축성보험 위주의 시장구조는 보험수요의 합리화와 보장성보험에 대한 인식제고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적정한 구성비를 가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지만, 노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에 대한 보장 보다 생활의 유지를 위한 저축성 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세기에도 저축성 보험시장은 여전히 보험회사에 있어 주된 시장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질적 변화를 경험하여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은 현행 저축성 보험시장의 중대한 대체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종합금융서비스와 사용자편의에 대한 니드 확대

보험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미래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기준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 요인은 겸업화의 진행이다. 금융권간 제휴의 확대와 복합금융그룹의 형성 등 겸업화의 진행은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의 통합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니드를 변화시키고,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선택기준을 변화시킨다. 이전의 소비자는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구매하고, 저축상품은 은행에서 구입한다고 전제하고 있었다. 겸업화와 통합의 진전으로 소비자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기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누구이든 질 높은 상품, 경쟁력 있는 가격, 신뢰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l)법의 철폐 이후 유럽 금융기관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들이 미국의 경쟁 금융기관과 달리 소비자들에게 은행과 보험상품을 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통합서비스의 제공역량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는 전쟁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통합적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은 금융기관간 경쟁의 차원을 벗어나기도 한다. 이미 유통기업과 인터넷기업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소비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Stern Marketing Group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0% 이상이 현재의 은행보다 인터넷증권회사인 찰스 스왑(Charles Schwab)과 결합한 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금융기관들은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요증대, 저축형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으로의 수요전환, 장기간병보험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합병, 제휴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산업의 특성상 신상품의 개발과 통합적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쉽게 모방될 수 있고, 소비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금융서비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및 서비스의 통합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상품의 개발·판매자로서가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신뢰할만한 자문자(Adviser)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의 통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문을 제공하고 모든 종류의 금융 니드에 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니드는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편리한 접근성에도 있다.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전통적인 판매채널의 혁신 또한 소비자 니드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척해야 할 보험회사의 새로운 과제가 된다.

---

38)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Deloitte Consulting(2000), *Year 2000 Top 10 Globla Insurance Industry Outlook*, pp7 8, www.dc.com

5.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요의 변화

생명보험 상품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환경과 보험환경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생보사들의 과거 상품개발 패턴을 살펴보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했던 1970년대에는 생활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한 보험기간 5년 이하의 단기양로보험과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이 주된 대상이었다. 또한 1977년 기업의 퇴직금 적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이후 단체보험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2년 6월 28일 단행된 금리인하 조치로 단기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축소되자 이의 대체상품으로 탈퇴형 상품을 개발하였다. 1987년 외국 생보사의 국내 진출, 은행의 연금상품 판매개시 등 경쟁환경에 대비하여 생보사에서는 노후설계연금보험과 가정복지보험 등과 같은 금리연동형 보험을 개발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신설 생보사들의 성장전략으로 저축성상품 판매가 적극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축성상품의 높은 부담금리 때문에 많은 생보사들이 동 상품의 판매를 자제하는 가운데 보장성보험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7년말 IMF 체제를 계기로 저보험료로 고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 등 수요측 요인과 보험회사의 경영내실화 추진이라는 공급측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보장성보험 특히, 제3분야 보험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Ⅴ-8>에서 보듯이 1995년 이후 국내 생보사들이 개발한 상품 중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과는 달리 동 상품의 증가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8> 보험종류별 상품개발 구성추이

(단위 : 종, %)

구 분	개 인 보 험					단 체	총 계
	교육	연금	생사혼합	보장성	소계		
1994	10 (-23.1)	86 (405.9)	3 (-80.0)	45 (18.4)	144 (73.5)	12 (71.4)	156 (73.3)
1995	5 (-50.0)	33 (-61.6)	7 (133.3)	93 (106.7)	138 (-4.2)	20 (66.7)	158 (1.3)
1996	12 (140.0)	69 (109.1)	39 (457.1)	142 (52.7)	262 (89.9)	29 (45.0)	291 (84.2)
1997	2 (-83.3)	30 (-56.5)	63 (61.5)	181 (27.5)	219 (-16.4)	56 (93.1)	275 (-5.5)
1998	6 (200)	20 (-33.3)	57 (-9.5)	191 (5.5)	274 (25.1)	37 (-33.9)	311 (13.1)
1999	0 (0.0)	23 (15.0)	19 (-66.7)	221 (15.7)	263 (-4.0)	27 (-27.0)	290 (-6.8)
2000上	1 (100.0)	29 (123.1)	30 (114.3)	175 (15.1)	235 (31.3)	26 (-3.7)	261 (-10.0)

주 : 1. 특약은 제외함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상품운용현황』, 각 연호, 내부자료.

이상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생보사들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의 보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우리 나라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주력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지속적인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종신보험(Whole Life)에 대한 수요증가도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는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만 하는 有期納 종신보험, 평생동안 납입하는 終身納 종신보험, 계약시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불입하

는 一時納 종신보험의 3종류가 있다. 종신보험의 특징은 사망보장 니드에 대응한 보험이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사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책임준비금은 매년 증가한다. 평생에 걸쳐 사망보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축적된 현금가치(cash value)를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신보험이 개발되어 개인보험 상품의 주력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유계약건수 기준으로 개인생명보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기준으로 63.1%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32.1%에 이르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보유계약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은 52.6%, 일본은 70.4%에 이르러 개인보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Ⅴ-9> 미국 및 일본의 종신보험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3	1997
미 국	건수기준	79.7	80.8	63.1
	금액기준	50.6	62.0	52.6
일 본	건수기준*	23.6	28.1	32.1
	금액기준*	58.1	66.6	70.4

주 : * 1990년 기준임.
자료 :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각 연호.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 Book』, 각 연호.

전통적인 종신보험은 배당 및 무배당 모두 가능하다. 배당상품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의 잉여금을 배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배당상품과 마찬가지로 계약자는 지급보험금 및 제경비를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배당금을 받게 된다. 199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일반생명보험계약 중 배당상품이 33.2%, 무배당 상품이 66.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종신보험 이외에도 보험사들은 상이한 보험료 납입 패턴 및 상이한 현금투자옵션(different cash value investment options)을 가능한 상품들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상품들로 변액보험

(variable life), 유니버셜보험(universal life) 그리고 변액유니버셜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이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 및 현금가치는 개별 계좌의 투자성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액생명보험은 액면보험금이 최저 사망급부 이상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미국의 유효 변액생명보험은 1,120억달러이며, 그 중 166억 달러가 1997년 한해동안 판매된 것이다. 유니버셜보험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처음 개발되었는데 이 보험은 보험료가 변동하는 상품으로 계약자는 사망급부 및 보험료 납입시기, 금액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인종신보험을 4가지로 구분하여 1997년 기준으로 기타 전통적 종신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유니버셜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종신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조정생명보험(adjustable life)이 있는데 정액보험료형의 전통적 생명보험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결합한 보험이다.

<표 Ⅴ-10> 미국 개인종신보험 상품비중 추이

(단위 : 천건, 백만달러, %)

구 분	보유계약건수	건수비중	보유계약금액	금액비중
정액보험료변액보험	1,035	0.8	87,649	1.0
전통적 종신보험	79,281	58.2	2,276,648	26.8
유니버셜보험	23,760	17.4	2,128,217	25.0
변액유니버셜보험	5,139	3.8	1,096,193	12.9
개인종신보험계	109,216	80.1	5,588,707	65.7

주 : 전통적 종신보험에는 limited payment, continuous premium, joint whole life, single premium, adjustable life 및 monthly debit ordinary 계약이 포함됨.

자료 :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1999.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정기부종신보험이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종신보험에 정기보험(특약)을 부가하여 사망보장을

고액화한 보험상품이다.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친 사망보장 니드에 대응한 상품이지만 한창 일할 전성기에 싼 보험료로 고액보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 상품의 특징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구성비율에 따라 사망보장을 중시하는 설계를 하거나 또는 종신보장·노후자금을 중시하는 설계도 가능하여 自在性이 풍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싼 보험료로 고액사망보장 니드'와 더불어 '한평생에 걸친 보장에 대한 니드'가 강화된 결과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종신보험과 함께 개인보험상품의 주류가 되고 있다.

<표 Ⅴ-11>에서 보듯이 정기부종신보험의 비중은 보통종신보험의 비중을 건수기준으로는 3배 이상, 금액기준으로는 10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1> 일본의 정기부 종신보험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3	1995	1997	1998
건수기준	종신보험	7.5	8.0	7.6	8.5
	정기부종신	23.6	21.6	24.5	24.9
	계	31.2	29.6	32.1	33.4
금액기준	종신보험	7.9	6.6	6.0	6.5
	정기부종신	58.7	60.1	64.4	64.0
	계	66.6	66.7	70.4	70.5

주 : 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 Book』, 각 연호.

우리 나라의 경우 종신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사들의 전유물처럼 간주되어 과거에는 국내사들에 의한 판매는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대형 생보사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가격자유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대형 생보사들이 그 동안 고소득층(의사,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종신보험상품의 위험률 및 사업비율을 대폭 할인 또

는 인하함으로서 가격경쟁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사는 외국계 생보사의 대졸 남성조직(재무설계사)이 아니라 일반 설계사를 중심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종신보험시장은 발전 초기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종신보험이 개인보험 시장의 주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 구조가 미국이나 일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속한 비중 확대는 어렵겠지만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보험의 고유기능에 충실한 보장성보험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보사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예: 변액종신, 정기부종신 등)이 관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6.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가.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진전

세계경제는 거대 기업들의 전세계적 효율성 추구에 따라 글로벌화라는 메가트렌드를 지속하고 있으며,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는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산업은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합하는 보험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산업외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위험의 분산, 효율성 증진 등과 같은 자체적 필요에 따라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상품, 요율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노하우(know-how)를 이용하여 신흥시장의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무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특히 손해보험 산업의 경우 위험의 국가간 분산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Ⅴ-12> 신흥시장의 외국보험사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정도

구 분	제한적인 지분참여 허용	과반수 이상의 지분참여 허용	100%참여/ 자회사 설립	대리점/ 지점
중 국	○[2]	×	×	○[2]
인도네시아	○	○	○	×
말레이시아	○(최대30%)	×[3]	×	×
필 리 핀	○	○(최대51%)	×	×
한 국	○	○	○	○
대 만	○	○	○	○
태 국	○(최대20%)	×	×	×
아르헨티나	○	○	○	○
브 라 질	○	○	○	×
칠 레	○	○	○	×
멕 시 코	○	○[4]	○[4]	×
폴 란 드	○	○	○	○[5]
러 시 아	○	×	×	×
헝 가 리	○	○	○	×

주 : 1. ○ 허용, × 불허
2.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3.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합작사에 대여 51% 한도 허용.
4. NAFTA 회원국에만 적용. 그 외 국가에 대하여는 최대 49%.
5. 재무장관의 인가가 필요.

자료 : Swiss Re, *Sigma*, No. 4/2000.

이러한 현상은 거래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서비스 제공, 포화상태에 이른 선진국 시장, 규모의 경제실현 등과 같은 선진 대형 보험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보험담보 필요성 증대 그리고 신상품 및 신위험에 대한 보험수요 증대라는 신흥국가들의 요구와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 및 중부 및 동부유럽의 경우 해외 원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7% 및 41%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 평균 12%로 낮게 나타

나고 있지만, 시장개방의 정도가 미미한 중국 및 러시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 보험시장의 글로벌화 역시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 증대

1) 아시아 시장의 규모 확대

Swiss Re에 따르면 1998년 세계 보험료 규모는 2조 1,550억달러로 1997년에 비하여 1.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 산업의 경우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 북미대륙 및 유럽의 과잉 담보능력(overcapacity), 일본 및 유럽의 규제완화에 따른 보험료 경쟁심화, 동남아 외환위기 그리고 일본 엔화 및 유로화의 평가절하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동기간 동안 세계 수입보험료의 91%를 점하고 있는 일본(-5.4%), 서유럽(-0.2%) 및 북미(0.9%) 국가들의 보험산업은 성장 정체 내지는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보험시장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선진국 보험시장과는 달리 동남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보험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메가트렌드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아시아의 근대화를 꼽을 만큼 아시아 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과거 성장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업화의 이륙단계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발전의 탄력이 붙을 경우 성숙단계의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Ⅴ-13> 1998년 동남아 국가들의 보험산업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USD, %)

구 분	손 해 보 험			생 명 보 험		
	보험료	실 질 성장률	GDP대비 보험료	보험료	실 질 성장률	GDP대비 보험료
중 국	6,019	12.8	0.6	8,225	25.1	0.9
인도네시아	666	7.8	0.7	487	18.5	0.5
말레이시아	1,404	9.1	2.0	1,592	14.0	2.2
필 리 핀	446	3.2	0.7	473	8.1	0.7
한 국	10,171	12.1	3.2	33,103	7.7	10.3
대 만	2,351	1.6	0.9	15,146	12.7	5.8
태 국	1,190	8.5	1.1	1,323	7.9	1.2

자료 : Swiss Re, *Sigma*, No. 4/2000.

2) 아시아 국가의 보험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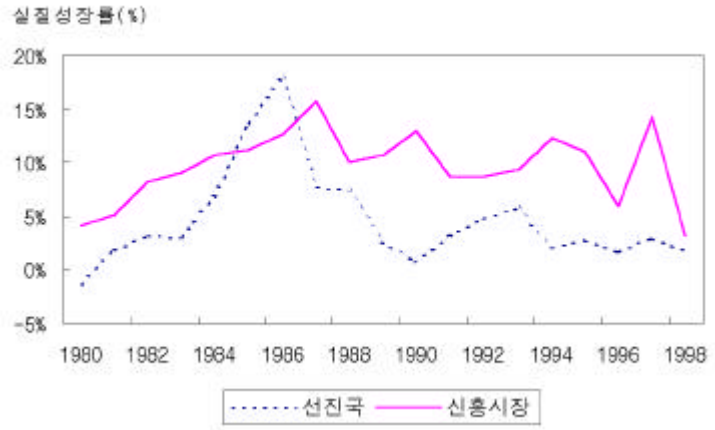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세계보험료 비중은 8%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곳이기도 한다.

신흥시장의 보험산업은 인구규모, 낮은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 중산층의 성장, 세제 및 연금제도의 개혁 그리고 보험회사를 포함한 공기업의 민영화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선진국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단계에 있으며 1990년대 초에 시장개방을 추진하여온 남미 및 동유럽과는 달리 통화위기 이후 시장개방 및 경쟁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규제완화 및 자유화가 진척되고 있다. 또한, 자본력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해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어 향후 개방화 및 자유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림 Ⅴ-1> 선진국 및 신흥시장의 보험료 성장률 추이



동남아 국가들의 보험시장은 생명 및 손해보험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손해보험 산업의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으로 재무력을 갖춘 대형사의 시장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상위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30 40%에 불과한 정도이다.

반면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시장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사의 진입이 제한적인 국가들의 경우 소수의 국영보험사가 국내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사의 진입이 허용된 국가들의 경우, 브랜드 파워, 가격,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중국의 경우 국영 생보사인 PICC의 시장 점유율은 70%(1998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사의 진입이 허용된 태국의 경우 AIG사가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47%를 점하고 있다.

<표 Ⅴ-14> 1998년 신흥국가의 보험산업 구조

구 분	손 해 보 험		생 명 보 험	
	보험회사 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	보험회사 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
중 국	12	98.7	8	99.2
인도네시아	103	42.0	61	71.9
말레이시아	53	27.9	18	70.7
필 리 핀	106	33.5	38	77.3
대 만	28	50.2	32	80.5
태 국	73	36.8	25	90.9

자료 : Swiss Re, *Sigma*, No. 4/2000.

3) 중국의 고도성장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98년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2억 인구 중 99.5%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성장잠재력과 함께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예상되고 있어 세계 주요 보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표 Ⅴ-1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연 도	GDP 성장률 (%)	GNP (십억USD)	1인당 GNP (USD)
1995	10.2	686	572
1996	9.7	813	667
1997	8.8	893	726
1998	8.0	981	785
1999	7.8	1,100	871

중국시장 진입은 신흥시장 진입이라는 보험산업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목적과 함께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보험사들 역시 재무력 강화를 위해 외국사와 합작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중국보험시장 규모는 170억 USD에 불과하지만 연 2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인구의 20%가 속해있는 시장임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23%에 달하는 연평균소득 증가율과 중산층의 확대에 힘입어 생명보험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Ⅴ-16> 美·中 보험시장 비교

구 분	중 국	미 국
손해보험 보험료(백만USD)	$5,872	$280,000
인구(백만)	1,247	270
1인당 보험료(USD)	$4.70	$1,037
인가 보험회사 수(생보 및 손보)	14	1,620

특히 1999년 11월에 있은 美·中 협약에 따라 WTO 가입 이후 경제적수요심사(ENT)제도 폐지, 지역적 제한 철폐, 보험사 지분보유 확대 허용, 재보험시장 전면 개방, 외국사에 대한 단체보험판매 허용 등의 대폭적인 개방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보험사들의 중국 시장 진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보험시장 확대

가. 북한 보험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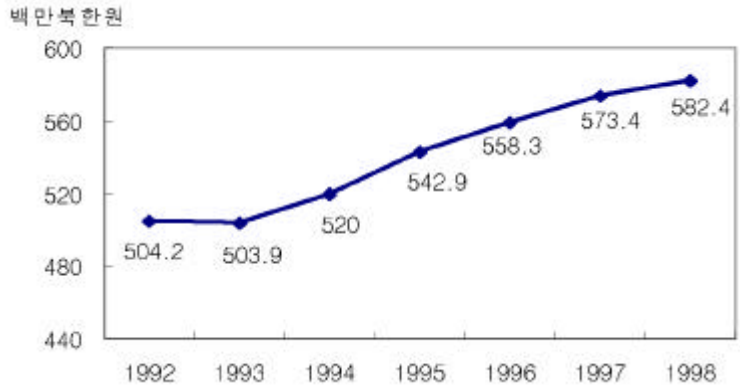
북한의 보험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생산활동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북한 내에는 민영보험사가 존재하지 않고 보험산업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생명보험 산업은 '조선중앙은행'이, 국제보험 및 손해보험 산업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북한 유일의 보험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의 1999년 영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전 지역에 208개의 지점과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파리, 함부르크, 바젤, 카라치, 멕시코, 런던 등에 해외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생명보험에 관한 자료나 보험요율, 보험료 규모에 관한 통계적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나, 북한의 경제력 및 평균소득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총 5억 8천2백만원으로(북한원, 약 2.6억 USD) 전년대비 1.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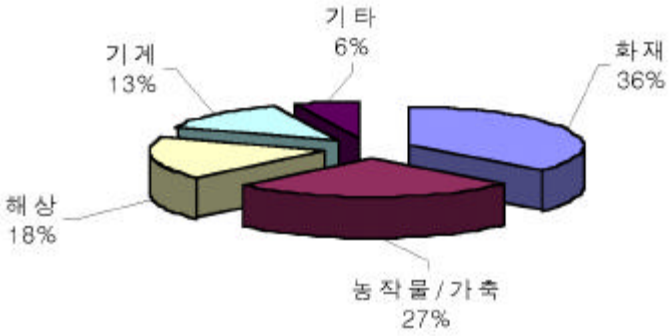
<그림 Ⅴ-2>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료 추이



주 : 1994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Annual Report*, 각 연호.

북한 손해보험의 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한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물/가축보험이 27%, 해상보험이 18%, 기계보험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보험의 구성비율은 북한의 산업구조 및 민간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계획경제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Ⅴ-3>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구성비



나.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 전망

통일은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개성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북 투자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남북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간 대비 21.9% 증가한 2억 28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사회보장비, 구조조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고속도로와 철도 등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 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기술보험, 근재 및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현재 북한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는 해상적하보험, 남북주민왕래보험, 경수로 건설공사 관련 보험 등 일부 상품만이 판매되고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역 및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화재, 해상, 근재, 배상책임보험, SOC 투자와 관련한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한 기술보험 그리고 주민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른 상해 및 개인배상을 포함한 종합보험의 상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배상책임 수요증대 및 ART시장 활성화

가. 배상책임 수요증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력을 갖춘 가격비교가 가능한 소비자의 출현은 판매부분의 경쟁격화를 유발하여, 시장의 힘을 공급자 우위에서 소비자 우위로 역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네트워크의 전파속도를 이용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제품 또는 기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경우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이미지 보험 등과 같은 신상품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권리의식 고양과 함께 2002년 7월 시행예정으로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동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리콜담보상품 등 관련 상품들의 수요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보험이 일반배상책임보험의 9%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동 법 시행을 전·후하여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Ⅴ-17> 미국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추이

(단위: 천달러, %)

연 도	생산물배상		기타 배상책임 보험		일반 배상 전체보험료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1995	1,763,833	9.5	16,871,443	90.5	18,635,276
1996	1,837,539	9.4	17,780,646	90.6	19,618,185
1997	1,745,788	8.7	18,369,591	91.3	20,115,379
1998	1,607,661	8.5	17,414,795	91.5	19,022,456
1999	1,580,401	8.4	17,184,451	91.6	18,764,852
계	8,535,222	8.9	87,620,926	91.1	96,156,148

자료 : A.M.Best, *Best's Aggregates&Averages Property-Casualty*, 2000.

나. 보험상품의 증권화

대체위험시장(Alternative Risk Transfer)은 보험시장에서 비전통적인 대체시장으로 전가하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보험영업위험을 보험시장이 아닌 자본시장의 투자위험(investment risk)으로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문은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으로서 다양한 위험분산을 통한 보험회사의 안정성 확보, 고정가격으로 다년간 계약체결 가능 등의 이점을 제공하며, 특히 재보험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경성시장(hard market)인 경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대체위험시장에 대한 보험 및 투자기관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1999년 현재 11억 USD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시장의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의 총 규모가 2004년에는 약 150억 US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Ⅴ-18> 재보험과 대재해채권(Cat Bond)의 비교

구 분	대재해초과손해액재보험	대재해채권
목 적	보험시장에서 위험분산	자본시장에 위험 전가
담 보 력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	잠재적으로 충분
가 격	개별적	개별적
만 기	1년	5 10년의 중장기 가능
감독규제	허용	불확실
기 타	시장상황에 변동, 신용위험존재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복잡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대재해채권의 발생실적은 없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1999년의 경우 약 1조 9천여억원에 달하며, 산업의 집중화, 고부가가치화로 인하여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자연재해보험 등 거대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등과 같은 보험상품의 증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 역외보험시장(Cross-Border)의 성장

금융 및 자본자유화는 자본이 그 속성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운용 시스템을 찾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 낮은 거래 및 정보획득 비용으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상대자를 국제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 및 기술여건의 변화는 역외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자유화 단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재보험에 대한 출재의무 폐지를 시작으로 하여, 합작사 및 지점의 설립 허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상품의 Cross-Border 판매허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Ⅴ-4> 보험산업 자유화 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 역시 보험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글로벌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Cross-border 거래 역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Cross-border 거래에 대한 자료이용이 가능한 10개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전체 보험산업 중 Cross-border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영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중만으로 볼 경우 룩셈부르크가 87.1%로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 및 화폐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EU 국가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19> 각국의 Cross-border 거래 규모

(단위 : 백만USD, %)

구 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전 체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영 국	13,371	23.4	-	-	13,371	7.4
룩셈부르크	289	37.8	4,612	94.8	4,900	87.1
벨 기 에	1,641	18.9	146	1.6	1,787	10.1
프 랑 스	1,132	2.7	64	0.1	1,196	1.0
독 일	1,036	1.3	63	0.1	1,099	0.8
남아프리카	29	0.7	711	3.4	739	3.0
아 일 랜 드	551	19.5	-	-	551	7.2
이 탈 리 아	229	0.8	16	0.1	245	0.4
싱 가 포 르	114	11.1	-	-	114	2.8
요 르 단	11	8.5	1	2.6	12	7.6

자료 : Swiss Re, *Sigma*, No. 7/1999.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 가입을 전·후하여 생명 및 손해보험에 대한 Cross-border 계약을 허용한 바 있다. 당초 국제기구의 요청과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자발적 요인과 함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방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Cross-border를 이용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 및 제도적 난

점으로 이를 통제·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의 Cross-border 거래가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보험산업의 자유화, 거래비용의 감소, 경제의 글로벌화 등이 진전됨에 따라 Cross-border 영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

가. 보험산업에서 전자상거래의 도입

보험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정부가 무역업무의 간소화와 신속화,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1년 12월에 제정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보험망의 연계를 통한 적하보험업무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운영은 아직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험가격 및 보험상품 정보제공 서비스, 대출 및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일부상품 판매 등과 같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타 금융업종에 비해서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기존의 판매조직과의 관계에 따른 법적인 문제,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보험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는 사이버 보험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최저자본금 요건이 완화되었고 금년 4월부터 보험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도록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시대의 도래에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최근 보험회사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판매에는 주로 TM(Tele marketing), DM(Direct Mail), CM(Cyber Marketing)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상품이 TM을 이용한 판매방법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Ⅴ-20> 생·손보사의 사이버 보험판매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98		1999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생명보험	0	0	312,168	763,009	312,168	763,009
손해보험	934	289,050	7,538	4,454,439	8,472	4,743,489
합 계	934	289,050	319,706	5,217,448	320,640	5,506,498

주 : 1. 계약체결은 방문 또는 우편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사이버를 통하여 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한 실적포함.
2. 2000.3.31 현재 사이버상에서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진 실적은 없음.
자료 :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최근까지 정보통신에 의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집계에 의하면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판매된 신계약 건수의 2.7%(FY1999. 9월말, 이하 同一統計)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3.8%(FY1998, 이하 同一統計)를 점유하고 있어 아직 보험계약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보험회사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특징을 보면 첫째, TM의 경우 판매한 상품의 신계약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각각 64.2%와 95.7%로 과반수 이상이 TM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DM의 경우 생명보험의 판매비중(35.6%)이 손해보험의 판매 비중(4.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초기단계에서는 생명보험이 DM을 이용한 상품판매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통신에 의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계약건수에 비하여 수입보험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험상품의 판매시 저가형 보험료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생명보험의 판매된 계약건수의 비중이 1996년

0.14%에서 1999년 9월말 2.7%의 점유율을 보여 정보통신에 의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성장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9].

나. 국내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판매 전망

최근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총 37개의 보험회사 사이버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40]에 따르면, 5년 후 2005년의 정보통신의 보험상품 판매비중에 대하여 생명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사망보험이,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여행보험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 설문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비중이 생명보험의 경우 2002년에는 건강보험과 사망보험에서 10% 정도로 전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표 Ⅴ-21> 향후 생명보험 종목별 정보통신판매 비중

(단위 : %)

연 도	건강	교육	사망	저축형	양로	종신	연금
2000년	3.59	0.85	1.65	0.85	0.85	0.15	0.85
2002년	13.15	4.54	9.15	5.08	4.92	5.85	7.23
2005년	26.69	12.77	25.23	8.15	7.00	14.31	13.92

자료 : 국내 원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러한 순위는 2005년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비중에도 나타났는데 특히, 건강보험과 사망보험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대부분의 응답회사가 전망하였으며, 교육보험,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에 대해서

39) 보험개발원, 「보험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와 미래」,『보험동향 통권 제12호』, 1999. 12, p.4.

40) 안철경 외,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과 효율적 활용방안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3.

도 10% 이상이라고 한 응답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저축보험, 양로보험에 대해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2000년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에 있어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응답자가 전 종목에 걸쳐 거의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판매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응답회사가 많아져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보험에서의 비중이 20% 수준까지 예상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2005년의 판매비중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여행보험에 대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판매비중이 50% 이상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회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보험종목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Ⅴ-22> 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정보통신판매 비중

(단위 : %)

연 도	자동차	장기	상해	해상	화재	여행	책임
2000년	2.40	0.63	0.63	1.25	0.00	1.88	0.00
2002년	19.80	4.81	12.13	10.75	4.75	26.50	8.38
2005년	50.88	12.25	29.13	22.88	12.00	44.13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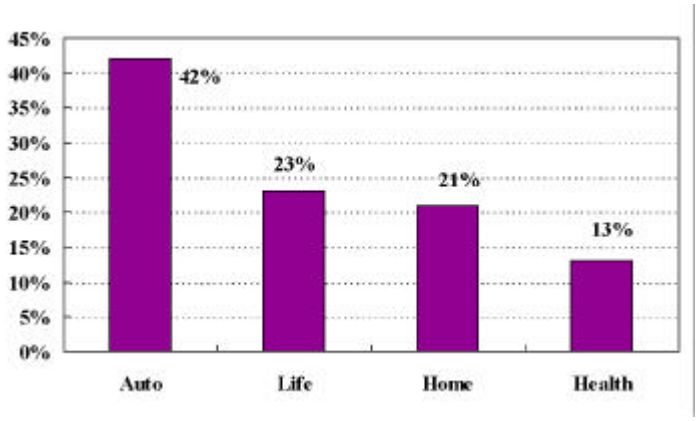
자료 : 국내 원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전망

미국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가 발간한 *Future Shock: E-Commerce & the Insurance Industry*에 의하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 구매 예상종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자동차보험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응답결과 자동차의 경우 42%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관련상품 23%, 주택보험 21%, 건강보험 13%의 순으로 구매할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Ⅴ-5>참조).

<그림 Ⅴ-5> 온라인 보험상품의 구매 예상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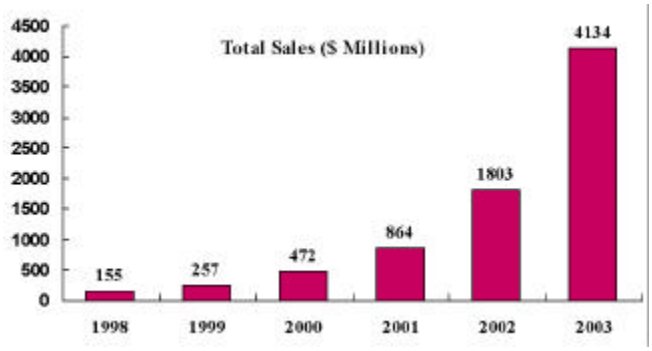


Source: IVANS, Inc

동 보고서에는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3년 기간의 온라인상의 보험상품 판매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02년 2003년 기간동안 가장 높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판매연도별 전망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의한 판매가 1998년에 1.6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26.7배 증가한 41.3억달러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동 상품들에 대한 판매는 2001년에서 2003년 동안에 가장 높은 증가율(129.3%)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Ⅴ-6> 자동차/주택보험/생명보험의 온라인 판매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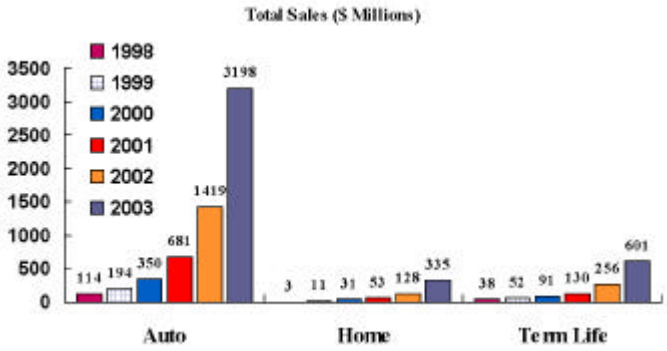


Source: Forrester Research

한편,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및 정기생명보험에 대하여 온라인에 의한 판매를 각각 전망하였는데 그 결과 자동차보험이 온라인 판매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온라인 판매에서 74% 7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에 1.1억달러에 불과한 판매액이 2003년에는 무려 28배 증가한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보험과 정기생명보험의 경우에는 2003년 온라인에 의한 판매비중이 각각 8.1%와 1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가 미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7> 연도별 온라인 판매량 전망



Source: Forrester Research

라. 세계 금융기관 CEO의 인터넷 보험상품의 판매 전망

최근 Andersen Consulting이 세계 213개 사의 생명보험사 등의 CEO를 대상으로 향후 인터넷에 의한 생명보험 시장변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41].

동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가 향후 2005년까지 인터넷에 의한 생명보험의 판매가 급성장하여 自國의 전체 생명보험 판매의 16% 19%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84%가 인터넷에 의한 영향으로 향후 2005년에는 기존의 판매채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흥부유층이나 Mass Market, 개인사업자의 세분된 고객층이 형성되어 인터넷에 의한 판매방식이 유력시된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신흥부유층은 가장 매력적인 틈새시장으로 이들에게는 투자신탁형 상품이나 보장성상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전망하였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보험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향후 2002년까지 평균 5% 10%의 판매채널의 비용이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 전체의 4% 8%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이 유력시되는 업무기능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마케팅 및 신규 고객의 개척 비용, 65%의 응답자가 신규 계약업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에 의하면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한 생명보험산업의 향후 판매채널 변화에 대하여 응답자의 72%가 향후 2년 동안 영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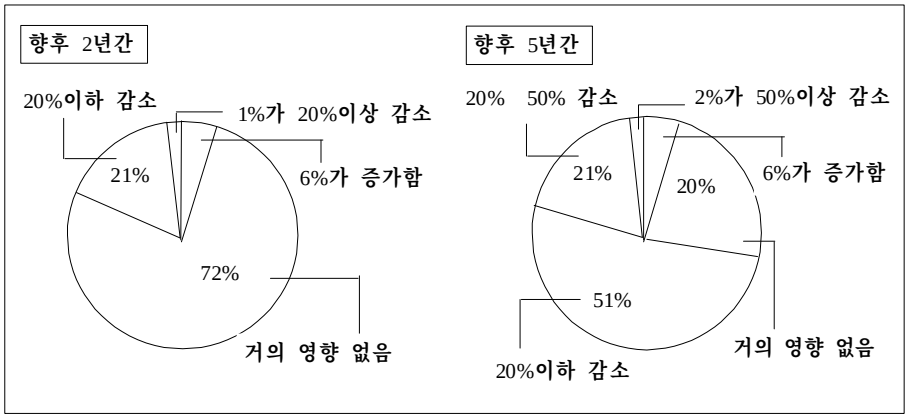
---

41) 保險每日新聞(損保版), 2000. 8. 12. 9. 13, 미국의 Andersen Consulting과 LOMA(Life office Management Association)가 공동으로 「e-Economy 環境下의 生命保險市場의 勝者」를 2000년 5월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미국이 52%, 호주 23%, 유럽 9%, 캐나다 및 남미 각각 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설문대상은 세계 213사의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명보험사가 91%, 온라인·은행·자산운용회사·증권브로커가 7%, 기타가 2%의 구성비를 보였다.

없을 것이나 응답자의 74%가 향후 5년 동안 기존의 채널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5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가 20% 50%의 판매 채널의 수가 감소할 것이며, 또한 51%가 20%이하의 감소, 2%가 50% 이상의 감소를 전망하였다.

<그림 Ⅴ-8> 인터넷에 의한 판매 채널수 변화
(대리점, 브로커, 보험모집인)



마.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종합전망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조사된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각 기관의 공통된 의견은 향후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생명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여행보험, 주택보험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보험종목들은 향

후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본격적인 가격자유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비 절감과 판매채널 다양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은 금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전용 보험회사의 설립과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의 허용에 따라 본격적인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회사의 수준은 아직까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가격 및 보험상품 정보제공 서비스나 대출 및 재무상담 서비스의 제공, 제한된 보험상품판매 등 전자상거래의 초기단계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주로 저가형의 보장성 보험상품 위주 제한된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등 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소비자의 친화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중소형사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 의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손해보험사에 의한 저가형 자동차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직접판매를 주축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설립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험회사의 전자상거래 도입이 비록 타 금융권에 비하여 다소 낙후되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나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한 온라인상의 상품판매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보험회사의 내부여건을 고려하는 등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과 같은 기존의 판매조직에 대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상품판매에 있어서는 초기투자가 적고, 보험료가 저렴한 질병 및 상해보험 등과 같은 특화된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사망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상품

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역선택으로 보험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기체력에 맞는 상품개발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언더라이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근 손해율이 악화된 직접판매회사인 미국의 Progressive사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 보험산업은 19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보험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보험관계 법률이 보험업법으로 통합·정비되면서 보험금 지급절차의 개선, 보험약관의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개편이 마련됨에 따라 급속한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의 우리 나라 경제는 국제경제의 소위 3低현상에 힘입어 수출시장의 호황에 따른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보험산업도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1990년대에도 이러한 고성장세는 1997년 말의 IMF체제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과거 외형성장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IMF체제를 계기로 보험산업의 개방화, 국제화, 자유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의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재무건전성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우리 나라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궤도에서 안정적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급변하게 변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경영전략 수립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사들의 장기적인 경영전략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 보험산업의 성장추이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향후 10년간 국내 보험산업의 주요 지표를 전망하였으며, 향후에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추이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손보 공히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을 채택함으로서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IMF 체제를 계기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내실경영 위주의 전략으로 선회함으로서 과거보다는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수익성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임으로서 생·손보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시장에서의 연금보험의 성장률은 다른 종목보다도 놀라운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생명보험시장에서 점유비가 점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예전의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경기가 장기간 침체국면으로 치달았고 이에 따라 수입보험료의 성장률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의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과 생보사들의 잇단 파산으로 생보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와 미국 및 일본 두 국가의 보험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해 본 결과 많은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이전까지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보험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고성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기준으로 보험의 소득탄력성은 생·손보 각각 0.04, 0.05에 불과하여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수입보험료는

거의 정체수준을 보여 보험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보험의 소득탄력성은 최근 10년간 우리 나라보다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요의 큰 폭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험산업도 과거와 같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나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 1인당 지출보험료)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즉, 과거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서 동 지표들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지만 향후 이러한 추세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의 절대규모도 증대하겠지만 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탄력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볼 때 보험종목 중에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 탄력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시현하는 종목들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추이를 외국과 비교해 본 결과를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장기채권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채권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대출위주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IMF 체제 이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대손충담금에 대한 적립부담이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유가증권 투자가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험계약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채권시장이 조성되어 있어 보험사들은 채권투자의 비중을 항상 50% 전후에서 유지해 왔으며, 주식은 시장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장기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국내금리가 워낙 낮아 해외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높다. 일본 생보사들의 해외유가증권 수익률은 1996년 이후 국내의 채권수익률보다 1.5배 이상의 고수익률을 시현함으로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 역마진의 위험을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보험사 자산운용의 중요성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국내 보험사들도 자산운용기법 개발, 조달금리 안정화, 해외투자 증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산업 중장기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2010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와 국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위험의 다양화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FY1999 FY2005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 FY2006년 FY2010년 기간은 5.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과거보다는 매우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및 단체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87.2조원의 실적을 보여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2010년에는 27.1조원의 실적을 보여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보여 생명보험의 성장률보다는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침투도는 손해보험의 침투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7%로 전망되는데 이는 1999년보다 2.0%p 감소된 것이다.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개인보험 중심의 생명보험산업은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단체보험의 역할이 상당 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보험분야에서는 연금과 투자형 상품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수요가 재편되는 가운데, 보험인식 제고에 따른 사망보험의 성장도 꾸준히 이어져 사망보험의 비중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

여 보험종목별 비중에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합친 개인 저축성 보험 분야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대신 단체보험과 개인사망보험의 비중이 증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점유비중을 살펴보면, 보증보험이 큰 폭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부문의 점유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체의 20%)되는 반면, 지난 10여년간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온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40%수준으로 비중이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추세를 보험수요의 관점에서 전망해 보면, ① 보험수요 특성의 구조적 변화이다. 보험가입률 수준 뿐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지출규모 등의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서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보험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의 결정에 있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고학력화, 보험인식 제고, 보험수요 세대의 하향추세 등으로 자발적 보험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수요 변화,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의 선호추세가 뚜렷해 질 전망이다. 특히 1, 2차 베이비붐세대가 주보험수요 세대가 됨에 따라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연금시장의 성장이다. 노령화추세와 함께 공적 연금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재정상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민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정비와 개인연금제도의 확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기업연금분야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하에서 사내 유보된 퇴직금을 대체하는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개인연금 분야의 경우에도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입하고 싶은 보험으로 연금보험을 선택한 비율이 4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생활보장기

관 및 장기투자기관으로서 우월적 브랜드이미지를 유지하고, 실제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전문기관으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공적연금의 한계에 따른 노후생활보장 수요에 부응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③ 건강보험시장의 급속한 확대이다. 의료비 규모는 GDP의 4%를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증대, 만성퇴행성질환 증대, 노인간병수요의 증대,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고급의료수요 증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간병보험제도의 도입, 기업복지체제의 개편도 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 성향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신상품개발의 1순위로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의료보험보완보험상품을 꼽았는데 이러한 것도 향후 건강보험시장의 활성화의 큰 요인으로 전망된다.

④ 투자형 보험상품과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확대이다. 노령화와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상품수요를 저축성 중심에서 투자형으로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고,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투자형 상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저금리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낮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형 상품수요가 감퇴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금리민감도 증대, 고수익추구의 증대, 간접투자상품의 활발한 성장으로 저축형 상품수요가 투자형 상품선호로 급속히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겸업화와 금융기관간 통합의 진전으로 소비자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기관의 구분에 상관없이 얼마나 질 높은 상품, 경쟁력 있는 가격, 신뢰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신뢰할만한 자문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⑤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수요의 변화이다. 현재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주력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지속적인 판

매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종신보험(Whole Life)에 대한 수요증가도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신보험이 개발되어 개인보험상품의 주력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종신보험 시장은 발전 초기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종신보험이 개인보험 시장의 주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예: 변액종신, 정기부종신 등)이 향후에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⑥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이다. 현재 과잉 담보능력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보험시장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곳으로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예상되고 있어 세계 주요 보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⑦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보험시장 확대이다. 향후 남·북간의 교역 및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화재, 해상, 근재, 배상책임보험, SOC 투자와 관련한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한 기술보험 그리고 주민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른 상해 및 개인배상을 포함한 종합보험의 상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배상책임 수요증대와 ART시장의 활성화이다. 경제주체들의 권리의식 고양과 함께 2002년 7월 시행예정으로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동 상품뿐만 아니라 리콜 담보상품 등 관련 상품들의 수요증가를 유발할 전망이다. ART시장 중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은 다양한 위험분산을 통한 보험회사의 안정성 확보 가능 등으로 보험 및 기관투자가의 관심증대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⑨ 역외보험시장(cross-border)의 성장이다. 금융 및 자본 자유화는 자본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운용 시스템을 찾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 낮은 가격 및 정보획득 비용으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상대자를 국제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어 현재의 글로벌화 추세와 함께

Cross-border 거래 역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⑩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이다. 국내외적으로 조사된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망에 의하면 가계성보험이 향후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저가형 보장성 보험상품 위주의 제한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내부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추이와 외국과의 시사점, 중장기 시장규모 전망, 향후 10년간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변화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 하에서 중장기적인 시장규모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앞으로의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IMF 체제 이후 국내 보험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향후 보험산업의 추세와 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의 수립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회사만이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 하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분발을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고광수, 「미국의 연금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투자신탁협회, 2000.

권영준, 「구조조정 이후 보험사의 경영전략」, 『보험개발연구』, 보험개발원, 제10권 제1호, 1999. 1., pp. 3 24.

김헌수,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보험개발원, 2000. 3.

나동민 외, 『21세기를 지향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류건식, 이경희,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8.

목진영,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3.

문형표,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 개선방향』,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

박은회,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제30집, 1987. 10., pp. 23 49.

방하남,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정책대안」,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 개선방향』,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

성창제, 「생명보험상품의 연혁과 향후 상품개발 방향」, 『월간생협』, 1989년 4월호, pp. 9 27.

신기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연금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투자신탁협회, 2000.

신동호, 『ART를 활용한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3.

신동호 외,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11.

안철경 외,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과 효율적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0. 3.

오영수 외,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Ⅰ) : 총론』,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_____,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Ⅱ)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

_____,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이순재, 「디지털경제시대의 보험산업의 진로」, 『2000년 전국 보험관련학과 학술제』, 순천향대학, 2000년 8월.

조강필, 「국내 보험시장개방에 대한 평가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보험개발연구』, 보험개발원, 제10권 제3호, 1999. 12., pp. 27 59.

최병호 외, 「기업퇴직금의 미적립 부채규모 추정과 연금보험 전환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보험개발원, 제11권 제2호, 2000. 10., pp.

3 4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금융연구원, 『21세기 손해보험산업의 발전 방안』,2000. 10.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1996. 1.

_____, 『보험동향 통권 제12호』, 1999년 겨울호.

_____, 『보험동향 통권 제15호』, 2000년 가을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_____,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각 연호.

생명보험협회, 「한·미·일의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보』, 제15호, 1998.

_____, 『생명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1999 2/4분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_____ , 『국제통계연감』, 1996, 2000.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2000. 1.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0. 5.

LG경제연구원, 『밀레니엄 리포트』, 2000. 1.

〈해외문헌〉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Fact Book*, 1999.

A.M.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 Life-Health*, 2000.

_____, *Best'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2000.

Best's Review, "All Eyes on China", *Best's Review*, 2000. 8.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Deloitee Consulting, *Millennium Top 10 Global Insurance Industry Outlook*, www.dc.com, 2000.

E. Philip Davi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Financing of Occupational Pensions",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Pension Research Council, 1996.

Robert P. Hartwig, *Future Shock : E-Commerce & the Insurance Industry*,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0. 5. 2.

Swiss Re., "Income Elasticity of Insurance Demand", *Sigma*, No. 7/1986.

_____, "World Insurance in 1998", *Sigma*, No. 7/1999.

_____, "Emerging Markets :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Face of Globalisation" *Sigma*, No. 4/2000.

The Marine and Fir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Inc., *Non-Life Insurance in Japan 1998-1999*, 2000. 1.

Yiming Shen, "China's Insurance Market : Opportunity, Competition and Market Trend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5, No. 3, July 2000, pp. 335 355.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Fact Book*, 각 연호.

保險每日新聞 (損保版), 「e-Economy 環境下의 生命保險시장의 勝者」, 2000年 8月 12日 9月 13日.

日本保險硏究所, 『Insurance **生命保險統計號**』, **각 연호**.

_____, 『Insurance **損害保險統計號**』, **각 연호**.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 『**生命保險** Fact Book』, **각 연호**.

http://www.bok.or.kr

http://www.bea.doc.gov

http://www.epa.go.jp